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고용·산업별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 취·창업 및 제조업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utflow Factors of Young Population
by Employment and Industry:

Focusing on Employment and Manufacturing in Ulsan, South Korea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 순 철

2024년 8월

고용·산업별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 취·창업 및 제조업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도수관

이 논문을 행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 순 철

박순철의 행정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준 금



심사위원 안 성 민



심사위원 정 기 훈



심사위원 도 수 관



심사위원 박 기 목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8월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자연스럽게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현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고용 여부(취·창업자와 구직자로 구분)와 제조업 종사 여부(제조업과 비제조업 종사자로 구분)에 따른 청년들의 이주 의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울산연구원이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청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이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여부와 청년들이 인식하는 일자리 분야 만족도는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취업정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어야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낮기 때문에 취·창업한 청년들이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울산지역에서 학생 신분이거나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취업 시 기대하는 연봉이 높을수록 또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할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

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조업 종사자 여부에 따른 타 지역 이주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제조업 종사 여부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연관산업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확장성이 큰 지식정보산업이나 첨단기술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청년들의 이주 의지가 높고 울산지역 청년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 일자리(서비스업, 물류 및 유통업, 문화관광 산업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울산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인 만큼 제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이직 의도를 낮추어야 한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시와 구군의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적 시행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 청년 응답자의 경우,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역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추론과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을 위해 패널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 청년들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청년인구, 청년유출, 고용, 제조업, 울산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1. 연구 대상	5
2. 연구 범위	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8
1) 문헌연구	9
2) 자료분석	9
3) 설문조사	10
제4절 연구의 독창성 및 기대효과	11
1. 연구의 독창성	11
2.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청년인구	13
1. 청년인구의 개념	13
2. 청년인구의 특징	14
제2절 청년인구의 이동	17
1. 전국의 청년인구 이동 현황	17
2.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21
제3절 청년인구 유출요인	27
1. 직장(직업) 요인	27
2. 정주여건	29

3. 교육환경	30
4. 개인의 인적 특성	32
5. 지역적 특성	34
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36
1.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	36
2. 본 연구의 차별성	47
제3장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49
제1절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49
1. 청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동향	49
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50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54
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거 분야	56
3)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교육 분야	58
4)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복지·문화 분야	60
5)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참여·권리 분야	62
제2절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정책	64
1. 중구	64
1) 청년통계 현황	64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64
3) 예산 현황	65
2. 남구	67
1) 청년통계 현황	67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67
3) 예산 현황	67
3. 동구	69
1) 청년통계 현황	69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69
3) 예산 현황	69

4. 복구	71
1) 청년통계 현황	71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71
3) 예산 현황	71
5. 울주군	73
1) 청년통계 현황	73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73
3) 예산 현황	73
제3절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75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종합평가	75
2. 울산광역시 구·군 청년정책 종합평가	76
제4장 분석자료와 분석 방법	77
제1절 분석자료와 변수 정의	77
1. 분석자료	77
2. 변수 정의	79
제2절 분석 방법	85
1. 울산지역의 각 산업 부문의 분류	85
2.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모형	87
제5장 울산지역 고용·산업별 청년인구 유출 분석	91
제1절 기술통계분석	91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91
1) 종속변수: 타 지역 이주의지	91
2) 설명변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93
2. 통제변수	96
제2절 회귀분석 결과	98
1.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 여부 고려	98
1)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98

2)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103
3)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준비생	107
2.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종사 여부 고려	110
1) 전체 응답자 대상	110
2)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1
1. 청년인구의 취·창업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임	121
2. 지역의 일자리 분야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 완화에 중요	121
3. 과거에 비해 최근에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 감소: 일정 부분 청년정책의 성과로 추정됨	122
4.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청년인구 유출 완화에 중요	122
5.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은 타 지역 이주 의도가 낮음	123
6. 취·창업한 청년들에게는 이직 의도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이 청년인구 유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123
7.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에게는 풍부한 취업 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	124
8.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제조업 종사 여부가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5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125
2. 지역의 약한 연결고리인 창업 활성화 지원	126
3. 지역의 여성친화적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필요	127
4. 제조업 종사자 근로 여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주력	129
5. 울산지역 취·창업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130
6. 청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131
7. 시·구·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131

제3절 연구의 한계	133
1. 지역 청년 인구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 및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	133
2.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필요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2021~2024년	143
[부록 2]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정책: 2022~2024년	160
[부록 3]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인구 유출에 관한 선행연구 23편	181
[부록 4]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192
[부록 5] 설문지	194

[표 차례]

〈표 2-1〉 청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기준	14
〈표 2-2〉 한국의 지역별 청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18
〈표 2-3〉 한국의 지역별 청년 인구 현황: 2023년 기준	18
〈표 2-4〉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2020년 기준	19
〈표 2-5〉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2023년 기준	20
〈표 2-6〉 울산광역시 구·군별 및 성별 청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22
〈표 2-7〉 울산광역시 구·군별 및 성별 청년 인구 현황: 2023년 기준	22
〈표 2-8〉 울산광역시→시·도간 전출 현황(15~34세): 2023년 기준	23
〈표 2-9〉 저자별 논문수	38
〈표 2-10〉 분석대상 연구의 주요 내용	40
〈표 2-11〉 독립변수 요인별 유의도 검증 분석결과	45
〈표 3-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예산현황(2021~2024년)	53
〈표 3-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2021~2024년)	55
〈표 3-3〉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거 분야(2021~2024년)	57
〈표 3-4〉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교육 분야(2021~2024년)	59
〈표 3-5〉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복지·문화 분야(2021~2024년)	61
〈표 3-6〉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참여·권리 분야(2021~2024년)	63
〈표 3-7〉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66
〈표 3-8〉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68
〈표 3-9〉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70
〈표 3-10〉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72
〈표 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74
〈표 4-1〉 변수 정의	83
〈표 4-2〉 울산광역시 각 산업별 기업체수·종사자수	85
〈표 4-3〉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업체수·종사자수	86
〈표 5-1〉 종속변수: 타 지역 이주여부	92

〈표 5-2〉 설명변수	95
〈표 5-3〉 통제변수	97
〈표 5-4〉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99
〈표 5-5〉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01
〈표 5-6〉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104
〈표 5-7〉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105
〈표 5-8〉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108
〈표 5-9〉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109
〈표 5-10〉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11
〈표 5-11〉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12
〈표 5-12〉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114
〈표 5-13〉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115
〈표 5-14〉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116
〈표 5-15〉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117
〈표 5-16〉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요약	119
〈표 6-1〉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128

[그림 차례]

〈그림 2-1〉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 인구수 변화: 2000~2023년	25
〈그림 2-2〉 연도별 논문수	37
〈그림 2-3〉 분석 대상 선행연구의 선정 절차	39
〈그림 3-1〉 중앙정부 청년정책 변화 추이	4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 중인 지역 인구 유출은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외부불경제와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6%, 2023년 기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은 자연 증감(출산-사망)의 지역 간 차이보다 지역 간 이동(사회적 증감)에 주로 기인하고 이러한 이동 중 대부분은 청년층(15세~34세)이 차지하고 있다.¹⁾ 또한 청년 유출 지역은 출산의 저하,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져 중·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인력난(mismatch), 지역 간 고용 지표와 경제성장률 격차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순 이동 수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화시설, 교통인프라, 교육환경 등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광재, 2007; 김순은, 2018; 박진경 외, 2020; 소진광, 2020; 김유현, 2021; 김재훈, 2022; 김화연·이대웅, 2022; 남국현, 2022; 최영출, 2022; Hollander and Nemeth, 2011; Chueva et al., 2022; 박순철·도수관, 2023).

연구 대상인 울산지역은 산업수도를 자칭할 만큼 조선, 자동차, 화학, 비철금속 중심의 중후장대형 기간산업들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고 있고 타 지역 대비 고임금의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중 1위인 반면에 인구 2~4위 도시의 합산 인구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해당함(정민수 외, 2023).

울산지역 인구는 2016년부터 88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은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지속적 증가 상황이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³⁾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정보기술산업, 기술창업 관련 벤처기업(start-up)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신규 투자도 그곳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는 내용들은 이처럼 심각한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현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울산지역의 각 산업 부문별 취·창업자와 구직자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울산 지역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산업 부문별로 청년인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울산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 2) 1인당 지역내총생산 7,751만원(전국 1위, 전국 평균 4,195만원), 1인당 지역총소득 6,097만원(전국 1위, 전국 평균 4,256만원), 1인당 개인가처분소득 2,607만원(전국 2위, 전국평균 2,339만원) (2022년 기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시행계획)
 - 3)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인구는 7,002명, 청년인구는 9,980명 감소로 전체인구 감소(0.63%) 대비 청년인구 감소(3.70%) 비율이 높았음(울산광역시 청년정책시행계획)

2. 연구 목적

2024년 2월 정부(통계청)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⁴⁾이 0.65명(연간 0.72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9천여 명 감소한 23만 명에 그쳐, 2015년 43만 8천 명에서 불과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왔다. 저출생·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과 소비, 투자, 주택시장 등 경제 전반과 국방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보장과 노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4년째 추진되고 있다. 2006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약 2.1조원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에는 14.4조원, 2016년에는 21.4조원, 2019년에는 32.4조원, 2021년 46.7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 동안 정부(일부 지방비 포함)가 투입한 저출산 대응 예산 총규모는 약 271.9조원이었으며, 저출산 대책 시행에 수반되는 국고 규모 기준으로 볼 때 저출산 예산은 약 198.7조원에 달하고 있다(김우림, 2021: 5-6). 이처럼 정부가 5년마다 새로운 계획과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상황은 전반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는 지역 간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 특히 지역 청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청년 인구감소는 산업인력난과 성장잠재력 약화, 지역 활력 저하, 저출생의 악순환 등과 같은 지방의

4)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우리나라는 부부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65명에 불과하다는 것임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에 기인한 청년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역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 문제는 지역 쇠퇴나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방정부의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메가시티 전략(광역화와 연합)⁵⁾과 경제특구⁶⁾ 지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산·학·연 협력과 지역 인력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 상황도 19~34세 청년인구가 2000년 297,395명에서 2020년 224,683명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72,712명의 청년인구가 줄었다(통계청 연도별 데이터). 이는 2020년 울산지역의 청년인구가 2000년 대비 약 24.5%가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을 탐색하고, 향후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 동맹(울산, 경주, 포항) 등

6)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협의로는 외국인 투자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를 포함함(행정안전부, 202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지역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이사나 정주 의사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울산연구원은 2020년 7월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⁷⁾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조사 형식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성별에 기초해 19~34세 청년들을 유형별 비례할당 추출법을 활용하여 1,000명을 조사하였다. 이어 2023년 4월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대상을 최근의 청년 연령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19~39세로 하였고 연구대상을 500명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시점 간 분석은 관내 4년제 대학이 부족한 울산광역시에서 청년 유출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정책을 펼친 2020년과 2023년에 있어 청년 인식 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라 볼 수 있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가 주를 이룬다. 2000년 이후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전·출입과 추세적 변화를 고찰하였고, 2002년 이후의 청년 유출 관련 연구 및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청년 관련 이슈가 제시되면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마련되고 2020년을 전후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와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정책효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7)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울산 거주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울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임

둘째,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와 관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을 포함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먼저 울산지역 청년들의 이동 추이를 파악하고 타 지역 유출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청년인구 유출에 관한 요인별 특성을 고찰한 후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적 요소를 도출한다. 이후 울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울산광역시와 관내 5개 구·군의 청년정책과 예산 현황을 조사하여 2020년과 2023년 시점 간 실시된 청년실태조사에 드러난 인식 변화 유무를 확인한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으로 청년인구들이 주로 이동해 가는지를 파악한 뒤, 그 원인과 특징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청년 유출과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유출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울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청년의 거주지역 결정은 청년이라는 시기에 자신들의 거주지역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과 관련된 요인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업(직장)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과 같은 중요 요인들이 청년들의 거주지역 선택(예.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넷째, 울산청년을 대상으로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업 부문별 취·창업 여부에 따른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 여부 및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일, 각 산업 부문별 취·창업 청년들이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징들은 울산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티부(C. Tiebout)⁸⁾는 일정한 가정하에 시민들이 본인들의 선호체계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함을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로 설명하였다(박순철·도수관, 2023). 합리적 개인으로서의 청년도 본인들의 효용이나 선호 체계에 따라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이동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사회와의 접점에서 청년들은 희망하는 직장이나 근로조건, 주거·교통 등과 관련된 정주여건,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여가시설, 자신이나 자녀를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공동체로서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선호를 찾아 부모로부터 독립될 수도 있는 장소로의 이동을 선택할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지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정책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와 장·단기적 과제인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 결정을 청년이라는 시기에 자신들의 거주지역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과 관련된 요인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직업(직장)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과 같은 중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화된 청년 정책들의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과 2020년의 두 번의 청년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지역 청년의 타 지역 유출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8) C. M. Tiebout(1956)는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라는 논문에서 거래비용 없는 거주지 이동, 완전 정보,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규모수익불변의 생산기술, 특히 시민들의 생계는 고용에 의한 임금이 아닌 배당금에 의존하여 고용기회가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방공공재에 대하여 각 개인은 발에 의한 투표로 자신이 선호하는 거주지를 선택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티부(Tiebout)의 이론은 Musgrave(1939), Samuleson(1954) 등과 같은 고전적 재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는 집권화된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반대되는 이론으로써 공공재 공급이 시장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재정분권의 정당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Oates, 1969; Rosen and Gayer, 2009; 석호원, 2012: 275 재인용).

근거로 울산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헌연구

청년 유출입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수의 변화와 청년 유출과 이동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청년 유출과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대안들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모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과 울산광역시와 관내 구·군의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령(5세)별 인구 이동자수를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전입 및 전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어느 지역으로의 전출이 많으며, 어느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많은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대체로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인데, 그러한 선행연구들은 각 산업 부문별로 청년 취·창업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논의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 지역인 울산지역의 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청년인구 고용 여부와 고용 상태 및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주관적 측면에서의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울산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취·창업자들을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 종사 여부로 구분하여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2020년 7월과 2023년 4월에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타 지역 이주 의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이 데이터의 구축 기간은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기간과 유사하고, 울산시가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 차이를 분석하여 Covid-19와 같은 특정한 외부 환경 변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개입의 효과가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의 독창성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독창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울산지역의 산업을 부문별로 구분하고, 부문마다 청년 인구의 고용 여부와 고용 상태 및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주관적 측면에서의 울산지역 청년인구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를 고찰하였다. 이는 취·창업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논의하였던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청년 시기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울산지역 청년 유출요인과 관련하여 2020년 실시한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 조사에서 도출된 유출요인과 2023년 실시한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에서 현시된 유출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청년 유출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이 추진된 3년의 시점 간 정책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의 핵심인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울산지역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구적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울산은 1962년 공업센터 지정 당시 인구 7만

9천 명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2012년 116만여 명의 광역시로 50년 동안 압축고도 성장을 구현한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심이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몰려드는 젊은 도시였으나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01년을 정점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련과 함께 청년들이 정주하는 매력적인 도시로의 전환은 시급한 지역적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사나 정주 의사를 대면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취업 또는 창업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관심사와 구직 중인 울산지역 청년들의 관심사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지니게 된 원인들을 비교·분석하여 집단별 맞춤형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논거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울산지역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청년 시기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한 정책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청년인구

1. 청년인구의 개념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과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을 지칭했으나 인간 수명과 삶의 주기가 늘어나면서 20대~30대 정도의 나이대로 넓어졌다. 이처럼 청년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적으로 정의되는 융통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의 주체로 간주되어왔으나 최근 점차 주변인으로 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등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청년을 보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송동욱·이기형, 2017; 박순철·도수관, 2023).

청년 연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⁹⁾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럽연합(EU) 등에서는 15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및 「울산광역시 청년구직지원조례」 제정 당시에는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 각각 조례 개정을 통해 19~39세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울산광역시 구·군의 경우에도 중구, 남구, 북구는 울산광역시와 맞추어 19~39세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울주군과 동구는 18~39세를 청년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저출생·고령화와 결혼 시기 지연으로 청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 대상인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청년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추세이다¹⁰⁾.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는 19~39세로 정하였고 부산, 인천, 대전, 전북은 18~39세로, 강원과 전남은 18~45세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19~3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표 2-1〉 청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기준

구분	청년연령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고용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국제기구(ILO, OECD, EU)	15세 이상 24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구직지원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2. 청년인구의 특징

우리나라는 경제 및 정치·사회적 상황이 사회구성원들의 행태,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0) 「청년기본법」(제3조 1항)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다르게 적용할 여지를 두고 있음

한국 경제는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화되는 반면 사회적으로 민주화와 다양화에 대한 열망이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았다(박진경·김도형, 2020).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세대가 구분되고 특징 지워지는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¹¹⁾, 386세대(1960년대)¹²⁾, X세대(1970~1980년대 초반)¹³⁾에 이어 MZ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MZ세대는 대체로 1980년부터 1996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 사이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디지털 환경 노출)를 합쳐서 일컫는다. 우리나라 청년층을 형성하는 MZ세대는 공동체와 집단의식이 강했던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고 삶에 대한 경험과 도전을 선호한다고 한다. 청년은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사회에서 희망, 도전, 미래의 상징처럼 여겨져 오곤 했다. 그러나 취업난, 주택난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한국 청년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이러한 청년세대의 실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로 88만원세대,¹⁴⁾ N포세대,¹⁵⁾ 민달팽이,¹⁶⁾ 니트¹⁷⁾ 등이 있다(박순철·도수관, 2023).

오늘날 청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경쟁, 노력, 성장, 효

-
- 11)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을 내면화함
 - 12) 민주화 시기를 경험하며 정치적 이념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를 내재화함
 - 13)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시초이나 여전히 조직문화에는 순응하는 낡은 세대임
 - 14) 2007년 전후 한국의 20대,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 원에 20대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74%를 곱한 금액인 88만 원에 빗대어 20대의 대부분이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의 비정규직 삶이라는 것을 의미함
 - 15)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 집 마련, 대인관계, 꿈과 희망까지 결국 n가지 이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16)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 머무는 주거 빈곤 청년층을 일컫는 용어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껍데기가 없는 민달팽이에 비유하고 있음
 - 17)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으며, 주로 부모에 의지해 생활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도 구분된다는 의미함

을 대신에 개성, 다양성, 창의성, 연대와 관계를 추구한다.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조성철 외, 2019: 24). 직장에서도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느슨한 연대(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주의적 공동체)’ 등이 청년세대의 지배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청년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미래의 보상을 쫓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지님과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경험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순철·도수관, 2023). 반면 요즘 청년들은 경제활동에서의 소외, 사회참여 활동의 위축,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결혼 등과 같은 삶의 주요 과정의 유예로 인해 높은 심리적 불안감을 표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윤형 외, 2020).

제2절 청년인구의 이동

1. 전국의 청년인구 이동 현황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349,259명이었으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수는 10,501,3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약 20.5%로 나타났다. 반면 3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51,145,886명이었으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수는 10,117,02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19.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시·도별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2020년과 2023년 모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이었으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도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청년 인구수 대비 시·도별 청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경기(26.6%), 서울(21.6%), 부산(6.3%)의 순이었고 2023년 기준으로도 경기(27.5%), 서울(22.0%), 부산(6.0%)의 순이었으나 경기와 서울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부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두 지역 합산 비중이 49.5%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다.

연구 분석 대상 지역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2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울산시 인구(약 113만 6천 명) 대비 19.8% 수준을 보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약 20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울산시 인구(약 110만 3천 명) 대비 18.3%로 조사되어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2020년 전국 평균은 20.5%(울산 19.8%), 2023년 전국 평균은 19.6%(울산 18.3%)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3년 기준 시·도별 인구수와 청년 인구수, 지역별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수 비율, 전국 청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청년 인구수 비율은 <표 2-2>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 한국의 지역별 청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지역 구분	지역별 전체 인구수(명)	(19-34세) 청년 인구수(명)	지역별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수 비율(%)	전국 청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청년 인구수 비율(%)
전국	51,349,259	10,501,336	20.5	100
서울	9,533,412	2,270,894	23.8	21.6
부산	3,366,576	657,231	19.5	6.3
대구	2,410,205	485,374	20.1	4.6
인천	2,922,121	621,232	21.3	5.9
광주	1,444,467	310,199	21.5	3.0
대전	1,459,158	320,838	22.0	3.1
울산	1,136,113	224,683	19.8	2.1
세종	347,069	66,043	19.0	0.6
경기	13,220,207	2,789,198	21.1	26.6
강원	1,528,690	272,312	17.8	2.6
충북	1,590,372	305,732	19.2	2.9
충남	2,108,087	387,996	18.4	3.7
전북	1,799,898	317,742	17.7	3.0
전남	1,847,811	304,914	16.5	2.9
경북	2,635,767	447,394	17.0	4.3
경남	3,332,034	594,226	17.8	5.7
제주	667,268	125,331	18.8	1.2

출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표 2-3〉 한국의 지역별 청년 인구 현황: 2023년 기준

지역 구분	지역별 전체 인구수(명)	(19-34세) 청년 인구수(명)	지역별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수 비율(%)	전국 청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청년 인구수 비율(%)
전국	51,325,329	10,068,859	19.6	100
서울	9,386,034	2,217,197	23.6	22.0
부산	3,293,362	607,924	18.5	6.0
대구	2,374,960	450,839	19.0	4.5
인천	2,997,410	606,319	20.2	6.0
광주	1,419,237	295,956	20.9	2.9
대전	1,442,216	313,825	21.8	3.1
울산	1,103,661	201,892	18.3	2.0
세종	386,525	69,076	17.9	0.7
경기	13,630,821	2,772,168	20.3	27.5
강원	1,527,807	258,308	16.9	2.6
충북	1,593,469	292,501	18.4	2.9
충남	2,130,119	368,976	17.3	3.7
전북	1,754,757	294,796	16.8	2.9
전남	1,804,217	278,275	15.4	2.8
경북	2,554,324	397,705	15.6	3.9
경남	3,251,158	523,564	16.1	5.2
제주	675,252	119,538	17.7	1.2

출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표 2-4〉에 제시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는 주로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제주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세종, 경기지역만 순유입이 관찰된다.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이 주로 20~29세인 반면 경기지역은 30~34세 청년인구의 유입이 많은 특징을 알 수 있다.

〈표 2-4〉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2020년 기준(단위: 명)

구분	전연령			청년인구				
	전 연령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청년 순이동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서울	-64,850	510,014	-574,864	39,017	3,199	27,835	16,988	-10,794
부산	-14,347	121,538	-135,885	-5,000	299	1,217	-5,115	-1,741
대구	-16,835	91,180	-108,015	-7,040	-286	-1,225	-3,985	-1,676
인천	-15,748	146,930	-162,678	-4,984	71	-253	-2,319	-2,372
광주	-6,083	67,646	-73,729	-3,180	-180	-1,259	-1,420	-350
대전	-11,097	81,741	-92,838	-1,400	86	340	-981	-1,133
울산	-13,584	40,475	-54,059	-6,910	-429	-3,526	-1,945	-894
세종	13,025	78,934	65,909	3,619	104	334	1,637	1,787
경기	168,373	704,511	-536,138	59,599	308	19,376	19,815	22,443
강원	5,457	82,291	-76,834	-4,542	-209	-3,006	-1,823	383
충북	3,454	82,742	-79,288	-2,784	-267	-2,636	-205	110
충남	741	123,761	-123,020	-5,337	-270	-4,626	-492	-184
전북	-8,494	62,625	-71,119	-10,156	-272	-5,078	-3,794	-1,142
전남	-9,754	87,803	-97,557	-12,627	-653	-7,032	-3,962	-1,065
경북	-16,978	121,223	-138,201	-18,607	-497	-9,181	-6,481	-2,478
경남	-16,658	124,029	-140,687	-19,316	-985	-10,738	-5,682	-1,514
제주	3,378	36,716	-33,338	-752	-19	-942	-236	62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년 통계자료

〈표 2-4〉에 따르면, 전 연령과 청년인구 모두에 있어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서울지역의 주거환경(높은 주거비, 교통체증 등)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지역이 선택된 측면과 평택, 동탄, 성남,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집중된 결과로 이해된다. 세종으로의 유입은 행정수도 건설이 정착되고 가속화되면서 교통, 문화, 소비, 교육 측면에서의 도시 인프라 성숙에 따른 전입 효과로 볼 수 있다. 강원과 제주지역으로의 이동은

철도교통의 확충과 유연 및 재택근무의 확산, 은퇴 후 새롭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박순철·도수관, 2023). 특히 서울은 전 연령에서는 순유출이 일어난 반면, 20~29세 사이에서는 순유입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 및 졸업 후 취·창업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서울은 전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2023년 기준(단위: 명)

구분	전연령			청년인구				
	전 연령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청년 순이동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서울	-31,250	430,159	-461,409	40,049	4,988	29,240	16,965	-11,144
부산	-11,432	102,217	-113,649	-5,437	639	1,547	-5,445	-2,178
대구	-5,288	83,536	-88,824	-7,274	-154	-3,088	-4,000	-32
인천	33,507	160,441	-126,934	7,850	-40	1,278	2,379	4,233
광주	-9,017	53,486	-62,503	-5,873	-151	-1,863	-2,503	-1,356
대전	-2,474	73,374	-75,848	1,070	374	1,528	-355	-477
울산	-6,215	37,485	-43,700	-3,481	-545	-2,399	-478	-59
세종	1,690	34,247	-32,557	1,136	-139	-261	763	773
경기	44,612	542,110	-497,498	15,191	-2,035	3,144	3,905	10,177
강원	-1,397	68,757	-70,154	-3,797	-96	-2,102	-1,446	-153
충북	3,873	73,162	-69,289	-326	-53	-1,086	207	606
충남	15,840	116,180	-100,340	1,390	-35	-1,743	1,473	1,695
전북	-4,457	53,965	-58,422	-7,196	-142	-3,850	-2,546	-658
전남	-1,800	71,675	-73,475	-6,434	-568	-4,430	-1,807	371
경북	-8,205	107,068	-115,273	-9,176	-467	-5,108	-2,641	-960
경남	-16,300	103,910	-120,210	-15,529	-1,382	-9,410	-3,866	-871
제주	-1,687	30,770	-32,457	-2,163	-194	-1,397	-605	3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년 통계자료

한편, 〈표 2-5〉에 제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는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으로 순유입이 일어났음을 보인다. 2020년과 비교하면 경기로의 순유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 인천으로의 순유입이 매우 증가하였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인천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지역의 순유입이 관찰된다. 경기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대폭 감소된 반면 서울로의 유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은 전 연령에서는 순유출이, 청년인구에서는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6대 광역시 중 특이하게 인천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산업이 집적화되면서 청년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과 2023년에 있어 19~34세 청년인구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도 지역뿐만 아니라 권역별 거점도시인 5대 광역시까지 청년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성장과 활력의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특단의 정책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본사 및 창업벤처 투자자금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교육, 사회, 문화, 교통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박순철·도수관, 2023).

2.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표 2-6〉과 〈표 2-7〉에서 보듯이 울산광역시 구·군별 및 성별 청년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3년 3년간 청년인구는 224,683명에서 201,892명으로 22,791명(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구·군별 청년인구는 2020년에는 남구(69,528명), 북구(45,008명), 중구(40,914명), 울주군(40,479명), 동구(28,736명) 순이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남구(62,864명), 북구(40,245명), 울주군(37,226명), 중구(36,175명), 동구(25,3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청년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남성이 124,851명으로 여성 99,832명보다 25%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데 비해 2023년에는 남성이 113,447명, 여성이 88,445명으로 남녀비율이 28%로 성비 불균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6〉 울산광역시 구·군별 및 성별 청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단위: 명)

구·군별	남				여				합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중구	8,578	7,677	6,307	22,562	6,804	6,138	5,410	18,352	40,914
남구	14,241	13,323	10,938	38,502	11,671	10,323	9,032	31,026	69,528
동구	5,561	5,252	5,339	16,152	4,568	3,894	4,122	12,584	28,736
북구	9,005	8,003	7,981	24,989	6,839	6,307	6,873	20,019	45,008
울주군	9,084	7,373	6,189	22,646	7,113	5,531	5,207	17,851	40,497
합계	46,469	41,628	36,754	124,851	36,995	32,193	30,644	99,832	224,683

출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표 2-7〉 울산광역시 구·군별 및 성별 청년 인구 현황: 2023년 기준(단위: 명)

구·군별	남				여				합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중구	6,464	6,845	6,863	20,172	4,908	5,401	5,694	16,003	36,175
남구	10,988	12,119	12,020	35,127	8,778	9,391	9,568	27,737	62,864
동구	4,528	4,913	4,861	14,302	3,665	3,663	3,752	11,080	25,382
북구	7,043	7,745	8,036	22,824	5,210	5,468	6,743	17,421	40,245
울주군	7,590	6,851	6,581	21,022	5,984	5,013	5,207	16,204	37,226
합계	36,613	38,473	38,361	113,447	28,545	28,936	30,964	88,445	201,892

출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한편 특이하게도 2020년 기준으로는 남녀 공히 19~24세 인구가 25~29세나 30~34세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을 대상으로 하면 19~24세 인구가 25~29세나 30~34세 인구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저출생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8〉 울산광역시→시·도간 전출 현황(15~34세): 2023년 기준(단위: 명)

연도별	계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기타
'00년	21,953	3,604	4,160	2,462	3,202	3,280	5,245
'01년	21,983	3,875	4,420	2,340	3,210	3,180	4,958
'02년	24,424	4,025	4,904	2,707	3,398	3,986	5,404
'03년	25,244	4,042	5,062	2,956	3,363	4,301	5,520
'04년	24,555	3,894	4,922	2,858	3,354	3,938	5,589
'05년	25,030	3,820	4,989	3,030	3,704	4,299	5,188
'06년	25,626	4,197	4,872	3,029	4,126	4,155	5,247
'07년	24,199	4,140	4,705	2,673	3,468	4,311	4,902
'08년	22,800	3,929	4,198	2,461	3,239	4,106	4,867
'09년	23,607	4,128	4,500	2,577	3,336	3,881	5,185
'10년	23,933	4,169	4,498	2,769	3,422	3,753	5,322
'11년	22,618	4,081	4,345	2,713	3,267	3,389	4,823
'12년	22,305	4,383	4,323	2,765	2,990	3,114	4,730
'13년	23,032	4,214	4,810	2,801	3,039	3,285	4,883
'14년	23,983	4,458	5,212	2,722	2,998	3,463	5,130
'15년	24,986	4,531	5,288	2,790	3,335	3,536	5,506
'16년	24,844	4,724	5,125	2,935	3,012	3,578	5,470
'17년	24,779	4,626	5,191	3,201	2,935	3,348	5,478
'18년	24,970	4,924	5,056	3,314	3,200	3,033	5,443
'19년	24,835	5,047	5,070	3,529	2,938	2,911	5,340
'20년	26,664	5,096	6,116	3,524	3,262	2,992	5,674
'21년	26,714	4,868	5,638	3,787	3,832	3,028	5,561
'22년	24,791	4,747	5,381	3,452	2,901	2,652	5,658
'23년	23,347	4,194	5,247	3,210	2,963	2,650	5,08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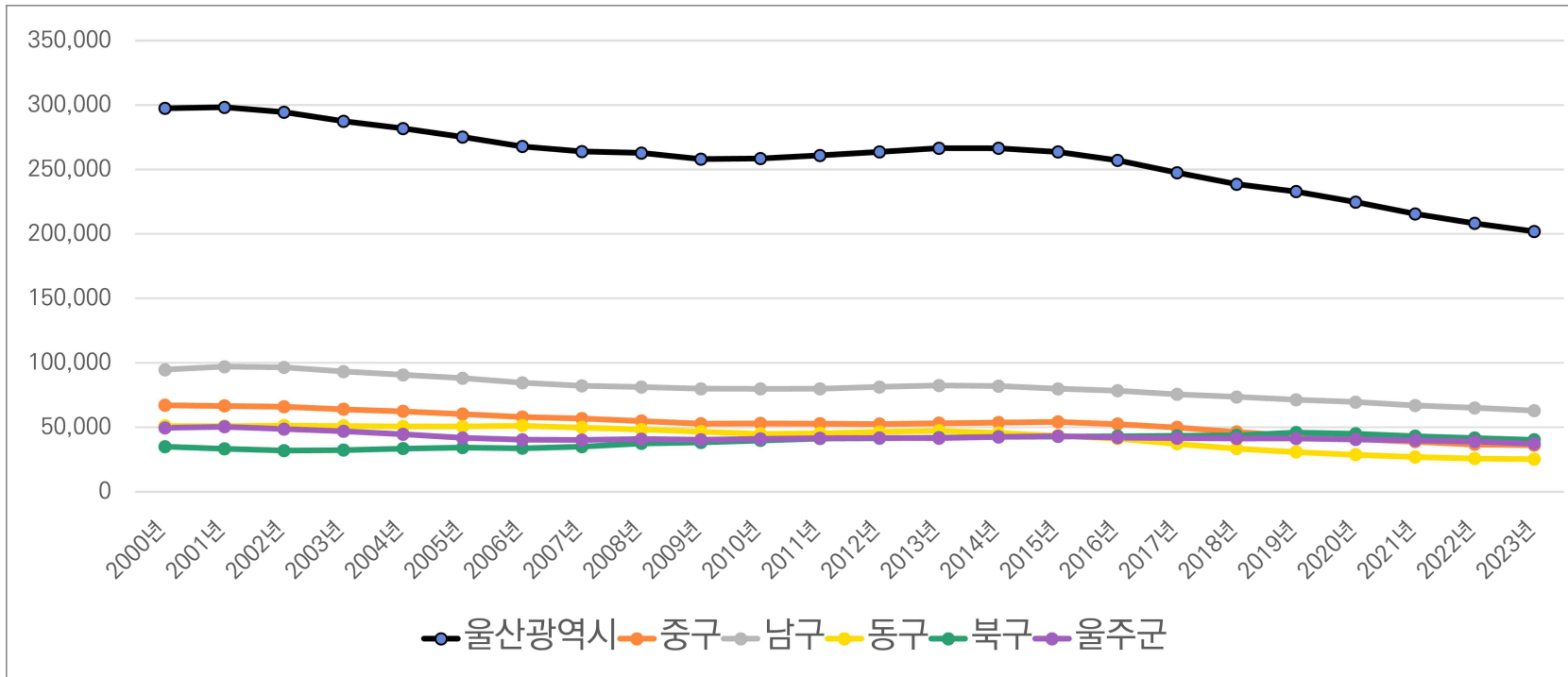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이동을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2-4〉), 순 유출이 -6,910명으로 나타나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지역의 청년인구 순 유출 -7,040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체인구와 청년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울산시의 청년인구 유출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자료(〈표 2-5〉)를 보면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3,481명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24세 인구 유출이 68.9%를 차지하여 대학 진학 시기에 유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을 떠나 이동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표 2-8〉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해 가는 15~34세 인구 현황이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와 울산과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있는 부산, 경북, 경남으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로의 전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은 부산으로의 전출이 가장 많고 증가 추세이나 경북과 경남으로의 전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0~2023년 시기의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 인구수 변화: 2000~2023년(단위: 명)



출처: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도별, 구·군별, 연령별 통계 현황 자료

〈그림 2-1〉은 2000년~2023년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청년인구(19세~34세) 전·출입 추이를 울산광역시 전체와 구·군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산업도시 울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전입하던 청년이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0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청년인구는 2009년을 기점으로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위기 이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울산지역의 청년들은 구직이나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 유출도 울산지역 청년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서 지역의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3절 청년인구 유출요인

지역의 청년 유출이 의미하는 바는 청년들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본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역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박순철·도수관, 2023). 이러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현상은 지역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 잠재적 성장·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고향이나 청소년기를 보낸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개인의 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구 유출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직장(직업) 요인

지역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요 요인으로 직장 또는 직업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김용현, 2012; 조동훈, 2020; Hansen et al., 2003; Ferguson et al., 2007; Scott, 2010; Niedomysl and Clark, 2014). 청년들에게 직장은 경제적 안정, 자아실현 및 성취감,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 자기 계발과 경력 성장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첫 직장은 사회적 진출과 향후 삶의 가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직업탐색과 구직활동이 수반된다. 자신의 가치관, 목표, 경험 등에 따라 거주지 이동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탐색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신이 기대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복리후생 수준,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일자리 즉, 대기업과 같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청년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면 아마 기꺼이 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박순철·도수관, 2023).

직장이나 직업 관련 요인에는 임금, 성과급, 복지혜택과 같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직업 안정성, 직장 내 업무 자율성, 조직문화, 회사와 개인의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청년층이 속한 MZ세대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청년층의 직업관과 가치관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직장 관련 요인에 있어서도 급여 수준, 복리후생제도, 업무 자율성 및 조직문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용현, 2012; 이경우, 2022).

청년 유출에 미치는 직업이나 직장 관련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구체적으로는 취·창업자와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취·창업자의 경우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인 종사상 지위(Status of Workers)에 따라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장소 결정에 자유로울 수 있어 이주 의지가 높을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공공부문의 입지에 영향을 받아 지역 연고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인 이직 의도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원지영, 2015). 현 직장에서의 이직 의도는 급여 수준, 기업의 인지도,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복리후생 수준, 업무의 자율성, 이직 시 기대 연봉과 이직 성공 가능성, 이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구직활동 기간 등이 고려될 것이다(김동현, 2012; 배성숙, 2021). 아울러 직업이나 직장으로서 선호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의 전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와 창업에 도전할 의사 등도 자신의 재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하고 적합한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성환, 2008).

반면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의 경우 취업 준비 단계에서 취업 정보 인지 수준이나 구직정보 획득경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학교나 취업 전

18)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안정된 직장으로 여겨지던 공무원이나 대기업 대신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기업과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와 수평적 기업문화를 가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다고 함

문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경우 친구, 선·후배, 지역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 정보를 획득할 개연성이 크다(김성환, 2008). 또한 취업 시 기대 연봉, 희망하는 취업 분야, 직업에 대한 가치관(워라벨 추구나 직장에서의 성취감 등)이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채창균, 2006; 김영식, 2020; 김윤중, 2022).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과 고용 안정성 및 근무환경을 선택할 것이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적성과 흥미, 시간적 자유로움, 직장과의 거리 등을 우선시 할 것이다(김성환, 2008).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연구개발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네트워크의 존재 여부, 투자금 확보(펀딩)나 금융지원의 용이성, 창업공간의 확보 가능성 등이 창업이나 거주 장소 결정에 핵심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2. 정주여건

정주여건이 지역의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청년들의 가치관이나 선호 체계가 다양화되면서¹⁹⁾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직장이나 직업과 같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의 정주환경이 임금을 보상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관찰하게 되었다(박순철·도수관, 2023). 즉 지역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어메니티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분석에서 제시하였다(이찬영, 2016; 이상욱 외, 2019; 이현국, 2019; 김현우, 2020; 김동신, 2021; 임재빈, 2021).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청년 친화적 어메니티를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주 환경이 조성되고 이곳으로 청년들이 이동해 가는 경

19)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의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삶의 영역별 중요도는 가족생활(5.94점), 일(5.37점), 여가생활(5.35점)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여가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생활’과 ‘일’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발견한다. 저렴한 주거비용,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등과 같은 정주여건은 청년의 주거 장소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공급, 문화 및 여가시설, 교통시설의 공급은 지방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다. 대중교통 체계의 확립과 제공, 문화 및 여가시설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 주거 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정부가 공공주택의 보급 및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고 민영주택 승인 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건축계획 승인이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적용되는 규제를 통해 쾌적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청년인구 이동의 주요 원인이자 정주 여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및 비수도권 지역 간 이동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울산지역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Top-U's; Thinking Of Population issues University Student, 울산기반)은 지역 청년 51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울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응답한 사람은 152명으로 29%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청년들에게 울산의 정주여건은 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고 싶은 이상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청년들이 향후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길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청년들이 이동해 가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지역이 갖추고 있는 교육환경은 그 지역에 청년들을 불러

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열악한 교육환경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유재언, 2015; 오윤석, 2022; Millsap, 2016).

교육환경은 고등교육 기관인 지역 내 대학(종합대학, 전문대학)의 존재 여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학과)의 개설 여부와 초·중·고등학교가 시민들이나 청년들을 만족시킬 만큼 양적이나 질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박순철·도수관, 2023). 이러한 교육환경은 지역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타 지역으로의 유출, 취·창업을 위한 2차 유출, 그리고 결혼 이후 보육이나 자녀교육을 염두에 둔 거주 장소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인구의 1차 유출은 대학진학과 관련되어 있다.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의 기회를 찾아 또는 원하는 전공이나 학과, 취업률이나 평판이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된다. 대학진학을 위한 청년 유출은 4년제 대학이 하나뿐인 울산시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⁰⁾ 울산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도 울산지역 고교생 대학진학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고3 학생 12,016명 중 약 28%인 3,350명만이 울산의 관내 대학에 진학하였고 약 72%인 8,666명이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울산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2021년 실시된 실태조사²¹⁾에서도 타 지역 소재 대학을 희망하는 이유에서 '원하는 학과가 있어서'가 응답을 28.7%로 가장 높게 나와 지역 대학의 학과 다양성 부족이 예비 대학생들의 주요한 유출 원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교육환경은 취업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취

20) 울산 인구 10만명당 대학수 0.45개 전국 16위(전국 평균 0.81개/인천 0.37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학 수 (국립대)	416 (40)	68 (6)	27 (4)	14 (2)	11 (2)	18 (2)	18 (2)	5 (0)	4 (0)	72 (1)	24 (3)	19 (4)	27 (2)	21 (3)	22 (3)	39 (2)	22 (3)	5 (1)
10만명당 대학 수	0.81	0.72	0.82	0.59	0.37	1.27	1.25	0.45	1.03	0.53	1.57	1.19	1.27	1.20	1.22	1.53	0.68	0.74
순위	-	12	10	14	17	3	5	16	9	15	1	8	4	7	6	2	13	11

출처: 울산광역시 자료

21) 2021년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 교육환경과 진학을 다루었음

업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2차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거점 국·공립대나 주요 사립대의 경우 졸업 후 타 지역에 소재한 원하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공계열,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성적도 대졸자의 2차 유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태영 외, 2005; 김안국, 2005; 황여정 외, 2008; 김기승 외, 2013; 류장수, 2015; 문영만 외, 2020; 김윤중 2022).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과 평판, 진학률은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결혼을 즈음한 청년세대의 거주 장소 결정과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순철·도수관, 2023).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신혼세대(주로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회적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 일어나는 경험적 사례를 보면, 선호하는 초·중·고가 많고 입시학원이 밀집된 남구 지역이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서도 선호되고 있고 주택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거주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향후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고 볼 여지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가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거주 장소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박순철·도수관, 2023).

4. 개인의 인적 특성

개인의 가치관, 직업관, 주관적 선호,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개인적 특성은 주거 지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복과 만족 중시, 삶

에 대한 경험과 도전을 선호하는 MZ세대에 속한 청년세대들에 있어 이러한 인적 특성은 청년의 이동요인 분석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분석대상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출생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해당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나라는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힘입어 3년 연속 1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이어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시기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압축성장이 정점을 이룬 시기였다. 이후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주력산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고도성장기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도 민주화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개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하게 된다. 경쟁, 노력, 성장, 효율 대신에 개성, 다양성, 창의성 연대와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삶에 대한 가치관도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조성철 외, 2019: 24)가 보편화된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느슨한 연대(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주의적 공동체)'가 청년세대의 지배적 가치로 떠오른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자기 일만 묵묵히 하면서 미래의 보상을 쫓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열은 소속감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경험을 소비하고 공통의 흥미를 공유하는 일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선 정주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는 낮아질 것이다. 특히 정주여건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높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생활을 이어가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김동신, 2021). 한편 취·창업자이든 취·창업 준비생이든 지역에서 출생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이상욱 외, 2019).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사회적 관계 자본이 형성된 지역을 이탈하여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에는 큰 동기가 필요하며 새로운 도전을 지원해 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도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목적으로 타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데 이미 지역 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목적의 이주 의지는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지역적 특성

청년세대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정서적 유대감이 남아있는 본인의 출생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의 선호나 특성에 따른 선택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나 거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선택일 수도 있다. 즉, 특정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청년의 주거지 결정과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김주영, 2020; 사효석·우한성, 2020; 정충대, 2020).

Clark(1982)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거시적 관점은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경제적·문화적·정책적 차이 등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으로 압출흡인모형에 해당한다.²²⁾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이주 선택에 초점을 두고 지역이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모형이 될 수 있다. 생애주기모형²³⁾은 인구이동을 생애주기에서 단계별로 나타나는 합리적인 투자의 과정으로 이해한다(Polachek & Horvath, 1977).

22) Knapp(1989)은 압출요인으로 높은 실업률, 강도 높은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각종 갈등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흡인요인으로 많은 고용기회, 높은 임금, 교육·의료·문화시설의 확충, 기후와 경관이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시함

23) 어렸을 때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스스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또는 결혼을 하면서 이동의 요인이 발생함. 이후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면 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노년에 이르러 은퇴를 하면 고향이나 쾌적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다시 이동의 유인이 생김. 이처럼 개인은 생애주기별로 이동을 결정하고 이주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선택기준이 효용의 극대화에 있다고 봄

인구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구밀도와 주거비용이 낮을수록 순전입을 촉진하고,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주영, 2020).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특화도, 지식기반제조업 특화도, 문화시설, 병원 등이 교육-일자리 매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사효석·우한성, 2020). 실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 게임,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대기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성남, 동탄, 화성, 평택시를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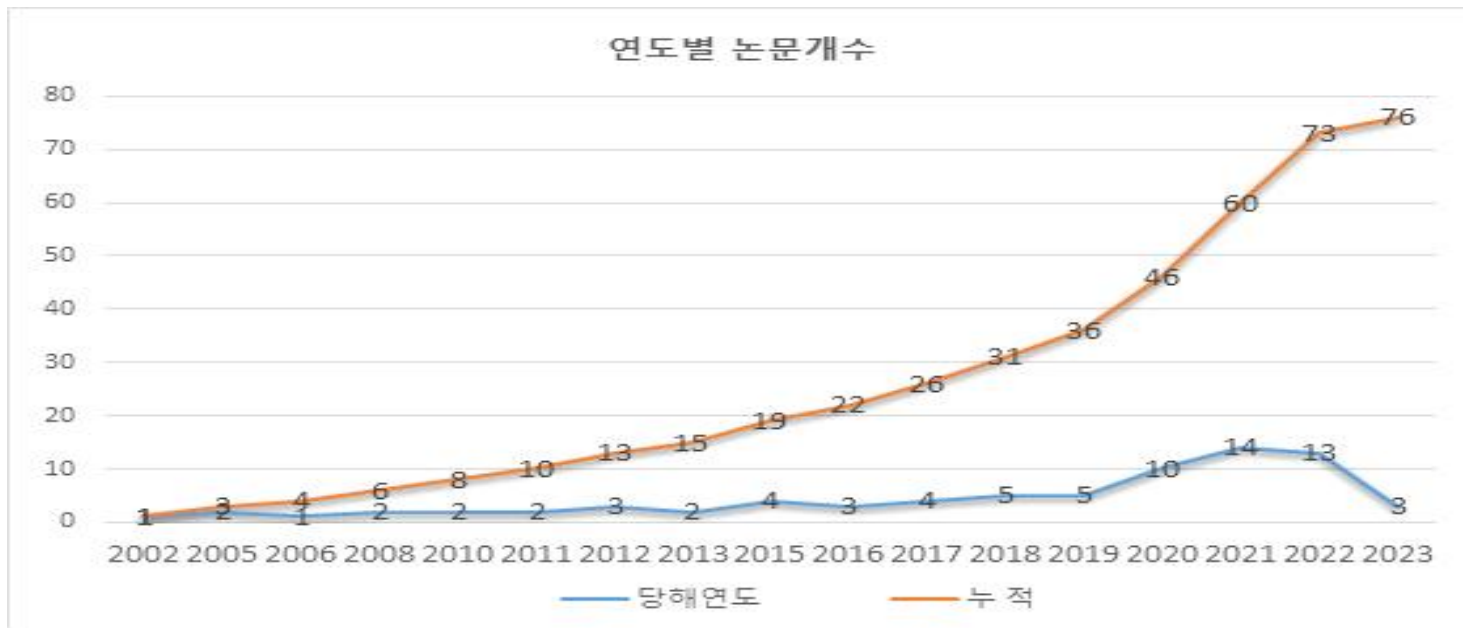
1.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

2023년 12월 2일자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Ross Douthat)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Black Death)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산업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저출생에 따른 지방의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 특히 지역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청년들이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나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이동요인을 고용 기회와 선호하는 직장(직업), 문화/여가시설, 주거, 교통 등과 관련된 정주여건, 자신이나 자녀들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자발적 이동을 개인적 선택 차원에서 고찰하려는 시도와 삶의 질, 지식산업역량, 취업률 등 지역적 기반과 특성을 통해 설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왔다.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도별 논문수와 당해연도 누적 논문수로 나타내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청년인구 유출 관련 선행연구의 연도별 논문수(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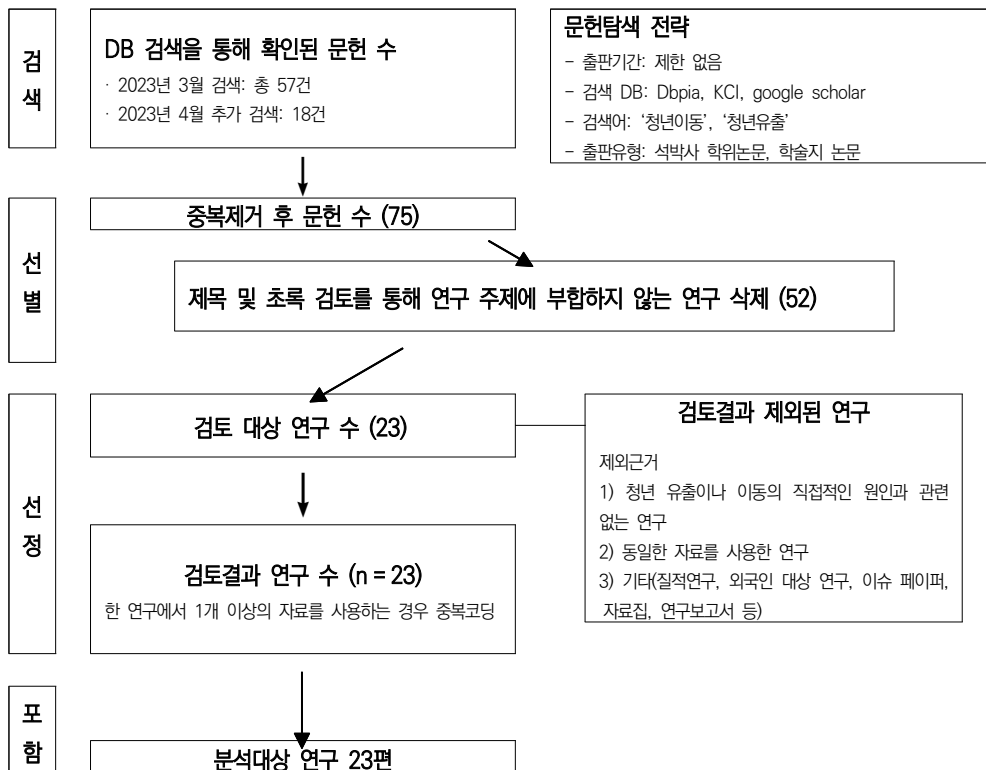
지역 청년 유출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2002년부터 등장하여 2013년까지 매년 2~3편이 발행된다. 2015년을 기점으로 4~5편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10편 이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는 사회적·정책적 문제해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2-9>는 발표된 논문을 저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9〉 저자별 논문수

저 자	논문수	저 자	논문수	저 자	논문수	저 자	논문수	저 자	논문수
전재식	1	오민홍	1	김주영	2	김재홍	1	오윤석	1
반정호	1	김기승	1	신기동	1	도수관	1	홍석현	1
김경희	1	정민수	1	엄창욱	2	김현우	1	권혁범	1
김경휘	1	이현욱	1	노광욱	1	강명구	1	신형진	1
김안국	1	원지영	1	이용관	1	나주몽	2	최형재	1
채창균	1	박천수	1	이상욱	1	백경호	1	김윤중	1
이호수	1	유재언	1	권철우	1	김주진	1	이창문	1
남병탁	1	남효정	1	여준기	1	허만형	1	김민영	1
김성환	1	김재호	1	최재원	1	남재욱	1	이용호	1
박상우	2	문승태	1	홍성우	1	임준홍	1	김민수	1
임 언	1	박정민	1	김리영	1	조대현	1	이재준	1
노일경	1	김행희	1	이현국	1	김유현	1	김노은	1
정혜령	1	이찬영	3	강영환	1	임재빈	1	윤갑식	1
정미나	1	이흥후	1	류장수	1	정기성	1	기윤환	1
임영식	1	문제철	1	정충대	1	배성숙	1	최아영	1
남춘호	1	문영만	4	박부명	1	김동신	2	허성욱	1
노경란	2	홍장표	2	김성아	1	전미선	1	이원도	1
하선주	2	최효철	1	조동훈	2	김정숙	1	유수동	1
이상호	1	이승복	1	사호석	1	임태경	2	김영룡	1
김동현	1	황종규	1	우한성	1	김화연	1		
임 업	1	성주한	1	김영식	2	이대웅	2		
최예슬	1	김형근	1	이영석	1	이정은	1		
서옥순	1	전명숙	1	송선혜	1	황광훈	2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청년유출로 보고 독립변수 요인별 부(-)의 효과, 정(+)의 효과, 유의도 없음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선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색 DB인 Dbpia, KCI, Google Scholar를 대상으로 검색어를 “청년이동”, “청년유출”로 놓고 출판유형을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총 57건을 검색하였고 2023년 4월 18건을 추가 검색하여 중복제거 후 75건의 문헌을 확인하였고 제목 및 초록 검토를 통해 연구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를 삭제하여 최종 52건의 문헌을 선별하였다. 52건의 문헌 중 청년유출이나 청년이동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 없는 연구나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연구, 질적연구, 외국인 대상 연구, 이슈 페이퍼,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을 제외하여 분석대상 연구를 23편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23편 연구의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표 2-10>에 정리하였다.

<그림 2-3> 분석 대상 선행연구의 선정 절차



〈표 2-10〉 분석대상 연구의 주요 내용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서옥순· 오민홍 / 2012	부산	2008GOMS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	한계효과 계수를 활 용한 프라 빗 모형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탈은 일 자리 여부(availability) 보다는 좋은 일자리 (attractiveness)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됨	-지역발전이 지역내 물적 자본의 확충과 함께 우수 인력 (human capital)이 보완될 때 가능
2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김기승· 정민수 / 2013	부산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이 조사한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패널분석	-7개 대도시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경우 임금만이 유의미한 인구 유출 요인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 과 병상수, 고용률, 대형 사업체 비중, 공무원수 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함	-지식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고 도화 -중소기업 초임수준 향상과 공공기관 지 역인재 고용 활성화
3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대 학진학과 대 졸 취업 시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유재연 / 2015	전국	한국교육고용패 널 (KEEP) 1차년도(2004년) ~ 9 차 년 도 (2012년)	이변량 프로빗 모형	-고등학교 소재 도시규모, 고3시 절 원가족 월 평균소득, 대학교 전공에 따라 고등 학교와 동일 지역으로의 대학진학 여부에 차이가 남	-인문계 고교 집단의 출신 지역 잔류 경향이 높음으로 공 무원·공공기관 취업 시 지역 출신자를 우대 하는 정책 필요
4	청년층의 지역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이찬영· 이흥후 / 2016	16개 시도	통계청 국내 이동통계	Pooled OLS분석 패널분석	-전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임금과 취업률이 높고, 결혼 기 회가 많고, 거주비용이 낮은 곳으로 인구이동이 진행되고 있음.	-임금 및 취업률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거주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5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 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이찬영· 문제철 / 2016	광주, 전남지역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 통계자료 활용	이원오차성 분 모형분석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 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 악됨	-인구유출 최소화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지 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 주택수급정책의 안정화 등이 필요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6	대전·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및 청년인력 유·출입 분석	최효철·이승복 / 2017	대전, 충남지역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와 GOMS 자료 활용	이항로지모형	-청년인력 유출입 요인으로 지역 간 임금격차, 지역내 고교 졸업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지역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7	대졸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격차	문영만·홍장표 / 2019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07GOMS~2016GOMS 활용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기업 취업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4년제 국공립 대학 졸업생일수록, 졸업평점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았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8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욱·권철우·임영주 / 2019	울산	통계청·출입자료를 활용	로지모형/다항로지스틱모형분석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거나, 남성이거나, 미혼일수록 울산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음	-청년들의 거주 여건(쇼핑시설, 편의시설,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개선할 필요
9	지역간 특성차이 가세울시 청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리영 / 2019	서울	2017년 통계청의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	상관분석, 회귀분석	-청년층의 이동은 거리와 일자리는 중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음 -주택시장에서의 전세가격이나 주택공급이 청년층 이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일자리가 많은 지역 주변이나 역세권 주변에서의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
10	어메니티와 청년인구 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강영환 / 2019	대전	대전광역시의 동구, 중구, 대덕구의 45개 동의 8년간 인구, 사업조사 자료 활용	패널분석	-제조업과 같은 어메니티는 청년인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도서관, 사적지, 유원지, 여가서비스업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와 같은 어메니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청년 중심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보상구조, 창조적 사고를 조장하는 교육제도, 청년이동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1	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김주영 / 2020	강원도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패널분석	-전체 인구의 순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밀도와 주거비용은 낮을수록 순전입을 촉진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병상수로 평가한 의료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소득의 창출요인으로서 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
12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조동훈 / 2020	전국	2016GOMS 자료를 활용	회귀분석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 분석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했지만, 수도권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다시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구한 이들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기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3	청년층 교육-일자리 매치의 공간적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호석·우한성 / 2020	전국	2016GOMS 자료 활용	위계로짓 모형분석	-개인 수준에서는 교육·의약·공학 전공, 대학원 졸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임금수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 수준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 특화도, 문화시설, 병원 등이 교육-일자리 매치 향상에 기여함	-청년층의 교육-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직업적 요인 외에도 지역 산업 및 지역 환경도 중요
14	청년층의 대학 진학 및 취업 관련 지역이동 예측 요인 탐색	김영식 / 2020	전국	한국교육고용패널의 4-12차년도 자료를 활용	랜덤포레스트법	-취업의 질과 관련된 임금 수준, 직장 규모 등의 변수들이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지역 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 단위에서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5	삶의 자기 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 이동 특 징	김현우· 강명구 / 2020	전 국	2018GOMS 자료를 활용	이변량 프 로빗 모형, 다중회귀분 석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근로시간과 직업 선택에 있어 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 역 간 이동 - 25-29세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창의적 일 자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하 는 것으로 나타남	-상용직·정규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 리 필요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은 심미적·편 의적 만족감을 추구함으로 도시 어 메니티 요소를 개선 할 필요 있음
16	광역도 지역 청년 대 출 자 의 수 도 권 유 출 원 인	정충대 / 2020	7 개 도 지 역	GOMS자료 활용 수도권 유출 원 인 분 석	이항종속변 수 모 형	-4년제 더미와 평균평점은 양의 추 정값 -지역 제조업생산지수는 취업지 역에서 높아질수록 유출 확률을 하락시킴	-지역 우수자원의 잔류유도도 중요하 지만 지역에 남을 상 대적 저숙련자의 교 육 훈련을 위한 투 자와 유인책 필요
17	동 남 권 청 년 의 유 출 입 특 성 및 유 출 결 정 요 인	문영만· 류장수 / 2020	동 남 권 (부 산 , 울 산 경 남)	2008GOMS~ 2017GOMS	로 지 스틱 회 귀 분 석	-(1차유출: 진학) 여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특목고 졸업생일 수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출확 률이 높음 -(2차유출: 취업) 남성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을 수록 유출확률이 높음	-지역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 -동남권 지방정부 지방대학 경쟁력 강 화와 청년들이 선호 하는 관청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
18	지 역 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연 구	임재빈· 정기성 / 2021	부 산	통계청 MDIS 국내 인구이동 데 이 터 와 각 변 수 별 공공데이터를 활 용	다중회귀분 석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 구 및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 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 지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 로 나타남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양질의 문화시설 확대는 수 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
19	지 역 청 년 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 인 에 관 한 연 구	김동신 / 2021	대 구	통 계 청 국 가 통 계 포 털 및 2018년 대구사 회조사 설문자료 를 활 용	다중회귀분 석	- 사업체 수와 대규모 사업체수, 종사자 수, 그리고 고용률 등의 격차가 순 유출 원인임 -개인적 특성, 지역 만족도, 시민 자긍심 등이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침	-지방정부는 혁신적 첨단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함 -인구감소 시대 스마 트 성장, 포용적 성 장, 분권형 지역정 책 추진필요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20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김유현 / 2021	전국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활용	합동최소자승법 (Pooled OLS)	-일반적인 취업가능성 보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련된 주거여건, 지방세 수입으로 대변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편익이 청년인구 순유입률과 정의 관계임	-권역별로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산업구조 전환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21	지역의 사회·문화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최형재 / 2022	전국	GOMS(2007~2017)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	회귀분석	-교통문화자수나 주차장확보율 등 교통인프라, 사설학원 수, 자사고·특목고의 수 등 교육여건, 천명당 의사 수 등 보건의료 기반, 경찰 1명당 주민 수 등 생활안전,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삶의 만족도가 청년유출과 부의 관계임	-경제적·노동시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여건, 문화수준, 의료수준, 안전상황 등 다양한 사회문화여건들도 청년층의 이동에 영향을 미침
22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문영만 / 2022	비수도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OMS2016~2020) 이용	로지스틱 회귀분석	-(1차유출: 진학) 부모소득이 높을수록(1.4배), 특목고 졸업생일수록(3.0배) 수도권 대학 유출 비중이 높았음 -(2차유출: 취업)임금이 높을수록(2.6배),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1.5배), 4년제 대학 졸업생일수록(2.8배) 수도권 유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필요 -일자리 확대 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
23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	이대응 / 2023	강원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활용	유·출입 실태 분석	-강원도 시군에서 타 시도로 전출사유는 1순위 직업, 2순위 교육(20대), 가족과 주택(30대)	-연령 구간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정책 필요(20대 청년의 순유출에 대응하고, 30대 청년의 순유입을 강화)

아래의 <표 2-11>은 독립변수를 요인별로 소분류하고 요인별 분석 빈도와 상관관계에서 유의성 검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1> 독립변수 요인별 유의도 검증 분석결과

분류	소분류	빈도	부(-)의 효과	유의하지 않음	정(+) 효과
직업(직장) 관련 요인	임금	18		1	17
	대기업	4			4
정주여건	정주만족도	5	5		
	거주비용	5	5		
	어메니티	4	4		
교육환경	대학 유형	7			7
	특목고	3			3
	전공일치도	1		1	
	교육 및 보육여건	2	2		
	성별(남성)	7	1	1	5
	부모소득	3			3
	연령	6	4	1	1
	지역 고교 졸업 여부	1	1		
	고향	1	1		
	결혼 여부	2	1	1	
	사회적네트워크활동여부	1	1		
지역적 특성	제조업생산지수	1	1		
	고용율	2	2		
	도시규모	1			1
	지역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특화도, 지식기반제조업 특화도)	1	1		
	인구사회적요인	1	1		
	GRDP, 청년실업률	1			1
	혼인율	1	1		

선정된 23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직업이나 직장 관련 요인은 임금과 기업규모(대기업)를 변수로 하였고 임금은 18편의 연구에서 청년 유출과 정(+)
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은 4번의 빈도에서 모두 청년유출의 원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여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비용이 낮을수록, 도시 어메니티가 발달될수록 유출보다는 그 지역에 머물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요인 분석 빈도는 5회 정도였다. 교육환경에서는 대학 유형이 7회 분석되었는데 우수한 인재일수록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교육 및 보육 여건(2회)은 청년 유출과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일수록,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유출 가능성이 높았고, 고향이거나 지역 고교를 졸업한 경우 지역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면 지역을 이탈하기보다는 머물려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적 특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생산지수, 고용률(2회), 도시규모, 지역산업의 특성, 인구사회적 요인, 청년실업률, 혼인율이 변수로 고려되었고 도시 규모와 청년실업률은 청년 유출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요인들이 청년인구 유출이나 이동에 미치는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대체로 개인 또는 가구의 선호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일부 특성들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예. 채창균, 2006; 류장수, 2015; 원지영, 2015; 이찬영·문제철, 2016; 이찬영, 2018; 이상욱·권철우, 2019; 이상욱 외, 2019; 김영식, 2020; 김재홍·도수관, 2020; 김주영, 2020; 조동훈, 2020; 김동신, 2021; 임재빈·정기성, 2021; 김윤중 외, 2022; 김화연·이대응, 2022; 오윤석 외, 2022; 최형재, 2022 등)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예. Greenwood, 1985; 권기철, 2006; 박추환·김명수, 2006; 박성익, 2006; 김현아, 2008; 김기승·정민수, 2013; 김리영·양광식, 2013; 이찬영·문제철, 2016; 이찬영·이흥후, 2016; 김유현, 2021)²⁴⁾이 주류를 이

24) 김유현(2021: 341-342)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취업가능성이나 기대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집중한 연구들(예. 권기철, 2006; 박추환·김명수, 2006 등)이 초기에 등장하다가 점차 생활여

루고 있다. 또한 분석 자료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조사된 결과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유출의 의사를 확인하고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상황이 향후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울산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직종별, 산업별로 유출 의도가 다를 것이며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도 타 지역 이동의 원인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분 없이 청년 이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추이를 분석하여 사회 여건 변화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정책효과를 시점 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가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에 관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크게 내용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인구의 타 지역 이주 의사를 대면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 원인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간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 관련 연구는 주로 특정 지역에서 일자리, 교육 여건 및 환경, 정주 여건, 도시 어메니티 수준이나 개인적 또는 지역적 특성이 후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나타난 청년 유출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건, 공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예. 박성익, 2006; 김현아, 2008; 김기승·정민수, 2013; 김리영·양광식, 2013; 이찬영·문제철, 2016; 이찬영·이흥후, 2016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기의 다양한 선택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현시적으로 표출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²⁵⁾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울산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여부가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 유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는 지역 청년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기존의 거주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 이주 의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현재 울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창업 청년 집단과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및 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분석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취·창업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산업별(제조업/비제조업)로 집단을 구분하여 산업별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된 현상들을 검증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지역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지역적 특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5)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7월과 2023년 4월에 울산연구원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울산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개입과 재정투입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 울산지역 청년들의 이주의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청년에 대한 관심도 변화에 따른 지역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 의지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제3장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제1절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1. 청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동향

2000년대 이후에 청년 관련 이슈가 제시되었고,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쳐 점차 구체화 된 청년정책은 2010년대 후반부터 청년 삶의 전반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이윤형 외, 2023).

〈그림 3-1〉 중앙정부 청년정책 변화 추이



출처: 울산연구원(2023). 울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청년 인턴제와 청년점포 임차지원, 청년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정책목표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취업정보 통합DB를 구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취업을 장려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²⁶⁾ 같은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시·도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청년 문제에 접근하면서 생애주기별 청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²⁷⁾을 발표하였고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를 담아 수정·보완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 가능성’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고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다.

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울산광역시는 2017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전부개정령에 이어 2023년 일부개정을 하여 청년의 정의를 19~39세로 하여 현행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 측면에서 청년정책 전담 조직으로 2017년 인구정책 담당(정책기획관 소관)을 두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총괄하게 하였고, 2019년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²⁸⁾

26)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였음

27)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5년을 내다보고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 계획임

하면서 청년정책을 인구정책과 분리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정책 담당을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하였고, 2024년 현재 대학청년지원단(미래전략본부 소관) 소속²⁹⁾으로 청년정책 담당을 유지하고 있다.

연차별 계획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정책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5가지로 나누어 시책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참여·권리 분야의 세부 과제를 보면 청년정책 과정에의 참여 문호를 넓히고 공동체 형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계획의 맥락은 직업(직장)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지역적 특성 요인들을 대체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에 명시된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예산현황(2021~2024년)을 보면, 2021년 시행계획은 일자리 분야 21개 사업, 주거 분야 10개 사업, 교육 분야 11개 사업, 복지·문화 분야 14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 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585억 원이었다. 2022년 시행계획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분야에서 두드러진 예산 증가가 관찰되고, 전체 예산도 1,19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어 정책개입이 본격화됨을 알 수 있다. 2023년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부문 예산이 감소한 반면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부문 예산이 증가하였고, 청년주택 공급 확대 부문과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부문 예산이 소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은 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발표된 2024년 시행계획은 전체 예산이 1,195억 원으로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2023년 대비 일자리 분야 예산이 40% 이상 감소한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이 50% 이상 증액되었고 주거 분야 예산도 34% 증액되어 정책 방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8) 2019. 1. 1.자로 정책기획관(청년정책 담당), 복지인구과(인구출산 담당)으로 분리함

29) 미래전략본부장 하에 대학청년지원단을 신설하여 대학혁신지원, 청년정책, 대학유치 담당을 두고 있음

2024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를 사업 개수로 분류하면 복지·문화(18), 일자리(17), 주거(17), 교육(16), 참여·권리(14) 순이나 사업 예산 규모로 검토하면 교육(569억원), 주거(432억원), 복지·문화(119억원), 일자리(69억원), 참여·권리(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까지 시행계획에 반영된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예산현황은 <표 3-1>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예산현황(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사업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사비	기타	계	국비	사비	기타	계	국비	사비	기타	계	국비	사비	기타
합 계		58,550	11,311	15,971	31,268	119,758	42,568	36,729	40,460	91,633	44,892	35,481	11,260	119,565	66,638	32,241	20,686
I. 일자리 분야		6,505	1,133	4,322	1,050	15,686	4,151	10,329	1,205	11,716	2,055	8,892	769	6,959	1,267	4,831	861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4,394	870	2,529	995	12,540	3,886	7,504	1,150	6,995	692	5,611	692	2,497		1,737	760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11	263	1,793	55	3,146	265	2,825	55	4,721	1,363	3,281	77	4,462	1,267	3,094	101
II. 주거 분야		39,584	5,159	5,588	28,837	61,617	16,830	6,955	37,832	32,256	13,845	10,427	7,984	43,201	17,538	10,922	14,741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36,609	4,709	3,078	28,822	53,202	14,460	925	37,817	26,110	12,362	5,779	7,969	36,337	16,062	5,559	14,716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975	450	2,510	15	8,415	2,370	6,030	15	6,146	1,483	4,648	15	6,864	1,476	5,363	25
III. 교육 분야		9,411	3,863	4,229	1,319	31,105	19,748	10,066	1,291	37,978	23,643	11,992	2,343	56,939	41,358	13,008	2,573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071		1,071		1,450		1,450		1,026		1,026		1,024		1,024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7,460	3,863	2,783	814	29,325	19,748	8,456	1,121	33,196	21,680	10,118	1,398	51,956	39,345	11,139	1,472
3.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880		375	505	330		160	170	3,756	1,963	848	945	3,959	2,013	845	1,101
IV. 복지문화 분야		2,035	1,131	845	59	10,343	1,809	8,405	129	9,021	5,319	3,541	161	11,943	6,475	2,960	2,508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가지원		733	659	51	23	8,392	1,253	7,098	41	3,684	3,316	258	110	4,325	3,893	303	129
2. 청년 건강 증진		126	88	38		227	89	138		394	176	218		498	223	275	
3. 청년 취업역량 지원확대		486	384	66	36	984	467	429	88	673	527	95	51	818	647	101	70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690		690		740		740		4,270	1,300	2,970		2,750	930	1,820	
5. 육아가 우산인 사회 조성														3,552	782	461	2,309
V. 참여권리 분야		1,015	25	987	3	1,007	30	974	3	662	30	629	3	523		520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220		217	3	245		242	3	427		424	3	273		270	3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15		15													
3. 청년희망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780	25	755		762	30	732		235	30	205		250		250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표 3-2〉는 2021~2024년까지 시행계획에 반영된 부문별 세부 사업을 포함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이다. 4개년에 걸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1년 65억 원에서 2022년 15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가 2023년 117억 원, 2024년 69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과 관련하여 채용 지원금, 청년인턴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높고,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교육과 창업공간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2021~2023년까지는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부문의 예산이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부문보다 높게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부문의 예산 반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사업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6,505	1,133	4,322	1,050	15,686	4,151	10,329	1,205	11,716	2,055	8,892	769	6,959	1,267	4,831	861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4,394	870	2,529	995	12,540	3,886	7,504	1,150	6,995	692	5,611	692	2,497		1,737	760
1-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2,186	763	890	533	5,862	1,100	4,082	680	2,348	608	1,309	431	819		556	263
1-2. 청년재직자 지원 강화		881		881		4,000	2,400	1,600		2,962		2,962		0		0	0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327	107	758	462	2,678	386	1,822	470	1,685	84	1,340	261	1,678		1,181	497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11	263	1,793	55	3,146	265	2,825	55	4,721	1,363	3,281	77	4,462	1,267	3,094	101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160		1,160		2,000		2,000		1,500		1,500		1,350		1,350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951	263	633	55	1,146	265	825	55	3,221	1,363	1,781	77	3,112	1,267	1,744	101

2)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거 분야

주거 분야는 건축물 조성이 수반되어 청년정책 중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영역이다. 사업 내용은 도심 내 청년특화 주택공급과 전·월세 비용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1년부터 4년간 추이를 보면 395억 원(2021년), 616억 원(2022년), 322억 원(2023년), 432억 원(2024년)이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 예산은 사업의 완료와 신규사업의 착수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고 청년 전·월세 비용지원 부문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3〉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거 분야(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과제(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39,584	5,159	5,588	28,837	61,617	16,830	6,955	37,832	32,256	13,845	10,427	7,984	43,201	17,538	10,922	14,741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36,609	4,709	3,078	28,822	53,202	14,460	925	37,817	26,110	12,362	5,779	7,969	36,337	16,062	5,559	14,716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등 공급	36,609	4,709	3,078	28,822	53,202	14,460	925	37,817	26,110	12,362	5,779	7,969	36,337	16,062	5,559	14,716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975	450	2,510	15	8,415	2,370	6,030	15	6,146	1,483	4,648	15	6,864	1,476	5,363	25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500	450	35	15	500	450	35	15	500	450	35	15	840	756	59	25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475		2,475		7,915	1,920	5,995		5,646	1,033	4,613		6,024	720	5,304	

3)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생 진로 지원 사업, 우수 인재 장학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 4개년에 걸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1년 94억 원에서 2022년 31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가 2023년 379억 원, 2024년 56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2022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2022년), 글로벌대학30 지원사업(2024년)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4〉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교육 분야(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과제(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9,411	3,863	4,229	1,319	31,105	19,748	10,066	1,291	37,978	23,643	11,992	2,343	56,939	41,358	13,008	2,573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071		1,071		1,450		1,450		1,026		1,026		1,024		1,024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071		1,071		1,450		1,450		1,026		1,026		1,024		1,024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7,460	3,863	2,783	814	29,325	19,748	8,456	1,121	33,196	21,680	10,118	1,398	51,956	39,345	11,139	1,472
2-1.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7,460	3,863	2,783	814	29,325	19,748	8,456	1,121	33,196	21,680	10,118	1,398	51,956	39,345	11,139	1,472
3.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880		375	505	330		160	170	3,756	1,963	848	945	3,959	2,013	845	1,101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인착 지원	250		50	200	150		50	100	583	433	50	100	719	393	50	276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630		325	305	180		110	70	3,173	1,530	798	845	3,240	1,620	795	825

4)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 자산형성, 청년 건강증진, 청년 취약계층 지원, 문화 활동 기반 강화 및 창작지원 중심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4개년에 걸쳐 복지·문화 분야 예산은 2021년 20억 원에서 2022년 10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가 2023년 90억 원, 2024년 119억 원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2022년 증액 사유는 당해 연도에만 반영된 청년수당(70억원) 지급으로 판단되며, 2024년부터 육아가 우선인 사회 조성 부문이 포함되어 35억 원의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활성화와 신혼, 맞벌이 부부 행복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5〉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복지·문화 분야(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사업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2,035	1,131	845	59	10,343	1,809	8,405	129	9,021	5,319	3,541	161	11,943	6,475	2,960	2,508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지원		733	659	51	23	8,392	1,253	7,098	41	3,684	3,316	258	110	4,325	3,893	303	129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자원제도 개편		733	659	51	23	8,392	1,253	7,098	41	3,684	3,316	258	110	4,325	3,893	303	129
2. 청년 건강 증진		126	88	38		227	89	138		394	176	218		498	223	275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126	88	38		227	89	138		394	176	218		498	223	275	
3.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486	384	66	36	984	467	429	88	673	527	95	51	818	647	101	70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360	288	36	36	527	351	88	88	512	410	51	51	706	566	70	70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26	96	30		457	116	341		161	117	44		112	81	31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690		690		740		740		4,270	1,300	2,970		2,750	930	1,820	
4-1.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510		510		480		480		3,900	1,300	2,600		2,260	930	1,330	
4-2.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180		180		260		260		370		370		490		490	
5. 육아가 우선인 사회 조성														3,552	782	461	2,309
5-1. 보육 접근성 확대														3,552	782	461	2,309

5)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참여·권리 분야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 공론장과 정책 플랫폼 구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통계 작성,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관련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는 10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6억 원, 2024년 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울산광역시 청년센터는 2023년부터 현장 사무실 운영 자체가 종료되고 기존 센터에서 진행하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대학청년지원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센터 운영이 종료되어 예산에서 일부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

〈표 3-6〉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참여·권리 분야(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사업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1,015	25	987	3	1,007	30	974	3	662	30	629	3	523		520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220		217	3	245		242	3	427		424	3	273		270	3
1-1. 청년이 참여하는 시 위원회		12		12		12		12		8		8		6		6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208		205	3	233		230	3	419		416	3	267		264	3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15		15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15		15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780	25	755		762	30	732		235	30	205		250		250	
3-1. 청년 플랫폼 구축		730		730		702		702		40		40		70		70	
3-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50	25	25		60	30	30		195	30	165		180		180	

제2절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정책

울산광역시 구·군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발맞추어 2020년경 「청년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인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시행계획 최초 수립 시기는 구·군별로 상이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는 2020년, 동구와 북구는 2021년, 중구와 울주군은 2022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구·군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구·군별 시행계획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구

1) 청년통계 현황

2021년 11월 말 기준 울산 중구의 19세 이상 34세 미만 인구는 39,081명으로 중구 총인구 대비 18.3%로 전국 청년인구 비율(20.3%)보다 2.0%, 울산 전체 청년인구 비율(19.8%)보다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는 울산 청년세대(53,018세대)의 15.06%(7,986세대)가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19세 이상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2020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2026년에 해당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023년부터는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확대하였다.

3) 예산 현황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 설자리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초 계획이 수립된 2022년에는 국·시·구비 구분 없이 작성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울산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희망상가 건립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2,060억 원으로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7억원과 2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거 분야와 일자리 분야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7〉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2년 ³⁰⁾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합 계		206,078				2,766	1,533	713	520	2,952	1,951.5	480.5	519
I. 일자리 분야		79,207				525	98	104	323	825	458	118	249
II. 문화 분야(놀이자리)		873				85			85	85			85
III. 주거 분야(살자리)		120,078				1,995	1,334	566	95	1,895	1,429	308	158
IV. 자립 분야(설자리)		5,920				161	101	43	17	147	64.5	54.5	27

30)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2년 시행계획을 재원의 구분(국비, 시비, 구비 등 기타) 없이 작성하였음

2. 남구

1) 청년통계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울산 남구의 19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는 81,713명으로 2022년 대비 2,700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감소된 총인구수의 80%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청년인구 순 유출이 줄어들고는 있으나³¹⁾ 청년 유출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2020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구의원, 전문가, 청년으로 구성된(17명)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의결하고 종합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청년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로 '청년정책협의체(30명)'를 두고 있다.

3) 예산 현황

2022년 시행계획은 165억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문화·복지, 자립, 참여 4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일자리, 문화·교육, 복지·경제, 참여 분야로 재편하면서 전체 예산도 증액해 나가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 245억 원 중 164억 원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³²⁾에 배정되었고 20억 원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³³⁾에 할당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5개 사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1) (2018년)▽2.2% (2019년)▽3.3% (2020년)▽1.9% (2021년)▽2.7% (2022년)▽1.1% (2023년)▽1.3%

32)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임

33)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3-8〉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과제	2022년				연도(백만원) 세부과제	2023년				연도(백만원) 세부과제	2024년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합 계	16,502	11,763	920	3,819	합 계	23,181	18,063	1,876	3,242		24,508	19,193	1,728	3,587
I. 일자리 분야	1,517	378	22	1,117	I. 일자리 분야	1,739	461	292	986	I. 일자리 분야	1,632	418	55	1,159
II. 문화·복지 분야	1,943	31	15	1,897	II. 문화·교육 분야	2,816	1,350		1,466	II. 문화·교육 분야	3,449	1,800	15	1,634
III. 자립 분야	13,015	11,354	883	778	III. 복지경제 분야	18,488	16,252	1,584	652	III. 복지경제 분야	19,399	16,975	1,657	767
IV. 참여 분야	26			26	IV. 참여 분야	138			138	IV. 참여 분야	28			28

3. 동구

1) 청년통계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울산 동구의 18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는 37,038명으로 동구 지역 총인구(152,287명) 대비 24.3%에 해당하며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비율보다 1%, 전국 청년인구 비율보다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지역의 최근 5년간 인구는 2019년 159,656명에서 2023년 152,287명으로 7,369명이 감소하였는데, 청년인구가 9,358명 감소한 데 반해 65세 이상 노년층은 7,102명 증가하였다.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2018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2020년 2021~2025년을 계획 연도로 5개년 계획인 울산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청년 정책협의체’를 19명으로 구성하였고 2024년에는 2기를 구성하면서 인원을 29명으로 확대하였다.

3) 예산 현황

2022년 시행계획에는 주거 분야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6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8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이 119억원에 달하였다. 2023년부터 2 사업의 지급대상이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은 23억 원(2023년), 31억 원(2024년)으로 편성되고 있다. 예산 규모별로는 주거 분야, 일자리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9〉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합 계		11,997	7,969	3,096	932	2,307	1,260	643	404	3,114	861.5	500.5	1,752
I. 일자리 분야		1,028	30	698	300	788	434	218	136	1,061	418	390	253
II. 문화 분야(놀자리)		216			216	152			152	181			181
III. 주거 분야(살자리)		10,541	7,939	2,398	204	1,279	826	425	28	1,465	443.5	50.5	971
IV. 자립 분야(설자리)		212			212	88			88	407		60	347

4. 복구

1) 청년통계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울산 복구의 19~39세 인구는 55,393명으로 복구 지역 총인구 216,477명 대비 25.59%로 울산광역시 평균(24.42%)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 인구는 2020년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청년인구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세대주가 청년인 세대는 18,573세대이며 청년세대 중 1인세대 비율은 36.6%로 5개 구·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2020년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2026년을 계획 연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였다.

3) 예산 현황

복구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로 나누어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의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주거 분야에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 매곡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사업, 상안지구 행복주택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고 복지·문화 분야에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서관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포함하여 관내 타 구·군에 비해 전체사업비가 크게 작성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13억 원, 2023년 480억 원, 2024년 740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거와 복지·문화 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40억 원 수준으로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0〉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합 계		71,378	15,004	16,646	39,728	48,064	10,674	16,157	21,233	74,077	16,845	16,127	41,100
I. 일자리 분야		3,250	513	955	1,782	3,525	218	1,369	1,938	3,958	185	1,431	2,342
II. 주거 분야		48,787	9,849	8,333	30,605	15,866	3,654	5,716	6,496	51,294	10,237	9,439	31,618
III. 교육 분야		207			207	149			149	155			155
IV. 복지·문화 분야		19,115	4,642	7,358	7,115	28,425	6,802	9,032	12,591	18,582	6,423	5,257	6,902
V. 참여·권리 분야		19			19	99		40	59	88			88

5. 울주군

1) 청년통계 현황

울주군은 청년의 범위를 18~3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청년인구는 50,699명으로 이는 군 전체인구의 23.2%에 해당한다. 18~39세 기준으로 청년인구를 비교하면 남구(84,413명), 북구(57,523명)에 이어 울주군(50,699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울주군의 청년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³⁵⁾이다.

2) 제도적 기반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울주군은 2019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청년정책 협업TF팀’을 구성하였다.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였고 2022년부터 연차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및 창업지원과 청년문화공동체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예산 현황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참여, 일자리, 복지, 문화 4개 분야로 단순화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 122억원, 2023년 166억원, 2024년 274억원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해 오고 있다. 특히하게도 참여 분야를 상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간조성보다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거·복지 예산보다 일자리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35) (2019년) 59,609명, (2020년) 57,249명, (2021년) 55,375명, (2022년) 53,385명, (2023년) 50,699명

〈표 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계	국비	시비	구(기타)
합 계		12,285	1,676	1,467	9,142	16,677	3,888	2,269	10,519	27,440	8,407	4,325	14,708
I. 참여 분야		1,873		500	1,373	529			529	125			125
II. 일자리 분야		4,687	299	961	3,427	8,106	1,986	1,963	4,156	18,465	6,120	3,971	8,374
III. 복지(주거복지) 분야		4,545	877	6	3,662	6,862	1,402	56	5,404	7,400	1,788	104	5,508
IV. 문화 분야		1,180	500		680	1,180	500	250	430	1,450	500	250	700

제3절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종합평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의 재정규모는 2021년 585억원에서, 2022년 1,197억원, 2023년 916억원, 2024년 1,195억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기준 울산광역시 예산규모 4조 7,932억원(일반회계 39,445억원, 특별회계 8,487억원)의 2.4%에 해당하여 지역 청년유출 문제의 중대성이나 정책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재정규모를 확대할 필요성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책사업 구성을 살펴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년유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나 언론, 청년의 목소리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교육(569억원), 주거(432억원), 복지·문화(119억원), 일자리(69억원), 참여·권리(5억원) 순으로 나타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울산대학교 글로벌대학30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주택 공급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나 사업은 규모가 작고, 내용적으로도 인턴 채용 시 지원이나 중소기업 채용 시 장려금 성격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저출생 대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육아 지원 예산이 2024년에 들어서서 비로소 ‘육아가 우선인 사회 조성’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정책 수단과 기획력, 재정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구·군의 청년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구·군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성 체계나 사업 내용에 있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 노력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2. 울산광역시 구·군 청년정책 종합평가

울산광역시 구·군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추진과 비슷한 시기에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최초 수립 시기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2020년, 동구와 북구는 2021년, 중구와 울주군은 2022년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구·군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사업은 일자리, 문화/교육, 복지/경제, 주거, 자립, 참여/권리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구·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대상 사업 범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구·군과 울산광역시와의 정책적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어 구·군별로도 뿐만 아니라 같은 구·군내에서도 연도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지식산업센터, 희망상가 건립사업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2,000억원이 넘는 예산계획을 제시하였고 2023년부터는 건설 및 건립사업을 제외하여 27~29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 시행계획에는 2022~2024년까지 계속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포함하여 연간 사업비가 740억원에 이른다.

구·군별 일자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구 8억, 남구 16억, 동구 10억, 북구 39억, 울주군 184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 범위에 울주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144억원을 포함하였고, 북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9억원을 포함하여 구·군간 정책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에 당사자인 청년들을 참여(청년정책 위원회와 협의체)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분석자료와 분석 방법

제1절 분석자료와 변수 정의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요인을 탐색하여, 향후 지방정부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 모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디어나 지역 뉴스에서 자주 거론된 유출요인에 해당하는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향후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사를 측정할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울산지역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 유무 및 그러한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울산연구원에서 구축한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와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년 인구의 이주 의지와 그 영향요인 그리고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수행에 매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20년 및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는 2020년 7월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지역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수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실태조사 당시 Covid-19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조사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지역별로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에 최대한 근접한 샘플링을 위해 다단계층화 계통추출을 통해 총 1,00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둘째,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는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연구원에서 2023년 4월에 울산지역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수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는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조사방식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지역별로 만 19세~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50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20년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의 청년 연령을 통일시키기 위해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에 포함된 만 35세~39세에 해당하는 응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된 뒤 최종적으로 37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2020년도 데이터와 2023년도 데이터는 모두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관련 특성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데이터와 2023년도 데이터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중요한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직장(직업) 요인, 정주 여건, 교육환경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데이터와 2023년도 데이터는 모두 본 연구의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청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넷째, 2020년도 데이터와 2023년도 데이터는 울산지역에서 Covid-19 팬데믹이 막 시작된 2020년도의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식과 울산지역에서 Covid-19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도의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울산지역 청년인구 패널데이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Covid-19 팬데믹 전후의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실제로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2020년 7월에 수집한 데이터와 2023년 4월에 수집한 데이터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비교적 최근까지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 유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2020년 및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울산연구원(2020, 2023)에서 생산한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를 측정한 변수(종속변수),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요인을 측정한 다양한 변수들(설명변수),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역요인들을 측정한 변수들(통제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종속변수는 두 가지의 더미변수로 측정된다. 첫 번째는 청년 응답자가 울산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타 지역 이주意指 1'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종속변수는 청년 응답자가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타 지역 이주意指 2'라고 명명한다. 종속변수인 '타 지역 이주意指 2'에는 울산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 지역 이주意指 1'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타 지역 이주意指 1' 변수의 측정값이 1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청년 응답자는 울산을 떠나 향후 타 지역으로 무조건 이동해 갈 예정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 지역 이주意指 2' 변수의 측정값이 1인 경우에는 청년 응답자가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처럼 종속변수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청년인구 유출 및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울산지역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가겠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설명변수로 활용되는 변수들에는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을 측정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먼저, 직장(직업) 요인은 청년 응답자의 고용과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실제로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창업자 여부, 전문직 종사자 여부, 공공부문 종사자 여부, 현 직장 종사자수,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 본인소득, 이직 의도 유무, 취업 시 기대 연봉, 구직활동 기간, 대기업 취업 희망 유무, 공공부문 취업 희망 유무, 창업 의향 유무, 취업 정보 인지 수준, 일자리 만족도 변수들을 직장(직업)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전문직 종사자 여부, 공공부문 종사자 여부, 현 직장 종사자수,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 본인소득, 이직 의도 유무, 일자리 만족도 변수들은 취·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이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시 활용하는 설명변수이며, 취업 시 기대 연봉, 구직활동 기간, 대기업 취업 희망 유무, 공공부문 취업 희망 유무, 창업 의향 유무, 취업 정보 인지 수준, 일자리 만족도 변수들은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들만을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이주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시 활용하는 설명변수이다. 그리고 정주여건 요인에는 청년 응답자들이 울산의 문화/여가 분야, 주거 분야, 의료 분야, 교통 분야에 대해 각각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그들의 만족 수준을 측정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환경 요인은 청년 응답자가 울산의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통제변수에는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유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도 통제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청년 응답자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응답자의 거주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울산광역시 구·군지역 여부(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청년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통제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이유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미나(2010), 유재연(2015), 이상욱 외(2019) 등의 연구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생했는지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은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을 것이며,³⁶⁾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이나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적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 결정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 응답자의 경우는 자녀 보육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 결정을 쉽게 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형성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간관계는 거주지역에서 형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기보다는 기존의 거주지역 내에서 자녀들의 보육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면, 거주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군 좋은 곳이나 보육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크다. <표 4-1>은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값을 설명한 것이다.

36) 엄창욱 외(2018)와 김동신(2021)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높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생활을 지속해가려는 의지가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삶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타 지역으로의 이주에서 오는 두려움을 더 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박순철·도수관,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1〉 변수 정의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 변수	타 지역	타 지역 이주의지 1	1=울산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갈 예정임; 0=기타
	이주 의지	타 지역 이주의지 2	1=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0=기타
설명 변수	직장(직업) 요인	취·창업자	1=현재 취·창업자임; 0=기타
		전문직 종사자	1=전문직 종사자; 0=기타
		제조업 종사자	1=제조업 종사자; 0=기타
		공공부문 종사자	1=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0=기타
		현 직장 종사자수	1=1~4명; 2=5~9명; 3=10~29명; 4=30~99명; 5=100명 이상
		현 직장 근무기간	현재 일자리의 근로기간(단위: 년)
		월평균 본인소득	1=없음; 2=50만원 미만; 3=50~100만원 미만; 4=100~150만원 미만, 5=150~200만원 미만; 6=200~250만원 미만; 7=250~300만원 미만; 8=300만원 이상
		이직 의도	1=이직 의도 있음; 0=기타
		취업 시 기대 연봉	취업 시 생각하는 적정 연봉 수준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1=2,500만원 미만; 2=2,500~3,000만원 미만; 3=3,000~3,500만원; 4=3,500~4,000만원 미만; 5=4,000~4,500만원 미만; 6=4,500~5,000만원 미만; 7=5,000만원 이상
		구직활동 기간	취업을 위해 현재까지 준비한 구직활동 기간(단위: 년)
		대기업 취업 희망	1=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체가 대기업임; 0=기타
		공공부문 취업 희망	1=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체가 공공부문(정부기관 및 공사·공단); 0=기타
		창업 의향 있음	1=창업 의향 있음; 0=기타
		취업정보 인지 수준	1=전혀 알지 못함; 2=별로 알지 못함; 3=보통; 4=다소 알고 있음; 5=많이 알고 있음
	일자리 만족도	울산의 일자리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울산의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 못함
	정주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울산의 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만족도	2=대체로 만족 못함
		주거 만족도	울산의 주거 분야에 대한 만족도	3=보통
		의료 만족도	울산의 의료 분야에 대한 만족도	4=대체로 만족함
		교통 만족도	울산의 교통 분야에 대한 만족도	5=매우 만족함
2023년	1=2023년(2023년 응답자); 0=기타(2020년 응답자)			
성별(남성)	1=남성; 0=여성			
연령	응답자 연령(단위: 세)			
결혼(미혼자)	1=미혼자; 0=기타			
교육수준	고교 졸업 이하		1=고등학교 졸업; 0=기타	
	대학교 졸업		1=대학교 졸업; 0=기타	
	대학원 졸업		1=대학원 졸업; 0=기타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1=출생으로 인해 현재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음; 0=기타			
통제 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1=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음; 0=기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1=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0=기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울산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 못함, 2=대체로 만족 못함, 3=보통 4=대체로 만족함, 5=매우 만족함	
지역수준	중구지역		1=중구지역 거주; 0=기타	
	남구지역		1=남구지역 거주; 0=기타	
	동구지역		1=동구지역 거주; 0=기타	
	북구지역		1=북구지역 거주; 0=기타	
	울주군지역		1=울주군지역 거주; 0=기타	

제2절 분석 방법

1. 울산지역의 각 산업 부문의 분류

2024년 1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고시한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기업을 산업별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21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는 137,666개의 기업체에 398,93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내 산업별 기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표 4-2>와 <표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2> 울산광역시 각 산업별 기업체수·종사자수

구분	합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수(개)	137,666	947	17	10,779	339	315	11,231	30,788	13,275	20,912
종사자수(명)	398,931	1,538	153	121,920	435	2,091	41,434	52,813	27,538	36,744

구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개인 서비스업
기업수(개)	994	684	20,770	3,398	3,577	5,846	1,562	3,142	9,232
종사자수(명)	3,885	1,075	24,010	14,899	21,928	8,391	12,437	4,731	13,388

출처: 중소기업부

〈표 4-3〉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업체수·종사자수

구분	기업 수(개)		종사자수(명)	
		구성비(%)		구성비(%)
합계	137,666	100.0	398,931	100.0
중구	24,641	17.9	47,174	11.8
남구	48,235	35	130,327	32.7
동구	13,368	9.7	58,375	14.7
북구	20,942	15.3	63,136	15.8
울주군	30,480	22.1	99,919	25

출처 : 중소기업부

2022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광·제조업의 전국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13.3%, 부가가치 기준으로 9.6%를 차지하나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2.4%,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5.2%로 각각 나타나 중후장대형 장치산업 위주로 울산지역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울산지역 내 산업별 기업체수·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체는 10,779개로 전체 기업수 137,666개의 7.8%이나 제조업 종사자는 121,920명으로 전체 기업종사자 398,931명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군별 기업체수 기준으로는 남구(35%), 울주군(22.1%), 중구(17.9%), 북구(15.3%), 동구(9.7%) 순이었으나, 구·군별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남구(32.7%), 울주군(25%), 북구(15.8%), 동구(14.7%), 중구(11.8%) 순으로 나타나 동구지역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존재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이와 같은 산업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이주 분석과정에서 제조업 종사자 여부에 따른 집단별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적 특징에 따른 청년인구 이주이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모형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요인, 교육환경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향후 그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 유무를 측정한 두 종류의 종속변수들은 모두 0과 1의 측정값을 지니고 있다.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위험도(RR: Relative Risk)나 오즈비(odds ratio)를 활용한 비율 비교방법이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이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수가 0과 1로 측정된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 주로 사용된다(박순철·도수관, 2023).

본 연구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떠나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요인,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분석모형은 다음의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수식 (1)에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예.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 거주지역 요인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sum_{j=1}^n \beta_j Job_{ji} + \sum_{k=1}^n \beta_k Settlement\ Condition_{ki} + \beta_l Education_{li} + \sum_{m=1}^n \beta_m X_{mi} + \varepsilon \quad \text{-- 수식 (1)}$$

수식 (1)에서, $P(Y_i = 1, X_i)$ 는 현재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응답자 i 가 향후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데, 만일

청년 응답자 i 가 향후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지니게 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타 지역 이주의지 1’과 ‘타 지역 이주의지 2’ 두 가지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어 있으며, ‘타 지역 이주의지 1’ 변수에 1의 측정값을 지닐 경우에는 청년 응답자가 울산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타 지역 이주의지 2’ 변수에 1의 측정값을 지닐 경우에는 청년 응답자가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beta_j, \beta_k, \beta_l$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변수들의 추정계수값들을 각각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수값은 각 계수값을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현재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응답자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수준에 관한 인식이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가 있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Job_i 는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 i 의 직장(직업) 요인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집단을 전체 응답자,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집단,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따라 활용되는 직장(직업)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취·창업자 여부 변수와 일자리 만족도 변수만 활용되고, 취·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현 직장 종사자수,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 본인소득, 이직 의도, 일자리 만족도 변수만 활용되며,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들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 시 기대 연봉, 구직활동 기간, 대기업 취업 희망, 공공부문 취업 희망, 창업 의향 있음, 취업정보 인지 수준, 일자리 만족도 변수만 각각 활용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취·창업자 집단의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각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이

유는 울산지역의 제조업 분야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여부를 고려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활용된 직장(직업) 요인에 제조업 종사자 여부 변수도 추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을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집단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취·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 활용된 직장(직업) 요인과 동일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한다.

$Settlement\ Condition_i$ 는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 i 가 울산지역 정주여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여가 만족도, 주거 만족도, 의료 만족도, 교통 만족도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Education_i$ 는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 i 가 울산지역 교육환경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응답자 i 가 지니고 있는 울산지역 교육 분야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를 활용한다.

X_{mi} 는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과 출생으로 인한 울산 거주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삶의 질 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 응답자 i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 내 거주지역의 특성(구·군별 특성)이 그 청년 응답자 i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나갈 의지를 지닐 확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거주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울주군 지역은 나머지 4개 지역과의 비교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수식 (2)는 기존의 수식 (1)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

구, 남구, 동구, 북구지역 거주를 나타내는 4개의 더미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ln[P_i/(1-P_i)] = \beta_0' + \sum_{j=1}^n \beta_j' Job_{ji}' + \sum_{k=1}^n \beta_k' Settlement\ Condition_{ki}' + \beta_l' Education_{li}' + \sum_{m=1}^n \beta_m' X_{mi}' + \sum_{r=1}^n \beta_r' Region_{ri}' + \varepsilon' \quad \text{-----} \quad \text{수식 (2)}$$

수식 (2)에서, $P(Y_i = 1, X_i)$ 는 앞선 수식 (1)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응답자 i 가 향후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식 (2)에 포함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수식 (1)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Region_{ri}'$ 는 울산 지역 청년 응답자 i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 내 구체적인 구·군 단위의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지역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5장 울산지역 고용·산업별 청년인구 유출 분석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1) 종속변수: 타 지역 이주의지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에 관한 인식이 향후 그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전체 응답자,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은 본 연구의 두 가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 1’과 ‘타 지역 이주의지 2’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표 5-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는 무조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1%는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취·창업자인 경우에는 2%가 무조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3%는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취·창업 여부에 따라 울산지역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겠다는 의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종사자 집단의 경우에는 1%만 무조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가 무조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1〉 종속변수: 타 지역 이주의지

종속변수	전체 응답자		취·창업 여부				제조업 종사자 여부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타 지역 이주의지 1: 무조건 타 지역으로 떠 날 예정임	0.06	0.24	0.02	0.15	0.10	0.30	0.01	0.11	0.03	0.17
타 지역 이주의지 2: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 면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0.21	0.41	0.13	0.34	0.29	0.46	0.10	0.30	0.15	0.35
사례수	1,373		708		665		247		461	

2) 설명변수: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한다. 설명변수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직장(직업)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취·창업자 비중은 52%이며, 제조업 종사자 18%, 전문직 종사자 4%, 공공부문 종사자 6%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 종사자수는 평균적으로 10-29명과 30-99명 정도의 직장 규모를 나타나고 있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3.68년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본인 소득은 평균적으로 100~150만원 미만과 150~200만원 미만 정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이직 의도는 평균 7%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기대 연봉은 평균적으로 3,000~3,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1.75년이며, 대기업 취업 희망자는 9%,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는 10%,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정보 인지 수준은 평균 3.25로 나타나 대체로 청년 응답자들은 '보통'에서 '다소 알고 있음' 정도의 취업 정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3.36으로 나타나 대체로 청년 응답자들은 '보통'에서 '대체로 만족함' 정도의 일자리 분야 만족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취·창업자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는 3.56이고,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는 3.15로 나타나 현재 취·창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분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는 3.65로 나타났지만 비제조업 분야 종사자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는 3.52로 나타나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비제조업 분야 종사자보다 일자리 분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3.27로 나타났지만 취·창업자 집단의 교육 만족도는 3.3,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의 교육 만족도는 3.24로 나타나 취·창업자 집단의 교육 만족도가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교육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여건 요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의 문화/여가 만족도는 3.2, 주거 만족도는 3.46, 의료 만족도는 3.43, 교통 만족도는 3.07로 각각 나타났다. 취·창업자 집단의 문화/여가 만족도는 3.27,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의 문화/여가 만족도는 3.12로 나타나 취·창업자 집단의 문화/여가 만족도가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문화/여가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집단의 주거 만족도는 3.55,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의 주거 만족도는 3.37로 나타나 취·창업자 집단의 주거 만족도가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주거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만족도의 경우, 취·창업자 집단의 의료 만족도 평균은 3.51,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의료 만족도 평균은 3.34로 나타나 취·창업자 집단의 의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의료 만족도 평균은 3.45, 비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의료 만족도 평균은 3.54로 나타나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의료 만족도가 비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의료 만족도 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만족도의 경우에도 취·창업자 집단의 교통 만족도 평균이 3.17,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의 교통 만족도 평균이 2.98로 나타나 취·창업자 집단의 교통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설명변수

설명변수	전체 응답자		취·창업 여부				제조업 종사자 여부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장(직업) 요인	취·창업자	0.52	0.50								
	제조업 종사자	0.18	0.39	0.35	0.48						
	전문직 종사자	0.04	0.19	0.07	0.26			0.02	0.15	0.10	0.30
	공공부문 종사자	0.06	0.25	0.12	0.33			0.06	0.25	0.16	0.36
	현 직장 종사자수	3.48	1.40	3.48	1.40			4.32	0.96	3.02	1.39
	현 직장 근무기간	3.68	2.64	3.68	2.64			3.91	2.86	3.55	2.51
	월평균 본인소득	4.33	2.33	6.23	1.42			6.84	1.10	5.90	1.46
	이직 의도	0.07	0.26	0.14	0.35			0.11	0.32	0.15	0.36
	취업 시 기대 연봉	3.02	1.84			3.02	1.84				
	구직활동 기간	1.75	1.77			1.75	1.77				
	대기업 취업 희망	0.09	0.29			0.20	0.40				
	공공부문 취업 희망	0.10	0.30			0.20	0.40				
	창업 의향 있음	0.01	0.12			0.03	0.17				
	취업정보 인지 수준	3.25	0.98			3.25	0.98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3.36	0.82	3.56	0.77	3.15	0.80	3.65	0.75	3.52	0.78
	교육 만족도	3.27	0.86	3.30	0.81	3.24	0.91	3.31	0.75	3.30	0.84
정주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3.20	0.92	3.27	0.89	3.12	0.94	3.25	0.84	3.27	0.92
	주거 만족도	3.46	0.87	3.55	0.83	3.37	0.90	3.55	0.80	3.54	0.84
	의료 만족도	3.43	0.76	3.51	0.77	3.34	0.74	3.45	0.74	3.54	0.79
	교통 만족도	3.07	0.97	3.17	0.93	2.98	1.01	3.19	0.87	3.15	0.97
사례수	1,373		708		665		247		461		

2.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이 울산의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과 그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러한 통제변수는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와 지역 수준의 통제변수로 구분되는데,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에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수준의 통제변수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과 같이 울산지역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을 반영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5-3>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가 남성이며, 평균 연령 약 27세, 미혼자는 84%,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는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4.18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6%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고 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51%에 해당하며, 울산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6으로 나타나 '보통'과 '대체로 만족함' 정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수준의 통제변수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9%가 중구지역에 거주하며, 27%는 남구지역, 15%는 동구지역, 20%는 북구지역, 19%는 울주군지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통제변수

통제변수		전체 응답자		취·창업 여부				제조업 종사자 여부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수준	성별(남성)	0.53	0.50	0.54	0.50	0.53	0.50	0.66	0.47	0.47	0.50	
	연령	26.61	4.45	29.02	3.62	24.04	3.77	29.08	3.58	28.98	3.64	
	결혼(미혼자)	0.84	0.36	0.79	0.41	0.91	0.29	0.83	0.38	0.76	0.43	
	교육 수준	고교 졸업 이하	0.46	0.50	0.23	0.42	0.71	0.46	0.26	0.44	0.21	0.41
		대학교 졸업	0.52	0.50	0.74	0.44	0.28	0.45	0.70	0.46	0.76	0.43
		대학원 졸업	0.02	0.16	0.03	0.18	0.02	0.12	0.04	0.20	0.03	0.17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48	0.50	0.43	0.49	0.53	0.50	0.39	0.49	0.44	0.50	
	월평균 가구소득	4.18	1.60	4.20	1.36	4.15	1.83	4.29	1.29	4.16	1.39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56	0.50	0.67	0.47	0.44	0.50	0.70	0.46	0.65	0.48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51	0.50	0.55	0.50	0.48	0.50	0.59	0.49	0.53	0.50	
삶의 질 만족도	3.36	0.74	3.47	0.69	3.25	0.77	3.48	0.66	3.46	0.71		
지역수준	중구	0.19	0.39	0.19	0.39	0.19	0.40	0.13	0.34	0.21	0.41	
	남구	0.27	0.44	0.28	0.45	0.25	0.44	0.27	0.44	0.28	0.45	
	동구	0.15	0.36	0.15	0.36	0.16	0.37	0.12	0.33	0.16	0.37	
	북구	0.20	0.40	0.22	0.41	0.19	0.39	0.26	0.44	0.20	0.40	
	울주군	0.19	0.39	0.17	0.38	0.20	0.40	0.22	0.42	0.15	0.35	
사례수		1,373		708		665		247		461		

제2절 회귀분석 결과

1.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 여부 고려

1)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청년들이 울산의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과 그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전체 응답자,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종사자, 비제조업 종사자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도 '타 지역 이주의지 1(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임)'과 '타 지역 이주의지 2(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5-4>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4>에 따르면, Model (1)과 Model (2)에 근거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Model (2)는 Model (1)에 지역수준의 통제변수가 포함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5-4>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직장(직업) 요인 중에서 취·창업자 여부 변수의 회귀계수값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일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Model (1)과 Model (2)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울산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여부는 울산지역 청년유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4〉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1.377*	0.252	-1.408*	0.245
	직장 (직업) 요인	취·창업자	-0.859*	0.423	-0.850*	0.427
		일자리 만족도	-0.028	0.972	-0.012	0.988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168	0.845	-0.187	0.829
		문화/여가 만족도	0.152	1.165	0.161	1.175
	정주 여건	주거 만족도	-0.207	0.813	-0.199	0.819
		의료 만족도	0.017	1.017	-0.012	0.988
		교통 만족도	-0.071	0.932	-0.067	0.935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0.210	0.810
		남구			-0.390	0.677
		동구			-0.258	0.772
		북구			-0.566	0.568
	성별(남성)		-0.079	0.924	-0.082	0.921
	연령		-0.032	0.969	-0.030	0.971
	결혼(미혼자)		1.239	3.453	1.222	3.396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498	0.608	-0.526	0.591
		대학원 졸업	-18.659	0.000	-18.653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342	0.710	-0.339	0.713
	월평균 가구소득		0.214**	1.238	0.216**	1.241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499	1.647	0.476	1.610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95	0.610	-0.507	0.602
	삶의 질 만족도		-0.640*	0.527	-0.654**	0.520
상수항		-0.179	0.836	0.173	1.189	
-2Log 우도		499.874		497.329		
Cox & Snell의 R ²		0.095		0.097		
Nagelkerke R ²		0.257		0.261		
사례수		1,373		1,373		

* $p \leq 0.05$, ** $p \leq 0.01$, *** 0.001 ,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한편, 2023년도 더미변수 또한 추정회귀계수값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대비 2023년 청년 응답자일 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이 가능하겠으나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Covid-19 팬데믹 종결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현재 거주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울산지역 청년들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사회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본격화되면서 울산지역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와 같은 청년정책의 성과가 울산지역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청년들이 점차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 중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정(+)의 값을 지니면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 청년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가구소득이 더 높은 청년일수록 자신에 좀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정주 환경이 더 좋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된 삶의 질 만족도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울산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청년들은 그만큼 울산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5-5〉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0.260	1.297	0.272	1.312
	직장 (직업) 요인	취·창업자	-0.545**	0.580	-0.540**	0.582
		일자리 만족도	-0.242*	0.785	-0.244*	0.783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100	0.905	-0.106	0.899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026	0.974	-0.048	0.953
		주거 만족도	-0.131	0.877	-0.142	0.867
		의료 만족도	-0.027	0.973	-0.049	0.952
교통 만족도		0.041	1.042	0.041	1.042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0.174	1.190
		남구			0.119	1.126
		동구			-0.141	0.868
		북구			-0.190	0.827
	성별(남성)		-0.034	0.967	-0.031	0.970
	연령		-0.037	0.964	-0.036	0.965
	결혼(미혼자)		0.406	1.500	0.416	1.516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243	0.784	-0.252	0.778
		대학원 졸업	-1.039	0.354	-1.050	0.35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026	1.027	0.025	1.026
	월평균 가구소득		-0.051	0.950	-0.042	0.959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102	1.107	0.121	1.128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37**	0.646	-0.438**	0.645
	삶의 질 만족도		-0.160	0.852	-0.154	0.857
상수항		2.067*	7.901	2.170*	8.756	
-2Log 우도		1,286.114		1,282.392		
Cox & Snell의 R ²		0.085		0.087		
Nagelkerke R ²		0.132		0.136		
사례수		1,373		1,373		

* $p \leq 0.05$, ** $p \leq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5〉는 ‘타 지역 이주 의지 2’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인데, 〈표 5-4〉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창업자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5-4〉에서와 마찬가지로 Model (1)과 Model (2)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울산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여부는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5〉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만족도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인식하는 울산지역의 일자리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Model (1)과 Model (2)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에 제시된 통제변수들의 추정계수값을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마도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떠나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좀 더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그동안 자신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가족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만큼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취·창업자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취·창업자 여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들은 취·창업자 여부 이외에 다른 특성들은 취·창업자 집단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창업자 집단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을 구분하여 울산지역의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에 대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식이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5-6〉과 〈표 5-7〉은 취·창업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울산지역의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에 대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인식이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표 5-6〉은 취·창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Model (1)과 Model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계수값을 지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17.026	0.000	-17.077	0.000
	직장 (직업) 요인	전문직 종사자	0.604	1.829	0.667	1.949
		공공부문 종사자	-17.444	0.000	-17.566	0.000
		현 직장 종사자수	0.334	1.397	0.374	1.454
		현 직장 근무기간	-0.069	0.933	-0.075	0.928
		월평균 본인소득	-0.488	0.614	-0.487	0.615
		이직 의도	0.533	1.704	0.647	1.909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0.297	1.346	0.253	1.287
		교육 만족도	0.507	1.661	0.428	1.534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488	0.614	-0.439	0.645
		주거 만족도	-0.372	0.690	-0.389	0.678
		의료 만족도	0.791	2.205	0.832	2.298
		교통 만족도	-0.598	0.550	-0.553	0.575
	울산지역	중구			0.721	2.056
남구				0.681	1.976	
동구				1.193	3.297	
북구				0.635	1.888	
통제 변수	성별(남성)		-0.739	0.478	-0.764	0.466
	연령		0.127	1.136	0.124	1.132
	결혼(미혼자)		0.799	2.223	0.818	2.266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196	1.217	0.224	1.252
		대학원 졸업	-17.204	0.000	-17.165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313	1.367	0.300	1.349
	월평균 가구소득		-0.012	0.988	0.003	1.003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967	0.380	-1.010	0.364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341	1.406	0.410	1.507
	삶의 질 만족도		-0.742	0.476	-0.773	0.462
	상수항		-4.094	0.017	-4.787	0.008
	-2Log 우도		108.873		107.509	
	Cox & Snell의 R ²		0.071		0.072	
Nagelkerke R ²		0.344		0.353		
사례수		708		708		

* $p \leq 0.05$, ** $p \leq 0.01$, *** 0.001 ,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7〉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0.421	1.524	0.410	1.508	
	직장 (직업) 요인	전문직 종사자	0.432	1.541	0.379	1.461	
		공공부문 종사자	0.058	1.060	0.041	1.041	
		현 직장 종사자수	-0.072	0.930	-0.069	0.933	
		현 직장 근무기간	-0.033	0.967	-0.033	0.967	
		월평균 본인소득	0.230	1.258	0.239	1.269	
		이직 의도	1.135***	3.111	1.111***	3.038	
		일자리 만족도	-0.077	0.926	-0.081	0.923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142	0.867	-0.172	0.842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169	0.845	-0.183	0.832
			주거 만족도	-0.152	0.859	-0.163	0.850
			의료 만족도	0.070	1.073	0.066	1.069
	교통 만족도		-0.056	0.946	-0.047	0.954	
	울산지역	중구			0.670	1.953	
		남구			0.491	1.634	
동구				0.472	1.604		
북구				0.493	1.637		
통제 변수	성별(남성)	-0.212	0.809	-0.229	0.795		
	연령	0.040	1.041	0.037	1.037		
	결혼(미혼자)	-0.320	0.726	-0.315	0.730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150	1.162	0.169	1.184	
		대학원 졸업	-0.571	0.565	-0.489	0.613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326	1.386	0.347	1.415		
	월평균 가구소득	-0.501**	0.606	-0.504**	0.604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1.160**	0.313	-1.149**	0.317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104	0.901	-0.073	0.930		
	삶의 질 만족도	-0.089	0.915	-0.091	0.913		
	상수항	0.482	1.619	0.234	1.263		
-2Log 우도		490.738		487.932			
Cox & Snell의 R ²		0.073		0.077			
Nagelkerke R ²		0.136		0.142			
사례수		708		708			

* p ≤ 0.05, ** p ≤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7〉은 취·창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2’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Model (1)과 Model (2)

모두에서 이직 의도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어야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지역의 기업들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표 5-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울산지역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거나 결혼을 통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는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지역에서 현재 학생 신분이거나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이 그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본 연구는 다음에서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준비생

본 연구에서는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8>과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5-8>은 타 지역 이주 의지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인데, 직장(직업) 요인들 중에서 취업정보 인지 수준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이 취업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울산지역보다는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 보다 더 많은 취업 기회나 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취업시장에서의 취업 정보와 관련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울산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나 또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취업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면 울산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이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취업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갈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표 5-8〉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	-	-	-	
	직장 (직업) 요인	취업 시 기대 연봉	-0.024	0.976	-0.007	0.993	
		구직활동 기간	0.026	1.026	0.006	1.006	
		대기업 취업 희망	0.674	1.963	0.724	2.064	
		공공부문 취업 희망	0.390	1.477	0.428	1.534	
		창업 의향 있음	1.506*	4.506	1.467	4.338	
		취업정보 인지 수준	0.423*	1.527	0.446**	1.562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0.061	1.063	0.100	1.105	
		교육 만족도	-0.194	0.824	-0.216	0.806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235	1.265	0.255	1.291
			주거 만족도	-0.060	0.942	-0.028	0.972
	의료 만족도		-0.305	0.737	-0.365	0.694	
	교통 만족도		0.033	1.033	0.048	1.049	
	울산지역	중구			-0.426	0.653	
남구				-0.836	0.434		
동구				-0.384	0.681		
북구				-0.708	0.493		
통제 변수	성별(남성)	-0.012	0.988	-0.048	0.953		
	연령	-0.069	0.934	-0.063	0.939		
	결혼(미혼자)	1.345	3.839	1.383	3.988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568	0.567	-0.606	0.546	
		대학원 졸업	-19.613	0.000	-19.394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595	0.551	-0.608	0.545		
	월평균 가구소득	0.326**	1.385	0.313**	1.36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1.087*	2.967	1.026*	2.790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738*	0.478	-0.761*	0.467		
	삶의 질 만족도	-0.619*	0.538	-0.672*	0.511		
	상수항	-2.038	0.130	-1.647	0.193		
-2Log 우도		300.713		296.845			
Cox & Snell의 R ²		0.151		0.158			
Nagelkerke R ²		0.282		0.295			
사례수		665		665			

* $p \leq 0.05$, ** $p \leq 0.01$, *** 0.001 ,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9〉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	-	-	-
	직장 (직업) 요인	취업 시 기대 연봉	0.157*	1.170	0.155*	1.168
		구직활동 기간	-0.066	0.936	-0.074	0.928
		대기업 취업 희망	0.639*	1.895	0.613*	1.846
		공공부문 취업 희망	0.158	1.172	0.148	1.160
		창업 의향 있음	0.753	2.124	0.649	1.913
		취업정보 인지 수준	0.057	1.058	0.068	1.070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0.221	0.801	-0.222	0.801
		교육 만족도	-0.084	0.920	-0.096	0.908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060	1.061	0.023	1.023
		주거 만족도	-0.041	0.960	-0.050	0.951
		의료 만족도	-0.101	0.904	-0.134	0.874
		교통 만족도	0.183	1.200	0.189	1.208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0.098
남구					0.026	1.027
동구					-0.100	0.905
북구					-0.547	0.579
성별(남성)			0.009	1.010	0.016	1.016
연령			-0.007	0.993	0.000	1.000
결혼(미혼자)			0.642	1.900	0.633	1.883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741*	0.477	-0.804*	0.448
		대학원 졸업	-1.568	0.209	-1.705	0.182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479	0.619	-0.474	0.622
월평균 가구소득		0.033	1.034	0.047	1.04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203	1.225	0.177	1.193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645*	0.525	-0.630**	0.533	
삶의 질 만족도		-0.381	0.683	-0.396	0.673	
상수항		0.303	1.354	0.496	1.642	
-2Log 우도		548.076		544.199		
Cox & Snell의 R ²		0.130		0.136		
Nagelkerke R ²		0.183		0.192		
사례수		665		665		

* p ≤ 0.05, ** p ≤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9〉는 타 지역 이주 의지 2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인데, 직장(직업) 요인들 중에서 취업 시 기대 연봉 변수와 대기업 취업 희망 변수의 추정계수값들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학생 신분이거나 취·창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취업 시 기대하는 연봉이 높을수록 또는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할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을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비 취·창업 준비자인 학생들이나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연봉이 높은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를 지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울산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울산지역의 기업체들이 피고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울산지역에 더 많은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지방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들의 지역 고용 인원 확대 노력도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타 지역 이주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종사 여부 고려

1) 전체 응답자 대상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수가 타 산업 종사자수에 비해 많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장(직업) 요인에 제조업 종사자 여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종사자 집단과 비제조업 종사자 집단 간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 집단과 비제조업 종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5-10>과 <표 5-11>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10>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1.352*	0.259	-1.387*	0.250
	직장 (직업) 요인	취·창업자	-0.627	0.534	-0.613	0.542
		제조업 종사자	-0.973	0.378	-0.993	0.370
		일자리 만족도	-0.017	0.983	0.002	1.002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167	0.846	-0.187	0.830
		문화/여가 만족도	0.153	1.165	0.165	1.180
	정주 여건	주거 만족도	-0.199	0.819	-0.191	0.827
		의료 만족도	0.003	1.003	-0.029	0.971
		교통 만족도	-0.071	0.932	-0.068	0.934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0.230
남구					-0.417	0.659
동구					-0.290	0.748
북구					-0.577	0.561
성별(남성)		-0.040	0.961	-0.042	0.958	
연령		-0.024	0.977	-0.022	0.979	
결혼(미혼자)		1.316	3.728	1.300	3.671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562	0.570	-0.589	0.555
		대학원 졸업	-18.682	0.000	-18.665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354	0.702	-0.353	0.703	
월평균 가구소득		0.223**	1.249	0.224**	1.252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528	1.695	0.502	1.653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96	0.609	-0.508	0.602	
삶의 질 만족도		-0.633*	0.531	-0.648*	0.523	
상수항			-0.527	0.590	-0.165	0.848
-2Log 우도			497.256		494.608	
Cox & Snell의 R ²			0.097		0.099	
Nagelkerke R ²			0.262		0.266	
사례수			1,373		1,373	

* $p \leq 0.05$, ** $p \leq 0.01$, *** 0.001 ,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표 5-10>에 따르면,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0.295	1.343	0.306	1.358	
	직장 (직업) 요인	취·창업자	-0.395*	0.674	-0.393*	0.675	
		제조업 종사자	-0.528*	0.590	-0.524*	0.592	
		일자리 만족도	-0.229*	0.795	-0.232*	0.793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104	0.902	-0.109	0.897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032	0.969	-0.053	0.948
			주거 만족도	-0.126	0.881	-0.137	0.872
			의료 만족도	-0.038	0.963	-0.058	0.943
		교통 만족도	0.039	1.040	0.039	1.040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0.155	1.168
남구					0.104	1.109	
동구					-0.170	0.844	
북구					-0.192	0.825	
성별(남성)			-0.003	0.997	-0.001	0.999	
연령			-0.034	0.966	-0.033	0.967	
결혼(미혼자)			0.463	1.590	0.478	1.612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260	0.771	-0.269	0.764	
		대학원 졸업	-1.037	0.355	-1.047	0.351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019	1.019	0.018	1.018		
월평균 가구소득		-0.042	0.959	-0.033	0.96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137	1.147	0.156	1.169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40**	0.644	-0.441**	0.643		
삶의 질 만족도		-0.156	0.856	-0.151	0.860		
상수항			1.886*	6.595	1.986*	7.287	
-2Log 우도			1,281.736		1,278.123		
Cox & Snell의 R ²		0.088		0.090			
Nagelkerke R ²		0.137		0.141			
사례수		1,373		1,373			

* p ≤ 0.05, ** p ≤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11〉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2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11〉에 따르면, 직장(직업) 요인에 해당하는 취·창업자, 제조업 종사자, 일자리 만족도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일수록,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취·창업 여부, 제조업 종사 여부, 일자리 만족도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제조업 종사 여부가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을 제조업 종사자 집단과 비제조업 종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직장(직업) 요인, 교육환경, 정주여건이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취·창업자를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타 지역 이주 의지를 측정하는 두 가지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면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이주 의지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5-12〉과 〈표 5-1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도출되지 않았다.

〈표 5-12〉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37.282	0.000	-22.454	0.000	
	직장 (직업)	전문직 종사자	11.120	67475.0	10.126	24,976.6	
		공공부문 종사자	-35.733	0.000	-37.129	0.000	
		현 직장 종사자수	30.602	195032628 31169.9	14.227	1,508,814.8	
		현 직장 근무기간	1.423	4.149	0.453	1.572	
		월평균 본인소득	-20.330	0.000	-11.598	0.000	
		이직 의도	34.183	700614466 777831.0	36.371	6,249,795.24 9,205,780.0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8.959	7778.4	10.898	54,087.0	
		교육 만족도	-6.173	0.002	-0.522	0.593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12.288	217126.7	2.094	8.116	
		주거 만족도	-3.805	0.022	-1.445	0.236	
		의료 만족도	14.973	3183434.0 12	12.915	406,349.7	
		교통 만족도	6.307	548.351	4.206	67.086	
	통제 변수	울산지역	중구			16.869	21,183,604.3
남구					-13.146	0.000	
동구					6.266	526.4	
북구					-4.365	0.013	
성별(남성)			-12.208	0.000	-8.911	0.000	
연령			1.866	6.465	1.131	3.100	
결혼(미혼자)			5.954	385.253	-25.619	0.000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046	0.955	-2.493	0.083
		대학원 졸업		9.469	12951.227	4.213	67.542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4.624	101.879	3.910	49.887	
월평균 가구소득		-0.942	0.390	-6.601	0.001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9.803	0.000	-36.222	0.000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6.408	0.002	-9.268	0.000		
삶의 질 만족도		-8.991	0.000	-4.684	0.009		
상수항			-171.325	0.000	-64.012	0.000	
-2Log 우도			0.000		0.000		
Cox & Snell의 R ²			0.123		0.123		
Nagelkerke R ²			1.000		1.000		
사례수			247		247		

* p ≤ 0.05, ** p ≤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13〉 타 지역 이주 의지 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16.555	0.000	-16.490	0.000
	직장 (직업) 요인	전문직 종사자	0.425	1.530	0.443	1.557
		공공부문 종사자	-17.237	0.000	-17.577	0.000
		현 직장 종사자수	0.206	1.229	0.313	1.367
		현 직장 근무기간	-0.171	0.843	-0.217	0.805
		월평균 본인소득	-0.407	0.666	-0.476	0.621
		이직 의도	-0.023	0.977	0.297	1.346
		일자리 만족도	0.266	1.305	0.116	1.123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0.505	1.657	0.355	1.426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610	0.543	-0.486	0.615
		주거 만족도	-0.561	0.570	-0.672	0.511
		의료 만족도	0.731	2.076	0.856	2.353
		교통 만족도	-0.751	0.472	-0.684	0.504
	울산지역	중구			1.291	3.635
남구				2.074	7.959	
동구				2.259	9.570	
북구				1.977	7.218	
통제 변수	성별(남성)		-0.558	0.572	-0.497	0.608
	연령		0.116	1.124	0.121	1.128
	결혼(미혼자)		0.706	2.026	0.916	2.500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246	1.279	0.313	1.367
		대학원 졸업	-17.138	0.000	-17.392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064	1.066	-0.079	0.924
	월평균 가구소득		-0.019	0.982	0.051	1.052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711	0.491	-0.624	0.536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11	1.508	0.533	1.703
	삶의 질 만족도		-0.541	0.582	-0.657	0.519
	상수항		-2.377	0.093	-4.031	0.018
-2Log 우도		87.236		83.551		
Cox & Snell의 R ²		0.080		0.087		
Nagelkerke R ²		0.331		0.362		
사례수		461		461		

* p ≤ 0.05, ** p ≤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14〉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0.142	0.868	-0.230	0.794
	직장 (직업) 요인	전문직 종사자	-17.604	0.000	-17.952	0.000
		공공부문 종사자	1.155	3.174	1.023	2.781
		현 직장 종사자수	0.034	1.035	-0.123	0.884
		현 직장 근무기간	-0.036	0.964	-0.043	0.958
		월평균 본인소득	0.727*	2.070	0.758*	2.134
		이직 의도	2.201***	9.034	2.211**	9.123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0.637	0.529	-0.698	0.497
		교육 만족도	-0.226	0.798	-0.321	0.726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232	0.793	-0.272	0.762
		주거 만족도	0.196	1.217	0.074	1.076
		의료 만족도	-0.590	0.554	-0.689	0.502
		교통 만족도	0.286	1.331	0.273	1.314
	울산지역	중구			1.191	3.291
남구				0.572	1.772	
동구				0.119	1.126	
북구				-0.257	0.773	
통제 변수	성별(남성)		-0.398	0.671	-0.424	0.655
	연령		0.049	1.050	0.060	1.062
	결혼(미혼자)		-0.175	0.839	-0.492	0.611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005	1.005	0.059	1.060
		대학원 졸업	-19.021	0.000	-18.967	0.000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241	1.273	0.246	1.279
	월평균 가구소득		-0.474	0.622	-0.465	0.62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0.916	0.400	-0.927	0.396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408	0.665	-0.628	0.534
	삶의 질 만족도		0.782	2.186	1.115	3.051
상수항			-4.584	0.010	-4.096	0.017
-2Log 우도			127.722		123.539	
Cox & Snell의 R ²			0.113		0.128	
Nagelkerke R ²			0.240		0.271	
사례수			247		247	

* $p \leq 0.05$, ** $p \leq 0.01$, *** 0.001 ,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15〉 타 지역 이주 의지 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B)	Exp(B)	회귀계수(B)	Exp(B)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0.750	2.118	0.728	2.072
	직장 (직업) 요인	전문직 종사자	0.497	1.643	0.454	1.575
		공공부문 종사자	-0.188	0.828	-0.216	0.806
		현 직장 종사자수	-0.034	0.967	-0.023	0.977
		현 직장 근무기간	-0.080	0.923	-0.082	0.921
		월평균 본인소득	0.200	1.221	0.203	1.225
		이직 의도	0.875*	2.398	0.895*	2.448
	교육환경	일자리 만족도	0.074	1.077	0.062	1.064
		교육 만족도	-0.069	0.933	-0.088	0.916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0.261	0.770	-0.258	0.773
		주거 만족도	-0.291	0.747	-0.293	0.746
		의료 만족도	0.239	1.270	0.258	1.294
		교통 만족도	-0.119	0.888	-0.104	0.901
	울산지역	중구			0.359	1.433
남구				0.301	1.352	
동구				0.425	1.530	
북구				0.544	1.723	
통제 변수	성별(남성)		-0.077	0.926	-0.090	0.914
	연령		0.056	1.057	0.057	1.058
	결혼(미혼자)		-0.467	0.627	-0.493	0.611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0.044	1.045	0.036	1.036
		대학원 졸업	-0.070	0.933	-0.068	0.935
	출생으로 인해 울산에서 거주		0.291	1.337	0.321	1.378
	월평균 가구소득		-.580***	0.560	-0.598***	0.550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1.332**	0.264	-1.347**	0.260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018	1.018	0.040	1.041
	삶의 질 만족도		-0.224	0.799	-0.235	0.790
상수항			0.942	2.564	0.643	1.902
-2Log 우도			342.019		340.675	
Cox & Snell의 R ²			0.086		0.089	
Nagelkerke R ²			0.150		0.155	
사례수			461		461	

* $p \leq 0.05$, ** $p \leq 0.01$, *** 0.001, two-tailed tests; Exp(B)=Odds Ratio.

〈표 5-14〉와 〈표 5-15〉는 타 지역 이주 의지 2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와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표 5-14〉에 따르면, 직장(직업) 요인 중에서 월평균 본인소득과 이직 의도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경우에는 월평균 본인소득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있을 경우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변수별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청년들의 월평균 본인 소득은 평균 5.9(월평균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에 가까움), 비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청년들의 월평균 본인 소득은 평균 6.84(월평균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 가까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 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청년들의 월평균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직 의도가 있을수록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면 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취·창업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를 제고하여 그들의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15〉에 따르면, 직장(직업) 요인 중에서 이직 의도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5-14〉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제조업 분야에 취·창업한 울산지역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그들의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 5-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16〉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요약

변수명		전체 응답자		취·창업자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		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		
		타 지역 이주 의지1	타 지역 이주 의지2	타 지역 이주 의지1	타 지역 이주 의지2	타 지역 이주 의지1	타 지역 이주 의지2	타 지역 이주 의지1	타 지역 이주 의지2	타 지역 이주 의지1	타 지역 이주 의지2	
설명 변수	2023년	2023년	-									
	직장 (직업) 요인	취·창업자	-	-								
		제조업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현 직장 종사자수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 본인소득								+		
		이직 의도				+				+		+
		취업 시 기대 연봉								+		
		구직활동 기간										
		대기업 취업 희망								+		
		공공부문 취업 희망										
		창업 의향 있음										
		취업정보 인지 수준							+			
	일자리 만족도	-	-									
	교육환경	교육 만족도										
	정주 여건	문화/여가 만족도										
		주거 만족도										
		의료 만족도										
교통 만족도												

〈표 5-16〉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추정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의 부호(+ 또는 -) 또는 종속변수에 대한 정(+) 또는 부(-)의 영향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1,373명)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2023년 연도변수는 타 지역 이주 의지 1(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타 지역 이주 의지 2(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장요인 중에서는 취·창업자일수록, 제조업 종사자일수록 타 지역 이주 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이직 의도가 타 지역 이주 의지 2(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 시 기대 연봉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을 희망할수록 타 지역 이주 의지 2(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에 정(+)의 효과를 가지며, 취업정보 인지 수준은 타 지역 이주 의지 1(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주 의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청년인구의 취·창업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임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일 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분석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울산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여부는 울산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노력은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의 일자리 분야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완화에 중요

청년들이 인식하는 울산지역의 일자리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떠날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낮음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일자리 분야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일자리 분야 만족도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지역 일자리 서비스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지역 일자리 분야에 관한 청년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민간기업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에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취업정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분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3. 과거에 비해 최근에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 감소: 일정 부분 청년정책의 성과로 추정됨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데이터와 2023년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020년 대비 2023년 청년 응답자일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Covid-19 팬데믹 시작과 종결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추정이 가능하겠으나 2020년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본격화된 지역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성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울산지역 청년들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역사요인 즉, Covid-19 또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청년정책의 성과는 울산지역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청년들의 의지는 점차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청년 인구 유출 완화에 중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울산지역을 떠나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청년들은 대체로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은 타 지역 이주 의도가 낮음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 지역을 떠나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좀 더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취·창업한 청년들에게는 이직 의도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이 청년인구 유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취·창업자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 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어야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지역의 기업들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직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울산지역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에게는 풍부한 취업 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

학생이나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취업시장에 존재하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울산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나 또는 다양한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한다면 울산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이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취업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갈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학생 신분이거나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취업 시 기대하는 연봉이 높을수록 또는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할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을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제조업 종사 여부가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수가 타 산업 종사자수에 비해 많다. 따라서 직장(직업) 요인에 해당하는 제조업 종사자 여부에 따라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 제조업 종사자 여부에 따른 타 지역 이주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종사 여부는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울산지역에서 취·창업한 청년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직장(직업) 요인은 청년의 지역이탈을 막는 중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직장(직업) 요인의 경우, 보수 수준이나 근로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외에도 본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지역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또 다른 가치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이 태동기에 있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연관산업과 연결성이 뛰어나 확장성이 큰 지식정보산업이나 첨단기술기반 산업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산업군이 될 것이다.

울산의 경우 자동차와 조선 산업부문에서 전동화, 디지털화, 전장화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제조공정에서의 스마트화, 로봇기술의 활용, 물류 관리의 정보화 및 지능화가 급속히 추진 중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칼, 수소 경제에 기반한 에너지 산업전환, 석유화학산업의 다변화(석유와 가스(Gas)를 혼용)와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가치산업(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울산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집적화시키고, 산학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 기존의 핵심요소인 입지(저렴한 가용부지의 적기 공급), 상·하수도, 전력 설비, 폐기물처리 등 물적 요소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이차전지 산학연계 융합전공, 반도체 계약학과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정비와 기업 맞춤형 투자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역외기업의 유치나 지역기업의 신규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양승훈(2024)은 울산지역의 부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제조업 생산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단위의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조업의 부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제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울산지역 청년들에게 울산지역을 거주지역으로써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의 약한 연결고리인 창업 활성화 지원

지역의 취업자수 증가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정보 비대칭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창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울산지역 청년 실태조사에서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볼 때 창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³⁷⁾ 기술창업과 교수창업이 성공률이 높은 만큼 이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1인 창업 및 소자본 창업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창업사관학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민간 창업플랫폼, 창업컨설팅 기관, 벤처캐피탈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7)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4.9%의 응답자가 '창업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고 함

3. 지역의 여성친화적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필요

지역의 여성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지역 청년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1.25:1, 2023년 기준 1.28:1로 악화되고 있고, 울산 20~3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성비중이 36.3%로 전국 평균보다 9.5% 낮게 집계된다고 한다(이강원, 2024). 이는 여성들이 울산지역에 머무르고 일 할만 한 여건이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표 6-1>은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울산의 일자리 만족도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집단	전체				2020년				2023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조건 타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0.07	0.248	0.06	0.235	0.09	0.284	0.07	0.262	0.00	0.000	0.02	0.138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0.22	0.413	0.20	0.401	0.23	0.421	0.21	0.404	0.18	0.387	0.19	0.395
취·창업자		0.51	0.500	0.52	0.500	0.49	0.500	0.51	0.500	0.58	0.496	0.54	0.499
학력: 고졸 이하		0.42	0.494	0.49	0.500	0.46	0.499	0.51	0.500	0.31	0.464	0.45	0.498
학력: 대학 재학		0.30	0.457	0.35	0.479	0.32	0.468	0.34	0.476	0.22	0.418	0.38	0.487
학력: 대학 졸업		0.56	0.497	0.48	0.500	0.52	0.500	0.45	0.498	0.69	0.464	0.54	0.500
학력: 대학원 이상		0.02	0.136	0.03	0.171	0.03	0.157	0.04	0.187	0.00	0.000	0.01	0.120
제조업 종사자		0.13	0.336	0.23	0.420	0.10	0.299	0.20	0.402	0.22	0.414	0.29	0.456
월평균 가구소득		4.33	1.531	4.04	1.650	4.07	1.556	3.78	1.642	5.10	1.159	4.71	1.480
월평균 본인소득		4.10	2.178	4.53	2.434	4.05	1.944	4.50	2.236	4.26	2.743	4.58	2.878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		0.37	0.484	0.64	0.481	0.34	0.473	0.65	0.476	0.48	0.501	0.60	0.491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음		0.53	0.500	0.58	0.493	0.59	0.493	0.66	0.476	0.36	0.481	0.40	0.492
공공부문 종사자		0.07	0.248	0.06	0.243	0.06	0.236	0.07	0.256	0.08	0.280	0.04	0.204
울산의 일자리 만족도		3.31	0.787	3.41	0.837	3.23	0.780	3.31	0.864	3.52	0.770	3.69	0.697
울산의 교육 만족도		3.23	0.846	3.31	0.872	3.07	0.831	3.15	0.860	3.68	0.716	3.72	0.769
울산의 문화/여가 만족도		3.17	0.914	3.22	0.923	3.00	0.860	3.06	0.898	3.65	0.888	3.63	0.858
울산의 주거 만족도		3.47	0.839	3.44	0.897	3.34	0.834	3.30	0.945	3.85	0.735	3.81	0.631
울산의 의료 만족도		3.39	0.739	3.46	0.777	3.35	0.744	3.38	0.796	3.52	0.712	3.64	0.694
울산의 교통 만족도		3.05	0.958	3.09	0.987	2.81	0.934	2.82	0.962	3.74	0.643	3.79	0.655
울산의 삶의 질 만족도		3.35	0.705	3.37	0.769	3.21	0.691	3.21	0.772	3.76	0.573	3.78	0.587
사례수		639		734		474		526		165		208	

〈표 6-1〉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의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자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창업자 비율은 남성이 더 높고, 본인소득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만족도, 교육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의료 만족도, 교통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의 경우도 여성 청년보다 남성 청년들의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 청년들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 울산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여성 청년들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울산지역에서는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 물류 및 유통업,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면 울산지역 청년 여성들의 타 지역 이주의지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4. 제조업 종사자 근로 여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주력

울산은 전체 기업종사자의 30.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 생산액의 13.4%를 차지하며(2022년 광공업생산 기준) 산업구성에서도 제조업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의 성장에 제조업이 있었고 앞으로도 제조업을 근간으로 지속적 성장을 모색해야 하며 제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요인(지하 배관, 악취, 산업재해)을 개선하고 환경적 쾌적성을 복원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첨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하 배관의 입체화(3D)와 센서 및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의 강화, 산단 내부 도로의 정

비와 주차 공간 확보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창업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이 타 지역 이주 의지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 주택공급과 임대료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수요맞춤형 교통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5. 울산지역 취·창업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울산지역에 취·창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울산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향후에도 울산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문화/여가, 의료, 교통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고령자들과 달리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여가나 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주거 만족도, 의료 만족도, 교통 만족도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주거 만족도 평균 3.46, 의료 만족도 평균 3.43,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 3.20, 교통 만족도 평균 3.07로 각각 나타나 교통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교통 분야 여건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버스, 개인용 이동 수단(자전거 등)과 환승 체계를 강화하여 승용차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목적통행이 가능한 모두의 대중교통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측면에서는 도심 내 유흥지(빈 점포, 빈집 등)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도심 공원을 정비하거나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6. 청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2021년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구·군으로 확대되면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 대비 2023년 청년 응답자의 경우, 무조건 울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이 참여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산업이나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학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만큼 지역 인재가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1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22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2022년), 글로벌대학30 지원사업(2024년) 등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시·구·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두 번의 청년실태조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51%로 나타났고,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타 지역 이주 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들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공공 산후조리원, 출산지원, 공공어린이집 등)이 청년유출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취·창업자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망라하고 이직 의도가 청년유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인으로 분석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직 의도는 급여수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복리후생 수준, 업무의 자율성 등이 중요 고려사항일 것이다(진종순 외,

2016). 하지만 2024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에서 인턴 지원이나 창업공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청년희망주택 공급이나 전·월세 지원(주거분야), 대학혁신 사업(교육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책정된 반면 육아와 관련하여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혼부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에 35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구·군 청년정책의 경우, 북구에서 모범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1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13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4억원), 아이돌봄(51억원) 등 양육 관련 예산이 청년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다른 구·군에서는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근로환경이나 복지후생 증진과 관련된 지원예산은 시와 구·군 청년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시와 구·군의 청년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에 있어 양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의 마련과 예산확충이 필요하고, 기업체 종사자들의 이직 의도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준비와 시책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1. 지역 청년 인구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 및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울산연구원에서 구축한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와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울산지역 청년 인구의 이주 의지와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의 총 사례수는 500개이며, 그중에서 청년 인구 연령을 고려하여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 연령대를 제외하면 총 373개의 사례만을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울산지역 청년인구에서 표본추출된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지역 청년 인구에 관한 실태조사가 매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탐색한다면 보다 더 질적으로 개선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후의 청년 패널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청년들의 향후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지역 청년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한다면 지역 청년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지역적 이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패널데이터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동일한 청년 응답자들의 의사결정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나 외부 환경 변화(예, 역사요인)에 따른 청년들의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울산지역 청년들에 관한 패널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두 시점에서의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직업) 요인, 정주여건, 교육환경에 관한 지역 청년들의 인식이 그들의 타 지

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연속형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현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 청년 인구 유출 현상으로 인한 지역(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적 수준의 지역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청년 인구 유출 현상과 인구이동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산업의 차이에 따른 지역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필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탐색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지역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회귀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울산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 의지에 지역적 특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차별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지역으로만 측정하여 분석모형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는 지역의 인구밀도, 지역내총생산(GRDP), 주택가격 및 보급률, 재정 규모, 고용률, 병원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수, 지역혁신역량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 청년 인구와 관련된 보다 더 풍부한 데이터가 구축되고,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시계열 자료 구축 및 활용을 통해 보다 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지역 청년의 주거지 결정과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영, 2020; 사효석·우한성, 2020; 정충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향후 후속연구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문

1) 단행본

- 양승훈(2024).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서울: 부키.
- 정용덕·권순만·김관보·김난도·김준기·김현성·이명석·최재송·최태현(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 진종순·김기형·조태준·임재진·김정인(2016). 「조직행태론: 사람, 관리 그리고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 소멸」. 김정한 옮김. 와이즈베리.
- 조형제·강종열(2005). 「울산의 산업화(3) 자동차·조선산업」.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 논문

- 권기철(2006).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97-123.
- 권혁범(2022). 대구·경북지역 대졸자의 취업 이동 연구: 사회연결망과 직업가치 요인이 이동목적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5(1): 303-323.
- 기윤환(202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LHI 저널 13(4): 13-26.
- 김기승·정민수(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103-130.
- 김노은·윤갑식(2022). 부산광역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동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5): 55-79.
- 김도형(2018).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도시행정학보 31(4): 55-81.

- 김동신(2021).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1(2): 177-205.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19.
- 김명숙(2011). 심의 민주주의의 경험과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141-167.
- 김병국·최철호(2012).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시론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26(1): 31-52.
- 김성환(2008).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층의 직장 이행과정 분석: 첫직장 규모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4): 1479-1501.
- 김순은(2018).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지방행정연구 32(1): 35-60.
- 김안국(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졸업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8(3): 39-76.
- 김영식(2020). 청년층의 대학 진학 및 취업 관련 지역 이동 예측 요인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129-149.
- 김용현(2012). 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06-533.
-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유현(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 김윤중·이창문·김민영(2022). 대졸 청년들의 관심은 일자리 진입 및 노동시장 이동 분석. 사회보장연구 38(4): 71-100.
- 김재호(2008). The Korean Recall System. 지방자치법연구 8(3): 73-84.
- 김재홍·도수관(2020).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 결정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4): 157-181.

- 김재훈(2022). 지역균형발전 이론과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지역사회연구 30(3): 23-60.
- 김주영(2020). 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30(2): 21-32.
- 김현아 (2008).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2): 75-103.
- 김현우·강명구(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 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 49-78.
- 김화연·이대웅(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남국현(2022). 대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54(2): 33-57.
- 노현수(2020).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8(4): 223-245.
- 류장수(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23.
- 문영만·류장수(2020).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8(3): 59-86.
- 문영만·홍장표(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
- 문영만·홍장표(2021). 대졸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격차: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7(4): 70-93.
- 박성익(2006). 지역별 인구 변동 및 경제적 요인 분석: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요인분석. 국제경제연구 12(3): 1-35.
- 박성익·류장수·김종한·조장식(2015). 중소기업 청년인턴 이직희수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2): 387-397.

- 박순철·도수관(2023).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2): 309-346.
-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추환·김명수(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22(2): 97-113.
- 배성숙(2021). 대졸 청년층의 직무일치도와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기업경영리뷰 12(3): 187-201.
- 서옥순(2012).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5(4): 31-46.
- 석호원(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73-312.
- 소진광(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3-48.
- 송동욱·이기형(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4: 28-98.
- 엄창욱·나주몽·백경호(2021). 청년의 취업선호가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개발연구 53(2): 125-147.
- 엄창욱·노광욱·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오윤석·황광훈·홍석현(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 연구논총 24(1): 123-152.
- 원지영(2015). 청년층 이직의 결정 요인과 효과: 직무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6: 348-372.
- 유재언(2015).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대한직학과 대졸취업 시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91-219.
- 윤광재(2007).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1): 81-105.

- 이경우(2022). 고부가가치 울산으로의 이행. 울산경제사회브리프 제132호. 울산: 울산연구원.
- 이상림(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5호. 충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1): 43-66.
- 이윤형·이주영·김상우·김혜경(2020).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정책과제 2020-10. 울산: 울산연구원.
- 이재현(2020). 지방의회 권력구조와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NGO 연구 15(1): 175-197.
-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이찬영·문제철(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143-169.
- 이현국(2019). 어메니티와 청년인구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6: 348-372.
- 임재빈·정기성(2021).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LHI저널 12(2): 47-59.
- 임준홍(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 차이. 주거환경 19(1): 13-14.
- 임현(2008).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8(4): 147-165.
- 엄창욱·노광욱·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정미나·임영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3-152.
- 정민수 · 김의정 · 이현서 · 홍성주 · 이동렬(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2023-29. 서울: 한국은행.
- 정용덕 외(1999). “합리적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 정충대(2020). 광역도 지역 청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 원인. 지역사회연구 28(2): 1-18.
- 조동훈(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43(3): 123-148.
- 조성철(2020). 산업단지 혁신과 청년일자리 창출: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183: 9-22.
- 채창균(2006). 기업규모와 청년층 노동이동. 직업능력개발연구 9(1): 81-103.
- 최영출(2022).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지방행정연구 36(4): 3-44.
- 최형재(2022).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2(2): 97-125.

2. 영문

- Ferguson, M., K. Ali, M. R. Olfert, and M. Partridge (2007). Voting with Their Feet: Jobs versus Amenities. Growth and Change 38(1): 77-110.
- Frenkel, A., E. Bendit, and S. Kaplan (2013). Residential Location Choice of Knowledge-Workers: The Role of Amenities, Workplace and Lifestyle. Cities 35: 33-41.
- Greenwood, M. J. (1985). Human Migration: Theory,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5(4): 521-544.
- Hansen, S. B., C. Ban, and L. Huggins (2003). Explaining the “Brain Drain”

- from Older Industrial Cities: The Pittsburgh 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7(2): 132–147.
- Hollander, J. B. and J. Németh (2011). The Bounds of Smart Decline: A Foundational Theory for Planning Shrinking Cities. *Housing Policy Debate* 21(3): 349–367.
- Millsap, A. (2016). Location Choice in Early Adulthood: Millennials versus Baby Boomers. *Papers in Regional Science* 97(S1): S139–S167.
- Musgrave, R. A. (1939). The Voluntary Exchange Theory of Public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3(2): 213–237.
- Oates, W. E. (1969). The Effect of Property Taxes and Local Public Spending on Property Values: An Empirical Study of Tax Capitalization and the Tiebout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6): 957–971.
-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387–389.
- Scott, A. J. (2010). Jobs or Amenities? Destination Choices of Migrant Engineers in the USA. *Papers in Regional Science* 89(1): 43–63.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Woldoff, R. A., T. DeCola, and R. C. Litchfield (2011). The Aspirational Creative Class: Urban Residential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in Creative Majors. *City, Culture and Society* 2(2): 75–83.

3. 기타

- 울산광역시(2021), 「2021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 울산광역시(2022), 「2022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 울산광역시(2023), 「2023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2024), 「2024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중구(2022),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중구(2023), 「2023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중구(2024),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남구(2022),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남구(2023), 「2023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남구(2024),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동구(2022), 「2022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동구(2023),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동구(2024),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북구(2022),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북구(2023),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북구(2024),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2022), 「2022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2023), 「202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2024), 「2024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4. 인터넷 사이트

이강원(2024). 이강원의 경제읽기(6): 울산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경상일보 2024년 5월 31일 15면 오피니언.

장윤서(2022). 가족까지 제쳤다. 20대 직장인 “삶에서 가장 중요” 꼽은 것. 중앙일보 2022년 11월 29일 URL availabl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424#home>.

조백건·윤주현(2023).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 조선일보 2023년 12월 4일.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2/04/M5T2CP37GRC4VGWLFZRWCSDA>).

[부록 1]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2021~2024년

〈표 1-1〉 2021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58,550	11,311	15,971	31,268
I. 일자리 분야(21개 사업)	6,505	1,133	4,322	1,050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4,394	870	2,529	995
1-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2,186	763	890	533
(1)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286		286	
(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60			260
(3) 청년 일자리 지킴이 지원 사업	504	252	160	92
(4)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504	252	160	92
(5) 울산청년일자리센터 운영	632	259	284	89
1-2. 청년재직자 지원 강화	881		881	
(6) 울산청년 행복지원사업	518		518	
(7)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177		177	
(8) 고용위기지역 청년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186		186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327	107	758	462
(9)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	687		249	438
(10) 2030 U-Dream 사업	235		221	14
(11)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15	107	108	
(12) 울산청년 취업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80		80	
(13) 울산청년 JUMP페스티벌	110		100	10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11	263	1,793	55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160		1,160	
(14) 청년CEO 육성사업	1,000		1,000	
(15)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	160		160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951	263	633	55
(16) 톡톡팩토리 운영	500		500	
(17)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50		50	
(1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30	232	49	49
(19)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11	8	2	1
(20)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시범사업	10		10	
(2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	23	22	5

II. 주거 분야(10개 사업)		39,584	5,159	5,588	28,837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36,609	4,709	3,078	28,822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등 공급		36,609	4,709	3,078	28,822
(22)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21,257			21,257
(23)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	345			345
(24)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1,829	300	300	1,229
(25)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3,653	1,461	147	2,045
(26)	희망상가 품은 하우스 건립	3,154	946	946	1,262
(27)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6,371	2,002	1,685	2,684
(28)	도시정비 매입임대 주거지원	비예산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975	450	2,510	15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475		2,475	
(30)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2,400		2,400	
(3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5		75	
III. 교육 분야(11개 사업)		9,411	3,863	4,229	1,319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071		1,071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071		1,071	
(32)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우수인재 장학사업	991		991	
(3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80		80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7,460	3,863	2,783	814
2-1.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7,460	3,863	2,783	814
(34)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1,007		1,007	
(35)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530	680	850	
(36)	MICE 아카데미 운영	30		30	
(37)	시배울랑교	1,479	1,183	296	
(38)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3,414	2,000	600	814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880		375	505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250		50	200
(3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250		50	200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630		325	305
(40)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400		175	225
(41)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170		150	20
(42)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60			60

IV. 복지·문화 분야(14개 사업)		2,035	1,131	845	59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지원		733	659	51	23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지원제도 개편		733	659	51	23
(43)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47	132	10	5
(44)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586	527	41	18
2. 청년 건강 증진		126	88	38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126	88	38	
(4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6	88	38	
3.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486	384	66	36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360	288	36	36
(4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60	288	36	36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26	96	30	
(47)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3	6	7	
(4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13	90	23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690		690	
4-1.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510		510	
(49)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	130		130	
(50)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100		100	
(51)	거리공연 지원	50		50	
(52)	울산 국제 스트리트 댄싱 페스티벌	100		100	
(53)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사업	130		130	
4-2.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180		180	
(54)	생애처음 청년예술지원	40		40	
(55)	울청아티스트 지원	80		80	
(56)	지역 청년예술인 마당놀이	60		60	

V. 참여·권리 분야(9개 사업)		1,015	25	987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220		217	3
1-1. 청년이 참여하는 시 위원회		12		12	
(5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2		12	
(58)	시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208		205	3
(59)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35		35	
(60)	지역사회 공감확산 사업	73		70	3
(61)	청년주간 운영	100		100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15		15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15		15	
(62)	청년통계 작성 사업	15		15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780	25	755	
3-1. 청년 플랫폼 구축		730		730	
(63)	청년정책 정보플랫폼 구축	50		50	
(64)	청년센터 운영	680		680	
2-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50	25	25	
(6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50	25	25	

출처: 2021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1-2〉 2022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119,758	42,568	36,729.5	40,460.5
I. 일자리 분야(27개 사업)	15,686	4,151	10,329.5	1,205.5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2,540	3,886	7,504	1,150
1-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5,862	1,100	4,082	680
(1)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232		232	
(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60			260
(3) 청년 일자리 지키미 지원 사업	1,556	778	478	300
(4) 지역특화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사업	644	322	202	120
(5) 울산청년일자리센터 운영	170		170	
(6)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사업	3,000		3,000	
1-2. 청년재직자 지원 강화	4,000	2,400	1,600	
(7)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	618		618	
(8)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262		262	
(9)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120		120	
(10)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3,000	2,400	600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2,678	386	1,822	470
(11) 행정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사업	649		649	
(12)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	804		356	448
(13) 2030 U-Dream 사업	255		241	14
(14)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72	86	86	
(15) 울산청년 취업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40		40	
(16) 울산청년 일자리 희망 온 에어 울산청년 JUMP패시프랩	108		100	8
(17) 공공기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0		40	
(18)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사업	270		270	
(19) 청년도전 지원사업	340	300	40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3,146	265	2,825.5	55.5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2,000		2,000	
(20)	청년CEO 육성사업	1,500		1,500	
(21)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500		500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1,146	265	825.5	55.5
(22)	톡톡팩토리 운영	700		700	
(23)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50		50	
(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30	232	49	49
(25)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10	7	1.5	1.5
(26)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	23	22	5
(27)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6	3	3	
II. 주거 분야(13개 사업)		61,617	16,830	6,955	37,832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53,202	14,460	925	37,817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등 공급		53,202	14,460	925	37,817
(28)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29,717	5,621		24,096
(29)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	3,297	2,816		481
(30)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6,888	3,136	525	3,227
(31)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비예산			
(32)	희망상가 품은 세어하우스 건립	48	48		
(33)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8,852	2,839		6,013
(34)	신정동 청년가구 세어하우스 건립사업	400		400	
(35)	도시정비 매입임대 주거지원	4,000			4,00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8,415	2,370	6,030	15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3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7,915	1,920	5,995	
(37)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3,000		3,000	
(38)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1,000		1,000	
(39)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3,840	1,920	1,920	
(40)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5		75	

Ⅲ. 교육 분야(12개 사업)		31,105	19,748	10,066	1,291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450		1,450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450		1,450	
(41)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500		500	
(42)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우수인재 장학사업	870		870	
(4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80		80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29,325	19,748	8,456	1,121
2-1.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29,325	19,748	8,456	1,121
(44)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1,195	765	430	
(45)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600	800	800	
(46)	MICE 아카데미 운영	30		30	
(47)	시배울랑고	1,479	1,183	296	
(48)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3,621	2,000	500	1,121
(4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1,400	15,000	6,400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30		160	170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150		50	100
(5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150		50	100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180		110	70
(51)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120		50	70
(52)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60		60	
Ⅳ. 복지·문화 분야(18개 사업)		10,343	1,809	8,405	129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지원		8,392	1,253	7,098	41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지원제도 개편		8,392	1,253	7,098	41
(53)	청년수당	7,000		7,000	
(54)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일몰사업)	80	72	6	2
(55)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일몰사업)	768	691	54	23
(56)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544	490	38	16
2. 청년 건강 증진		227	89	138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27	89	138	
(57)	니트청년 지원	100		100	
(58)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7	89	38	

3.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984	467	429	88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527	351	88	88
(5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27	351	88	88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457	116	341	
(60)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300		300	
(61)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2	16	16	
(6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25	100	25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740		740	
4-1.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480		480	
(63)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	100		100	
(64)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100		100	
(65)	거리공연 지원	50		50	
(66)	울산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100		100	
(67)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사업	130		130	
4-2.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260		260	
(68)	생애처음 청년예술 지원	40		40	
(69)	울청아티스트 지원	80		80	
(70)	지역청년예술단 운영(지역 청년예술인 마당놀이)	140		140	
V. 참여·권리 분야(8개 사업)		1,007	30	974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245		242	3
1-1. 청년이 참여하는 시 위원회		12		12	
(7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2		12	
(72)	시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233		230	3
(73)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60		60	
(74)	지역사회 공감확산 사업	73		70	3
(75)	청년주간 운영	100		100	
2.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762	30	732	
2-1. 청년 플랫폼 구축		702		702	
(76)	청년정책 정보플랫폼 활성화	20		20	
(77)	청년센터 운영	682		682	
2-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60	30	30	
(78)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60	30	30	

출처: 2022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1-3〉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91,633	44,892	35,481	11,260
I. 일자리 분야(20개 사업)	11,716	2,055	8,892	769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6,995	692	5,611	692
1-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2,348	608	1,309	431
(1)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232		232	
(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05			205
(3)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05	608	481	216
(4)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사업	326		326	
(5) 울산청년일자리센터 운영	170		170	
(6) 울산청년 일자리희망 온 에어	110		100	10
1-2. 청년재직자 지원 강화	2,962		2,962	
(7)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262		262	
(8)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사업	2,700		2,700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685	84	1,340	261
(9) 울산청년 취업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20		20	
(10) 행정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사업	324		324	
(11) 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	843		648	195
(12)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사업	330		264	66
(1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168	84	84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721	1,363	3,281	77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500		1,500	
(14) 청년CEO 육성사업	1,200		1,200	
(15)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300		300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3,221	1,363	1,781	77
(16) 특특팩토리 운영	650		650	
(17)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2,000	1,000	1,000	
(1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415	291	62	62
(19)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50	69	66	15
(20)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6	3	3	

II. 주거 분야(11개 사업)		32,256	13,845	10,427	7,984
1. 청년희망주택 공급 확대		26,110	12,362	5,779	7,969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등 공급		26,110	12,362	5,779	7,969
(21)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	1,913	1,810		103
(22)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5,023	5,023		
(23)	희망상가 품은 청년희망주택 건립	3,275	780	2,495	
(24)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745	745		
(25)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170		170	
(26)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14,984	4,004	3,114	7,866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146	1,483	4,648	15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5,646	1,033	4,613	
(28)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400		2,400	
(29)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1,000		1,000	
(30)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066	1,033	1,033	
(3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0		180	
III. 교육 분야(13개 사업)		37,978	23,643	11,992	2,343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026		1,026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026		1,026	
(32)	울산인재평생교육센터 우수인재 장학사업	980		980	
(3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46		46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33,196	21,680	10,118	1,398
2-1.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33,196	21,680	10,118	1,398
(34)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2,752	1,314	1,438	
(35)	시배울랑교	2,094	1,675	419	
(36)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3,898	2,000	700	1,198
(3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3,058	16,001	6,857	200
(38)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80	690	690	
(39)	울산 마이스 인재양성	14		14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756	1,963	848	945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583	433	50	100
(4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583	433	50	100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3,173	1,530	798	845
(41)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	2,000	1,000	400	600
(4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950	530	175	245
(43)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60		60	
(44)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U-FLY)	163		163	
IV. 복지·문화 분야(18개 사업)		9,021	5,319	3,541	161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지원		3,684	3,316	258	110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지원제도 개편		3,684	3,316	258	110
(45)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45	41	3	1
(46)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425	382	30	13
(4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3,214	2,893	225	96
2. 청년 건강 증진		394	176	218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394	176	218	
(48)	니트청년 지원사업	100		100	
(49)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44	101	43	
(50)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50	25	25	
(51)	청년중독관리사업 추진	100	50	50	
3.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673	527	95	51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512	410	51	51
(5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12	410	51	51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61	117	44	
(53)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1	21	20	
(54)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120	96	24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270	1,300	2,970	
4-1.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3900	1,300	2,600	
(55)	울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2,400	1,200	1,200	
(56)	울산웹툰캠퍼스 운영	200	100	100	
(57)	K팝 사관학교 설치	300		300	
(58)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	1,000		1,000	
4-2.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370		370	
(59)	울산 청년예술 지원사업	120		120	
(60)	울산 비보이 페스티벌	120		120	
(61)	거리공연 지원사업	50		50	
(62)	울산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80		80	
V. 참여·권리 분야(13개 사업)		662	30	629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427		424	3
1-1. 청년이 참여하는 시 위원회		8		8	
(6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8		8	
(64)	시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419		416	3
(65)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54		54	
(66)	청년의 날(청년주간) 운영	90		90	
(67)	지역사회 공감확산 사업	73		70	3
(68)	청년거점공간 운영	102		102	
(69)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사업	100		100	
2.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235	30	205	
2-1. 청년 플랫폼 구축		38		38	
(70)	청년정책 정보플랫폼 활성화	15		15	
(71)	청년정책 홍보서포터즈 운영	10		10	
(72)	청년센터 서포터즈 운영	15		15	
2-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195	30	165	
(73)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60	30	30	
(74)	청년성장 지원사업	75		75	
(75)	청년활동경험 지원사업	60		60	

출처: 2023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1-4〉 2024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기타
합 계	119,565	66,638	32,241	20,686
I. 일자리 분야(17개 사업)	6,959	1,267	4,831	861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2,497		1,737	760
1-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819		556	263
(1)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180		180	
(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33			233
(3)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사업	326		326	
(4)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80		50	30
1-2. 청년재직자 지원 강화	0		0	0
(5)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0		0	
(6)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사업	0		0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678		1,181	497
(7) 공공기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0		20	
(8) 행정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사업	314		314	
(9) 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	915		487	428
(10)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사업	345		276	69
(11)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84		84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462	1,267	3,094	101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350		1,350	
(12) 청년CEO 육성사업	1,200		1,200	
(13)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150		150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3,112	1,267	1,744	101
(14) 토크팩토리 운영	750		750	
(15)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800	900	900	
(1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524.2	367	78.6	78.6
(17)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37.5		15	22.5

II. 주거 분야(17개 사업)		43,201	17,538	10,922	14,741
1. 청년희망주택 공급 확대		36,337	16,062	5,559	14,716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등 공급		36,337	16,062	5,559	14,716
(18)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	3,493	3,448	.	45
(19)	희망상가 품은 청년희망주택 건립	426	426	.	.
(20)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6,151	801	5,350	.
(21)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427	318	109	.
(22)	삼산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275	275	.	.
(23)	달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186	186	.	.
(24)	백합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221	221	.	.
(25)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318	318	.	.
(26)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159	159	.	.
(27)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17,220	7,320	100	9,800
(28)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7,461	2,590	0	4,871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864	1,476	5,363	25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840	756	59	25
(2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840	756	59	25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6,024	720	5,304	.
(30)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400	.	2,400	.
(31)	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034	.	2,034	.
(32)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1,040	520	520	.
(3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0	200	200	.
(3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150	.	150	.
III. 교육 분야(16개 사업)		56,939	41,358	13,008	2,573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024	.	1,024	.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024	.	1,024	.
(35)	울산 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	980	.	980	.
(36)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44	.	44	.

2. 청년의 미래 역량강화		51,956	39,345	11,139	1,472
2-1.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51,956	39,345	11,139	1,472
(37)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전형	4,095	1,955	2,140	.
(38)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	2,094	1,675	419	.
(39)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3,852	2,000	500	1,352
(40)	UNIST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	2,200	2,000	200	.
(4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3,013	16,025	6,868	120
(42)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80	690	690	.
(43)	울산 마이스 인재양성	14	.	14	.
(44)	울산대학교, 글로벌대학30 지원	15,000	15,000	.	.
(45)	관내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307.5	.	307.5	.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959	2,013	845	1,101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719	393	50	276
(4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719	393	50	276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3,240	1,620	795	825
(47)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2,000	1,000	400	600
(4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20	620	175	225
(49)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60	.	60	.
(50)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	160	.	160	.
IV. 복지·문화 분야(18개 사업)		11,943	6,475	2,960	2,508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지원		4,325	3,893	303	129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지원제도 개편		4,325	3,893	303	129
(51)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443	399	31	13
(5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3,882	3,494	272	116
2. 청년 건강 증진		498	223	275	.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498	223	275	.
(53)	니트청년 지원사업	100	.	100	.
(5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2	85	37	.
(55)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176	88	88	.
(56)	청년중독관리사업 추진	100	50	50	.

3.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818	647	101	70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706	566	70	70
(5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706	566	70	70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12	81	31	
(58)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28	14	14	
(59)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84	67	17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2,750	930	1,820	
4-1.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2,260	930	1,330	
(60)	울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600	800	800	
(61)	울산웹툰캠퍼스 운영	260	130	130	
(62)	K팝 사관학교 설치·운영	400		400	
4-2.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490		490	
(63)	울산 청년예술 지원사업	120		120	
(64)	울산 비보이 페스티벌	120		120	
(65)	거리공연 지원사업	50		50	
(66)	청년크루 페스티벌	200		200	
5. 육아가 우선인 사회 조성		3,552	782	461	2,309
5-1. 보육 접근성 확대		3,552	782	461	2,309
(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957	485	163	2,309
(68)	신혼, 맞벌이부부 행복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595	297	298	

V. 참여·권리 분야(14개 사업)		523		520	3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273		270	3
1-1. 청년이 참여하는 시 위원회		6		6	
(69)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6		6	
(70)	시 위원회 청년위원회 참여 비율 향상	비예산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267		264	3
(71)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54		54	
(72)	울산청년주간 운영	120		120	
(73)	지역사회 공감확산 사업	73		70	3
(74)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		0	
(75)	청년정책 제안 경연대회	20		20	
2.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250		250	
2-1. 청년 플랫폼 구축		70		70	
(76)	울산청년정책플랫폼 활성화	30		30	
(77)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	10		10	
(78)	콘텐츠 발굴단 운영	15		15	
(79)	청년상담소(고민점빵) 운영	15		15	
2-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180		180	
(80)	청년성장 지원사업	60		60	
(81)	청년활동경험 지원사업	60		60	
(82)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60		60	

출처: 2024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록 2] 울산광역시 구·군별 청년정책: 2022~2024년

1. 중구

〈표 2-1〉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울산 중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합 계		206,078
I. 일자리 분야(25개 사업)		79,207
(1)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15,200
(2)	지식산업센터 건립	51,800
(3)	청년창업지원 '청년디딤터' 운영	120
(4)	로봇배움터 조성	452
(5)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조성	4,752
(6)	울산최초 산전만화도서관 개관 운영	550
(7)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25
(8)	맞춤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9)	4차산업 기반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191
(10)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	25
(11)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232
(12)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의무제	260
(13)	청년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3,000
(14)	울산청년 행복지원사업	618
(15)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262
(16)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120
(17)	2030 U-Dream 사업	255
(18)	울산청년 취업역량강화 패키지사업	40
(19)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	270
(20)	청년도전 지원사업	25
(21)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	500
(22)	톡톡팩토리 운영	140
(23)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50
(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250
(25)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60

II. 문화 분야(10개 사업)		873
(26)	청년 활동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0
(27)	울산음악창작소 운영	133
(28)	울산 청년문화 기반구축	100
(29)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100
(30)	거리공연 지원	50
(31)	울산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100
(32)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사업	130
(33)	생애처음 청년예술 지원	40
(34)	울청 아티스트 지원	80
(35)	지역 청년예술단 운영(지역 청년예술인 마당놀이)	140
III. 주거 분야(12개 사업)		120,078
(36)	울산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82,300
(37)	희망상가를 품은 하우스 건립	32,000
(3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39)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1,000
(40)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3,840
(4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5
(42)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19
(43)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178
(44)	희망저축계좌 사업 I	18
(45)	희망저축계좌 사업 II	20
(46)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이하)	12
(47)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초과)	116
IV. 자립 분야(7개 사업)		5,920
(48)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21
(49)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
(50)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300
(51)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600
(52)	AI 배우랑교	296
(53)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3,621
(54)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80

출처: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2〉 2023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 중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7F)
합 계	2,766	1,533	713	520
I. 일자리 분야(10개 사업)	525	98	104	323
(1) 혁신도시 연계 지역인재 취업캠프 운영	60	30	30	
(2) 맞춤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10
(3) 청년 면접장장 무료대여「디딤돌 옷드림」운영	30			30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공약)	110	68	21	21
(5)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공약)	66		53	13
(6)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청년디딤터」운영	120			120
(7)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2			2
(8) 구인 · 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24			24
(9) 안정적 취업을 위한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	3			3
(10) 청년 특성 야시장 운영(공약)	100			100
II. 문화 분야(2개 사업)	85			85
(11) 청년예술제 개최	25			25
(12) 전국 거리음악(버스킹) 축제	60			60
III. 주거 분야(6개 사업)	1,995	1,334	566	95
(13)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	17			17
(14) 고지서를 활용한 청년지원사업 홍보		비예산		
(15) 청년 주거상담소 지정 운영		비예산		
(16)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0			50
(1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003	502	501	
(18) 청년 자산형성 지원	925	832	65	28
IV. 자립 분야(4개 사업)	161	101	43	17
(19) 청년정책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 청년정책 민·관 협력 활성화	17			17
(21) 청년 신체·마음 건강서비스 제공	144	101	43	

출처: 2023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3〉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 중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2,952	1,951.5	480.5	519
I. 일자리 분야(10개 사업)	825	458	118	249
(1) 청년도전지원사업	497	458	39	
(2)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4		9	5
(3) 맞춤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10
(4) 청년 면접장장 무료대여 '디딤돌 옷드림' 운영	30			30
(5)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69		55	14
(6)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	120			120
(7) 취업 성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4			24
(8) 분야별·직종별 취업 역량강화 교육	3			3
(9) 청년 특서 야시장 운영	43			43
(10) 1040 인생학교 운영 확대	15		15	
II. 문화 분야(2개 사업)	85			85
(11) 청년예술제 개최	25			25
(12) 전국 거리음악(버스킹) 축제	60			60
III. 주거 분야(6개 사업)	1,895	1,429	308	158
(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3	9	2	2
(14) 청년 주거상담소 지정 운영		비예산		
(15)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500	350	75	75
(16)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0			50
(1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320	160	160	
(18) 청년 자산형성 지원	1,012	910	71	31
IV. 자립 분야(4개 사업)	147	64.5	54.5	27
(19) 청년정책 민·관 협력 활성화	17			17
(20) 청장년 고독사 예방 '종갓집 희망 이음' 사업	12	2.5	1.5	7
(21) 청년 신체·마음 건강서비스 제공	18	12	3	3
(22) 청년중독관리사업	100	50	50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 남구

〈표 2-4〉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울산 남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16,502	11,763	920	3,819
I. 일자리 분야(9개 사업)		1,517	378	22	1,117
(1)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120			120
(2)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236			236
(3)	비대면 면접 공간 및 장비지원	6			6
(4)	남구형 청년 일자리 사업	359	324		35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1	54	22	25
(6)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162			162
(7)	청년창업 점포지원 사업	441			441
(8)	남구 창업스쿨 운영	15			15
(9)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활성화	76			76
II. 문화·복지 분야(5개 사업)		1,943	31	15	1,897
(10)	청년의 날 행사	15			15
(11)	청년동아리 운영	5			5
(1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61	31	15	15
(13)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활성화	1,815			1,815
(14)	업사이클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46			46
III. 자립 분야(3개 사업)		13,015	11,354	883	778
(15)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436	392	30	13
(1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179	10,961	852	365
(17)	남구장학재단 장학생 학자금 지급	400			400
IV. 참여분야(6개 사업)		26			26
(18)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5			5
(19)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11			11
(20)	각종위원회 청년위원 할당제 추진	비예산			
(21)	토요 청년아지트 운영	3			3
(22)	청년플랫폼 운영				
(23)	청년기자단 운영	7			7

출처: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5〉 2023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 남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23,181	18,063	1,876	3,242
I. 일자리 분야(14개 사업)		1,739	461.3	292.1	986
(1)	청년창업점포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334			334
(2)	청년창업가 사회환원 사업	10			10
(3)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45			45
(4)	청년인턴 일자리지원 사업	86.9	47.3	19.3	20.3
(5)	지역·산업 맞춤형 남구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42		220	22
(6)	신중년 청년구직자 멘토링 사업	150			150
(7)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162.8		52.8	110
(8)	구직단념 청년도전 지원사업	445	414		31
(9)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153			153
(10)	청카 취업스터디 '시너지업'	0.7			0.7
(11)	청년멘토단 운영	10			10
(12)	청년 면접정장대여 사업	35			35
(13)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60			60
(14)	VR면접 솔루션 비대면 면접 지원	5			5
II. 문화·교육 분야(10개 사업)		2,816	1,350		1,466
(15)	청년이 만드는 청년페스타	20			20
(16)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활성화	442			442
(17)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운영	400			400
(18)	장생포문화창고 신진작가 전시 개최	26			26
(19)	장생포문화창고 MZ세대를 위한 공연 개최	60			60
(20)	남구 거리음악회 활성화 및 버스킹존 운영	300			300
(21)	SNS 관광모니터 운영	12			12
(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지원	1,500	1,350		150
(23)	울산남구 내일로 홍보단	6			6
(24)	청년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지원	50			50

Ⅲ. 복지·경제 분야(13개 사업)		18,488	16,251.5	1,583.7	651.7
(25)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636	318	318	
(26)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16,170	14,553	1,132	485
(27)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	1,157	1,041	81	34
(28)	청년 1인가구지원 '나 홀로 Green gardening	3	1.5	0.75	0.75
(29)	청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34	17	8.5	8.5
(30)	남구체력인증센터 청년참여 활성화	200	160		40
(31)	정신건강증진 "도덕도덕, 청년 마음을 기운다."	10	5	2.5	2.5
(3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224	154	41	29
(33)	Cheer-up! 청년 창업점포 실내 방역소독 지원	비예산			
(34)	청년창업 식품접객업소 위생모 지원	3			3
(35)	혼인신고 축하 셀프포토존 운영	2	2		
(36)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25			25
(37)	「키즈와 맘」 청년몰 활성화 지원	24			24
Ⅳ. 참여분야(9개 사업)		138			138
(38)	청년정책보좌관 채용	58.5			58.5
(39)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4.6			4.6
(40)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확대	16			16
(41)	청년풀리처기자단 운영	7			7
(42)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비예산			
(43)	청년정책 공시	비예산			
(44)	청년정책 경진대회	32			32
(45)	LISTEN 프로젝트, 올남청년300!	20			20
(46)	청년정책 설문조사	비예산			

출처: 2023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6〉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 남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24,508	19,193	1,728	3,587
I. 문화·교육 분야(14개 사업)		3,449	1,800	15	1,634
(1)	2024 울산 남구 청년페스타	120			120
(2)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42		15	27
(3)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	10			10
(4)	청년 테마특강 운영	6			6
(5)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	400			400
(6)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2,000	1,800		200
(7)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지원	5			5
(8)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활성화	372			372
(9)	장생포문화창고 신진작가 전시 개최	128			128
(10)	장생포문화창고 MZ세대를 위한 공연 개최	30			30
(11)	남구 거리음악회 운영활성화	300			300
(12)	힐링과 공감을 위한 인문학강연 개최	20			20
(13)	SNS 관광모니터 운영	12			12
(14)	고래바다여행선 선상 EDM 파티 특별운항	4			4
II. 일자리 분야(15개 사업)		1,632	418	55	1,159
(15)	청년창업점포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407			407
(16)	청년창업가 사회환원 사업	10			10
(17)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45			45
(18)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48			48
(19)	신중년-MZ 멘토링 사업	150			150
(20)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170		55	115
(21)	구직단념 청년도전 지원사업	457	418		39
(22)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177			177

(23)	청카 취업스터디 '시너지업'	5			5
(24)	청년멘토단 운영	10			10
(25)	청년 면접정장대여 사업	40			40
(26)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8			58
(27)	1사 1청년 채용사업	비예산			
(28)	남구형 청년창업가 육성교육	20			20
(29)	남구 청년 창업경진대회	35			35
Ⅲ. 참여·권리 분야(6개 사업)		28			28
(30)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			2
(31)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확대	19			19
(32)	청년풀리처기자단 운영	7			7
(33)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비예산			
(34)	청년정책 공시	비예산			
(35)	청년정책 설문조사	비예산			
Ⅳ. 복지·경제 분야(15개 사업)		19,399	16,975	1,657.5	766.5
(36)	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20			20
(3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488	244	244	
(38)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16,480	14,833	1,153	494
(39)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	1,665	1,499	116	50
(4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8	34	7	7
(4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262	154	68	40
(42)	소상공인 경영주치의(컨설팅) 사업	6			6
(43)	'키즈와 맘' 청년몰 활성화 지원	47			47
(44)	남구체력인증센터 청년참여 활성화	204	143		61
(45)	혼인신고 축하 셀프포토존 운영	2	2		
(4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20	60	60	
(47)	"토닥토닥, 청년 마음을 기울이다."	12	6	3	3
(48)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산전기초검사	13		6.5	6.5
(49)	예비군 건강생활실천교육 운영	5			5
(50)	Cheer-up! 청년 창업점포 실내 방역소독 지원	27			27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3. 동구

〈표 2-7〉 2022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울산 동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11,997	7,969	3,096	932
I. 일자리 분야(6개 사업)		1,028	30	698	300
(1)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62	30	13	19
(2)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150		135	15
(3)	온·오프라인 청년 일자리박람회	10			10
(4)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	786		550	236
(5)	청년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사업	20			20
(6)	청년 프리랜서 컨설팅 지원		비예산		
II. 문화 분야(3개 사업)		216			216
(7)	청년공간 자원 발굴		비예산		
(8)	청년 문화강좌 개설 및 운영	204			204
(9)	청년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2			12
III. 주거 분야(6개 사업)		10,541	7,939	2,398	204
(10)	청년 마음건강 사업	5			5
(11)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35	25	10	
(1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	20	4	
(13)	청년저축계좌	92	83	6	3
(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6,545	5,891	458	196
(1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840	1,920	1,920	
IV. 자립 분야(3개 사업)		212			212
(16)	동구청년정책협의체 운영	8			8
(17)	동구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			2
(18)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202			202

출처: 2022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8〉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 동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2,307	1,260	643	404
I. 일자리 분야(9개 사업)		788	434	218	136
(1)	청년도전지원사업	445	414		31
(2)	지역상생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34	20	7	7
(3)	청년 면접장대 대여서비스 사업	20			20
(4)	청년 VR(가상)면접체험 사업	5			5
(5)	청년 프리랜서 컨설팅 지원	10			10
(6)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100		90	10
(7)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	98		68	30
(8)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66		53	13
(9)	온·오프라인 청년 일자리 박람회	10			10
II. 문화 분야(5개 사업)		152			152
(10)	청년 강사 발굴 사업		비예산		
(11)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5
(12)	취업 및 문화 특강 운영	5			5
(13)	청년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2			12
(14)	청년 문화강좌 개설 및 운영	130			130
III. 주거 분야(8개 사업)		1,279	826	425	28
(15)	청년 마음건강 사업	10			10
(1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5	25	5	5
(1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0	32	8	
(1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1	21	20	
(19)	청년저축계좌 지원	68	61	5	2
(2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289	260	20	9
(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72	65	5	2
(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24	362	362	
IV. 자립 분야(4개 사업)		88			88
(23)	동구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6			16
(24)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홍보 사업	4			4
(25)	동구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			2
(26)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66			66

출처: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9〉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 동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7타)
합 계	3,114	861.5	500.5	1,752
I. 일자리 분야(10개 사업)	1,061	418	390	253
(1) 청년도전지원사업	462	418		44
(2)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11		7	4
(3) 청년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사업	15			15
(4) 청년 시 면접체험 사업	4			4
(5) 청년 프리랜서 컨설팅 지원	10			10
(6)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100		90	10
(7)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	340		238	102
(8)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69		55	14
(9) 온·오프라인 청년 일자리 박람회	10			10
(10) 청년 창업 지원사업	40			40
II. 문화 분야(5개 사업)	181			181
(11)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5
(12) 취업 및 문화 특강 운영	10			10
(13)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20			20
(14) 청년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2			12
(15) 청년 문화강좌 개설 및 운영	134			134
III. 주거 분야(11개 사업)	1,465	443.5	50.5	971
(16) 나함께산다 청년가구 지원사업	20			20
(17) 청년 마음건강 사업	10			10
(1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6	11	2.5	2.5
(1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6	13		3
(2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	4.5		4.5
(21) 청년저축계좌 지원	29	26	2	1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286	257	20	9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80	72	6	2
(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0	40		40
(25)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879			879
(2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0	20	20	
IV. 자립 분야(6개 사업)	407		60	347
(27) 동구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6			16
(28)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홍보 사업	4			4
(29) 동구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			1
(30) 동구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	20			20
(31) 청년센터 운영	150			150
(32) 청년스태이지 설치 및 운영	216		60	156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4. 복구

〈표 2-10〉 2022년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울산 복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71,378	15,004	16,646	39,728
I. 일자리 분야(15개 사업)	3,250	513	955	1,782
(1) 청년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4			24
(2)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840		588	252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대상사업 확대	405		304	101
(4) 지역산업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24	300		24
(5)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33	101	42	90
(6) 청년 면접 정장 대여	25			25
(7) 청년창업 제조공간 지원	127			127
(8) 청년 창업 MVP 지원	6			6
(9) 메이커스페이스 '쇠부리대장간' 운영	7			7
(10)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	10			10
(11)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682			682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300			300
(13)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40	98	21	21
(14)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4	14		
(15) 청년 노동권익 교육 및 지원	113			113
II. 주거 분야(6개 사업)	48,787	9,849	8,333	30,605
(16)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	29,717	5,621		24,096
(17) 상안지구 행복주택 공급 지원	1,285	804		481
(18) 매곡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지원	11,717	2,590	3,114	6,013
(1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00	450	35	15
(20)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4,800		4,800	
(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68	384	384	
III. 교육 분야(5개 사업)	207			207
(22) 차오름 장학금 지원	120			120
(23)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64			64
(24) 미래를 위한 교육패러다임 '온택트 강좌' 운영		비예산		
(25)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킹맘 저녁 프로그램 운영	20			20
(26) 평생학습 서포터즈 운영	3			3

IV. 복지·문화 분야(19개 사업)		19,115	4,642	7,358	7,115
(27)	청년 수당 지급	1,350		1,350	
(28)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12	8		4
(29)	마음탄탄 정신건강 서비스	3			3
(3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41	33	4	4
(3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0	16	4	
(32)	예비부모 건강관리	20		10	10
(3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322			1,322
(34)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	1,651	4	541	1,106
(3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370	60	1,130	180
(3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간제보육 사업	1,022	88	44	890
(37)	아이돌봄 지원사업	2,248	1,498	696	54
(38)	지역아동센터 운영	1,671	632	741	298
(39)	지역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	799	419	245	135
(40)	도서관 인프라 확충	1,824	1,116	354	354
(41)	청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3			3
(42)	송정북합문화센터 건립	5,319	750	2,239	2,330
(43)	청정문화캠퍼스 운영	18	18		
(44)	예술창작소 운영	398			398
(45)	청년 예술인 지원	24			24
V. 참여·권리 분야(6개 사업)		19			19
(46)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			1
(47)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6			6
(48)	구 위원회 청년 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49)	청년 소셜 리빙랩 운영	12			12
(50)	청년 면접관 제도 운영	비예산			
(51)	다양한 채널 활용 청년정책 홍보	비예산			

출처: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11〉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 북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48,064	10,674	16,157	21,233
I. 일자리 분야(18개 사업)		3,525	218	1,369	1,938
(1)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4			24
(2)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840		588	252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대상사업 확대	405		304	101
(4)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69		333	36
(5)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96	20	66	10
(6)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	45			45
(7)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66		53	13
(8)	청년창업 제조공간 지원	133			133
(9)	청년창업지원센터「쇠부리대장간」운영	36			36
(10)	청소년 DREAM 창업 캠프	5			5
(11)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	15			15
(12)	울산메이커하우스 구축 운영	100	80		20
(13)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680			680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0			200
(15)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100			100
(16)	스타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기초제조업 지원	100			100
(17)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68	118	25	25
(18)	청년 노동권익 교육 및 지원	143			143
II. 주거 분야(5개 사업)		15,886	3,654	5,716	6,496
(19)	상안지구 행복주택 공급 지원	1,285	804		481
(20)	매곡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지원	11,717	2,590	3,114	6,013
(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70	63	5	2
(22)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2,400		2,400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4	197	197	
III. 교육 분야(5개 사업)		149			149
(24)	차오름 장학금 지급	120			120
(25)	평생학습 야간과정 운영	6			6
(26)	미래를 위한 교육패러다임 '온택트 강좌' 운영		비예산		
(27)	위라하 저녁 프로그램 운영	20			20
(28)	평생학습 서포터즈 운영	3			3

Ⅳ. 복지·문화 분야(17개 사업)		28,425	6,802	9,032	12,591
(29)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18	14		4
(30)	마음탄탄 정신건강 서비스	5	3	1	1
(3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82	66	8	8
(3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9	13	6	
(33)	예비부모 건강관리	20		10	10
(34)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272			1,272
(35)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	1,254	4	49	1,201
(3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361	55	1,128	178
(3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간제보육 사업	1,865	534	280	1,051
(38)	아이돌봄 지원사업	3,897	2,637	1,195	65
(39)	지역아동센터 운영	1,829	886	635	308
(40)	지역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	1,117	440	329	348
(41)	도서관 인프라 확충	871		516	355
(42)	청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3			3
(43)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4,400	2,150	4,875	7,375
(44)	예술창작소 운영	388			388
(45)	청년 예술인 지원	24			24
Ⅴ. 참여·권리 분야(7개 사업)		99		40	59
(46)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			1
(47)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6			6
(48)	구 위원회 청년 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49)	청년 소셜 리빙랩 운영	12			12
(50)	청년 면접관 제도 운영	비예산			
(51)	청년거점공간 조성	80		40	40
(52)	다양한 채널 활용 청년정책 홍보	비예산			

출처: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12〉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 북구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기타)
합 계		74,077	16,845	16,127	41,100
I. 일자리 분야(18개 사업)		3,958	185	1,431	2,342
(1)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4			24
(2)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1,124		787	337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대상사업 확대	172		129	43
(4)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451		406	45
(5)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	50		10	40
(6)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69		55	14
(7)	청년 창업 제조공간 지원	139			139
(8)	청년창업지원센터 '쇠부리대장간' 운영	1			1
(9)	청소년 드림 창업 캠프	4			4
(10)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17			17
(11)	울산메이커하우스 운영	100	80		20
(12)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지원	930			930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300			300
(14)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100			100
(15)	스타비즈니스 센터 운영 및 기초제조업 지원	100			100
(16)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51	105	23	23
(17)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80		21	59
(18)	청년 노동권익 교육 및 지원	146			146
II. 주거 분야(6개 사업)		51,294	10,237	9,439	31,618
(19)	상안지구 행복주택 공급 지원	20,154	4,022		16,132
(20)	매곡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지원	28,508	6,067	6,957	15,484
(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80	72	6	2
(22)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2,400		2,400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52	26	26	
(2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00	50	50	
III. 교육 분야(4개 사업)		155			150
(25)	차오름 장학금 지원	120			120
(26)	평생학습 야간과정 운영	6			6
(27)	미래를 위한 교육패러다임 '온택트 강좌' 운영			비예산	
(2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라밸 자취 프로그램 운영	29			29

IV. 복지·문화 분야(17개 사업)		18,582	6,423	5,257	6,902
(29)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25			25
(30)	'파랑해' 청년정신건강사업	7	3	2	2
(3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72	58	7	7
(3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5	12	3	
(33)	예비부모 건강관리	20		10	10
(34)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105			1,105
(35)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	1,388	5	10	1,373
(3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463	52	1,190	221
(3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간제보육 사업	1,091	83	88	920
(38)	아이돌봄 지원사업	5,177	3,508	1,586	83
(39)	지역아동센터 운영	2,025	564	807	654
(40)	지역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	1,041	384	319	338
(41)	도서관 인프라 확충	4,262	1,754	1,235	1,273
(42)	청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			1
(43)	생활문화센터 운영	436			436
(44)	예술창작소 운영	430			430
(45)	청년 예술인 지원	24			24
V. 참여·권리 분야(8개 사업)		88			88
(46)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			1
(47)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6			6
(48)	구 위원회 청년 위원 참여 제고		비예산		
(49)	청년 소셜 리빙랩 운영	13			13
(50)	청년 면접관 제도 운영		비예산		
(51)	청년거점공간 운영	65			65
(52)	다양한 채널 활용 청년정책 홍보		비예산		
(53)	청년 관광 탐험대 운영	3			3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5. 울주군

〈표 2-13〉 2022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울산 울주군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군비(기타)
합 계	12,285	1,676	1,467	9,142
I. 참여 분야(4개 사업)	1,873		500	1,373
(1) 청년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	1,372		500	872
(2)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21			21
(3) 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운영	480			480
(4) '청년야, 울주에서 놀자'(청년주간 행사)		비예산		
II. 일자리 분야(14개 사업)	4,687	298.6	961.1	3,427
(5)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452			452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31	173	79	79
(7)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56.7			156.7
(8) 청년 꿈날개 지원사업	25			25
(9) 희망을 주는 생계안정 일자리 사업	1,206		854	352
(10) 울주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500			500
(11)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	200			200
(12) 팜 카페 운영(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588			588
(1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58	110.6	23.7	23.7
(14)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지원	7	3.5	1.4	2.1
(15)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15	7.5	3	4.5
(16) 스마트팜 보급 확산 지원	950			950
(17) 6차산업 관광 클러스터 지원	90			90
(18)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8	4		4
III. 복지 분야(18개 사업)	4,545	877.3	5.5	3662.2
(19)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30			30
(20)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94			294
(21) 신혼부부 주거대출이자 지원	1,200			1,200
(22) 울주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2,105			2,105
(23)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 지급	20			20
(24)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	800	800		
(2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이하)	8	7.3	0.5	0.2
(26)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초과)	77	70	5	2
(27) 구해줘 心즈(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7			7
(28) N(엔) 혼자 산다(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4			4
IV. 문화 분야(4개 사업)	1,180	500		680
(29)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	500	500		500
(30) 울주문화배달	180			180

출처: 2022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14〉 202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울산 울주군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군비(기타)
합 계	16,677	3,888	2,269	10,519
I. 참여 분야(5개 사업)	529			529
(1)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9			19
(2) 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운영	510			510
(3) 울주 청년활동 공유회 개최	22			22
(4) 청년학당 운영	24			24
(5)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60			60
II. 일자리 분야(14개 사업)	8,106	1,986	1,963	4,157
(6)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452			452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7	68	36	43
(8)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65		53	112
(9) 청년 꿈날개 지원사업	25			25
(10) 희망을 주는 생계안정 일자리 사업	1,358		960	398
(11) 울주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500			500
(12)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	200			200
(13) 팍 카페 운영(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13			13
(1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223	156	33.5	33.5
(15)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2.5	1.25	0.5	0.75
(16)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10			10
(17) 스마트팍 보급 확산 지원	1,400			1,400
(18) 6차산업 관광 클러스터 지원	90			90
(19) 도시재생 뉴딜사업(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산)	3,521	1,761	880	880
III. 복지 분야(12개 사업)	6,862	1,402	56	5,404
(2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이하)	59	53	4	2
(2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초과)	585	526	41	18
(22)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32			32
(23)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26			126
(24)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540			2,540
(25) 울주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2,110			2,110
(26)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 지급	15			15
(27)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28)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	1,342	800		542
(29) 구해줘 심즈(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16	8	4	4
(30) N(엔) 혼자 산다(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34	15	7	12
(31) 나만의 밥상 차리기 사업	3			3
IV. 문화 분야(2개 사업)	1,180	500	250	430
(32)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	1,000	500	250	250
(33) 울주문화배달	180			180

출처: 202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2-15〉 2024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년 울산 울주군 세부과제(사업명)	전체예산(단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군비(기타)
합 계	27,440	8,407.5	4,324.8	14,707.5
I. 참여 분야(3개 사업)	125			125
(1) 울주군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29			29
(2) 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운영	80			80
(3)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6			16
II. 일자리 분야(9개 사업)	18,465	6,120	3,970.5	8,374.5
(4)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401			401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337		55	282
(6) 청년 꿈날개 지원사업	25			25
(7) 희망을 주는 생계안전 일자리 사업	1,264		891	373
(8) 울주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500			500
(9)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	200			200
(10)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324	156	42.5	125.5
(11) 스마트팜 보급 확산 지원	950			950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14,464	5,964	2,982	5,518
III. 주거·복지 분야(14개 사업)	7,400	1,787.5	104.25	5,508.25
(1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이하)	596	536	42	18
(1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초과)	102	92	7	3
(15)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사업	32			32
(1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22			122
(17)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100			3,100
(18) 울주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1,910			1,910
(19)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 지급	15			15
(20)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300			300
(21)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	1,100	1,100		
(2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00	50	50	
(23)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구해줘 심즈'	11	5.5	2.75	2.75
(24) 초월정산질환 인식개선 홍보 자원단 사업 '정춘해'	6	3	1.5	1.5
(25)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N 혼자 산다'	3	1	2	1
(26) 영양 가득 홈케어 프로젝트	3			3
IV. 문화 분야(4개 사업)	1,450	500	250	700
(27)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	1,000	500	250	250
(28) 울주문화배달	190			190
(29) 울주동네문화생활	200			200
(30) 울주청년문화프로젝트 청년 문화잇소	60			60

출처: 2024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록 3]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인구 유출에 관한 선행연구 23편

연번	논문명	저자/발행연도	대상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서옥순·오민홍 / 2012	부산	2008GOM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한계효과 계수를 활용한 프라빗 모형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탈은 일자리 여부(availability) 보다는 좋은 일자리 (attractiveness)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발전이 지역내 물적 자본의 확충과 함께 우수 인력 (human capital)이 보완될 때 가능하다 는 점에서 역내 일 자리의 질 제고 등 인재유출(brain drain)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사전적인 정책개입 필요함
2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김기승·정민수 / 2013	부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교육-노동시장 연계조사」 데이터 표본 수는 8,091명	패널 분석	-7개 대도시로 분석대상을 한정 한 경우 임금만이 유의미한 인구 유출 요인으로 추정됨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병상수, 고용률, 대형 사업체 비중, 공무원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옴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된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지식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중소기업 초임수준 향상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

38) GOMS는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장이동경로를 조사하여 대졸 청년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3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8,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음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3	떠나는자와 남는 자: 대학 진학과 대졸취업 시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유재연 / 2015	전국	한국교육고용패 널(KEEP) 1차년도 (2004년)~ 9차년도 (2012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조사 자료를 활용	이변량 프로빗 모형	-고등학교 소재 도시규모, 고3시 절 원가족 월 평균소득, 대학교 전공에 따라 고등학교와 동일 지역으로의 대학진학 여부에 차 이가 남 -고등학교 동일 지역으로의 대졸 취업 여부에는 고등학교 소재 도시규모, 대학교 소재 도시규 모, 대학교 전공에 따라서 차이 가 났다. 4년제 대학교와 2~3 년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 여부, 고3시절 원가족 월 평균소득, 성별, 대학교 소재 도시규모가 4 년제 대학교 졸업자에게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인문계 고교 집단의 출신지역 잔류 경향 이 높음으로 공무 원·공공기관 취업 시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는 정책 필요
4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이찬영· 이흥후 / 2016	16개 시도	통계청 국내 이동통계	Pooled OLS분석 패널분석	-전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임금과 취업률이 높고, 결혼 기 회가 많고, 거주비용이 낮은 곳 으로 인구이동이 진행되고 있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 동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또 한, 비수도권 지역 간 인구이동 에 있어서는 임금이 인구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임금 및 취업률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와 수도권 거주비용 의 증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 로의 인재유출이 향 후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5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 지역별 인구가동 결정요인 분석	이찬영·문제철 / 2016	광주, 전남 지역	통계청 국내 인구가동 통계 자료 활용	이원오차성 분모형 분석	<p>-광주·전남지역의 인구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40~50대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수도권에서의 유입으로 전환</p> <p>-인구가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p> <p>-연령대에 상관없이 삶의 질과 연관 있는 제반요인(전세가격, 문화서비스 혜택, 교육여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특히,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해당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p>	<p>-인구유출 최소화 내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활성화, 주택수급정책의 안정화, 문화기반시설의 고도화가 필요함</p>
6	대전·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및 청년인력 유출입 분석	최효철·이승복 / 2017	대전, 충남 지역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과 GOMS 자료 활용	이항로지모형	<p>-청년인력 유출입 요인으로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내 고교 졸업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p>	<p>-지역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mismatch 완화 및 취업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p>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7	대졸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격차	문영만· 홍장표 / 2019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07GOMS ~ 2016GOMS 활용 대졸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과 지역별 노동시장 성과 격차를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기업 취업을 기준으로 보면 연 령이 낮을수록, 4년제 국공립 대학 졸업생일수록, 졸업평점이 높을수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 이 높았음	-기업규모별 임금격 차 완화가 필요하며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청년들이 선 호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함
8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욱· 권철우· 임영주 / 2019	울산	통계청 전·출입 자료활용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모형분석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거나, 남성이거나, 미 혼일수록 울산지역을 떠날 가능 성이 높음 -청년들의 학력수준은 유의 하게 지역이동 가능성을 높이며, 다양 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이탈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울산지역 출신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 후 경력이 1년 미만의 젊 은 노동자들은 지역이탈의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청년들의 지역 이 탈을 줄이기 위해서 는 청년들의 거주여 건(쇼핑시설, 편의시 설,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개선할 필요 -청년층의 지역사회 와의 연대감 및 소 속감을 고취해야 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9	지역간 특성이기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리영 / 2019	서울	2017년 통계청의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	상관분석, 회귀분석	-청년층의 이동은 거리와 일자리는 중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음 -주택시장에서의 전세가격이나 주택공급이 청년층 이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서울시내 개별 지역과 이동의 기원지간의 전세가격과 같은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주택공급 차이가 커질수록 서울시 청년층의 순전출이 지속될 수 있음	-고용중심지 주변에서의 청년층 주거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주변이나 역세권 주변에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비롯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0	어메니티와 청년인구 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강영환 / 2019	대전	대전광역시의 동구, 중구, 대덕구의 45개 동의 8년간 인구, 사업체 조사 자료 활용	패널분석	-제조업과 같은 어메니티는 청년인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도서관, 사적지, 유원지, 여가서비스업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와 같은 어메니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청년 중심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보상구조, 창조적 사고를 조장하는 교육제도, 청년이동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1	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김주영 / 2020	강원 도	청년층 지역 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패널 분석	<p>-강원도는 2008년 이후 인구의 순전입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지역으로 유입되는 특성을 보임</p> <p>-전체 인구의 순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소득수준 그리고 주거비용과 병상수로 인구 밀도와 주거비용은 낮을수록 순전입을 촉진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병상수로 평가한 의료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나타남</p> <p>-세대에 관계없이 지역의 개인소득 수준과 주거비용은 인구의 순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p>	-지역소득의 창출요인으로서 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 있음
12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조동훈 / 2020	전국	2016GOMS 자료를 활용, 청년층의 생애주기 (고등학교- 대학교-취업) 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 분석	회귀 분석	<p>-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첫 직장에 이르기까지 권역별 수준에서 한 번의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 비중이 66%</p> <p>-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했지만, 수도권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다시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구한 이들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p>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기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3	청년층 교육-일자리 매치의 공간적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 및 지역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사호석· 우한성 / 2020	전국	2016GOM S 자료 활용	위계로짓 모형 분석	<p>-수도권-수도권 유형의 교육-일자리 매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비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의 교육-일자리 매치율이 가장 높았음</p> <p>-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수도권-수도권 유형에 비해 교육-일자리 매치율이 향상된 반면, 비수도권-수도권 유형은 비수도권-비수도권 유형에 비해 교육-일자리 매치율이 개선되지 않았음</p> <p>-개인수준에서는 교육·의약·공학 전공, 대학원 졸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임금수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 <p>-지역수준 변수들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특화도, 지식 기반제조업 특화도, 문화시설, 병원 등이 교육-일자리 매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됨</p>	<p>-청년층의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직업적 요인 외에도 지역 산업 및 지역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p>
14	청년층의 대학 진학 및 취업 관련 지역 이동 예측 요인 탐색	김영식 / 2020	전국	한국교육 고용패널의 4-12차년도 자료를 활용	랜포레스트 법	<p>-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인재 유출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강원 지역의 인재 유출이 두드러짐</p> <p>-특목고로 대표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보다 많은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하여 타 지역 대학 진학 및 취업 이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p> <p>-취업의 질과 관련된 임금 수준, 직장 규모 등의 변수들이 타 지역으로의 취업 이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p>	<p>-지역의 인재 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지역 대학 역량 강화 방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됨</p>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15	삶의 자기 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김현우· 강명구 / 2020	전국	2018GOMS 자료를 활용	이변량 프로빗 모형, 다중회귀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 인구이동은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직업과 여가시간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임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근로시간과 직업 선택에 있어 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 -연령별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25~29세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창의적 일자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밀레니얼 세대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커피숍과 같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은 고용기간이 안정된 상용직·정규직 일자리 외에도 자발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아르바이트, 일용직)가 있음. 따라서 상용직·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은 심미적·편의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 어메니티 요소를 개선할 필요 있음
16	광역시 지역 청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 원인	정충대 / 2020	개도 지역	GOMS자료 활용 수도권 유출 원인 분석	이항종속변 수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더미와 평균평점은 양의 추정값 -지역 제조업생산지수는 취업지역에서 높아질수록 유출 확률을 하락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우수자원의 잔류유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남은 상대적 저숙련자의 교육 훈련을 위한 투자와 지역에 머물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연번	논 문 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 석 결 과	시 사 점
17	동남권 청년의 유출입 특성 및 유출 결정요인	문영만· 류 장 수 / 2020	동 남 권 (부산, 울 산, 경 남)	2008GOMS ~ 2017GOMS	로 지 스틱 회 귀 분 석	<p>-(1차유출: 진학) 여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특목고 졸업생일 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출 확률이 높음</p> <p>-(2차유출: 취업)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유출확률이 높음</p>	<p>-지역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p> <p>-동남권 지방정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청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p>
18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빈· 정 기 성 / 2021	부 산	통계청 MDIS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와 각 변수별 공공데이터 를 활용	다중회귀분 석	<p>-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의 수도권 유출비중이 부산시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p> <p>-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 증가율,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 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치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로 나타남</p>	<p>-청년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기회가 확대된다면 지역 내 정착율을 높이고 수도권 유출현상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p> <p>-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양질의 문화 시설 확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임</p>
19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 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동 신 / 2021	대 구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 및 2018년 대 구 사 회 조 사 설 문 자 료 를 활 용	다중회귀분 석	<p>-청년층은 고용과 취업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 서울 및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사업체 수와 대규모 사업체수, 종사자 수, 그리고 고용률 모두 대구시보다 서울시 및 경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청년층 인구가 서울 및 경기도로 순 유출의 정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나타남</p> <p>-여성일수록, 대구시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낮을수록, 복지 시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클수록 청년층은 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p>	<p>-지방정부는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첨단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함</p> <p>-축소지향적 도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인구 감소시대에 적합한 지역적 발전 전략으로 스마트 성장, 포용적 성장 그리고 분권형 지역정책을 추진해야 함</p>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20	지역의 경제·생활여 건이 청년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김유현 / 2021	전국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활용	합동최소 자승법 (Pooled 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청년 취업률로 대비되는 일반적인 취업가능성 보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련된 주거여건, 지방세 수입으로 대변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편익이 더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권역별로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산업구조 전환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21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최형재 / 2022	전국	GOMS(2007~2017)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학 소재지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을 이탈할 확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대학 소재지의 교통문화지수나 주차장확보율 등 교통 관련 문화와 수준이 양호할수록, 사설학원수나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아 교육여건이 양호할수록, 천 명당 의사 수 등 보건의료 기반이 좋을수록, 경찰 1명당 주민 수가 적거나 기타 생활안전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졸 청년층의 지역이탈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노동시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여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수준, 의료수준, 안전상황 등 다양한 사회·문화여건들도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침 -청년층의 지방 정주유인 및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보상할만한' 수준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의 비경제적인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야 함

연번	논문명	저자/ 발행연도	대상 지역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22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실태 및 결정요인	문영만 / 2022	비수도권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 (GOMS2016~2020) ³⁸⁾ 이용 비수도권 청년의 1~2차 유출실태 및 유출결정 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p>-(1차유출: 진학) 부모소득이 높을수록(1.4배), 특목고 졸업생일수록(3.0배) 수도권 대학 유출 비중이 높았음</p> <p>-(2차유출: 취업)임금이 높을수록(2.6배),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1.5배), 4년제 대학 졸업생일수록(2.8배) 수도권 유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음</p>	<p>-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필요</p> <p>-일자리 확대 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p>
23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	이대응 / 2023	강원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 활용	유·출입 실태 분석	<p>-강원도 시군에서 타 시도로 전출사유는 1순위 직업, 2순위 교육(20대), 가족과 주택(30대)</p>	<p>-연령 구간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정책 필요(20대 청년의 순유출에 대응하고, 30대 청년의 순유입을 강화)</p> <p>-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p>

[부록 4]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집단 변수	전체				2020년				2023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조건 타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07	.248	.06	.235	.09	.284	.07	.262	0.00	0.000	.02	.138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타지역으로 떠날 예정임	.22	.413	.20	.401	.23	.421	.21	.404	.18	.387	.19	.395
취창업자	.51	.500	.52	.500	.49	.500	.51	.500	.58	.496	.54	.499
연령(만 나이)	26.59	4.520	26.62	4.397	26.34	4.517	26.47	4.450	27.30	4.463	27.00	4.245
기혼자	.17	.378	.13	.336	.16	.369	.16	.370	.20	.401	.04	.204
학력: 고졸 이하	.42	.494	.49	.500	.46	.499	.51	.500	.31	.464	.45	.498
학력: 대학 재학	.30	.457	.35	.479	.32	.468	.34	.476	.22	.418	.38	.487
학력: 대학 졸업	.56	.497	.48	.500	.52	.500	.45	.498	.69	.464	.54	.500
학력: 대학원 이상	.02	.136	.03	.171	.03	.157	.04	.187	0.00	0.000	.01	.120
울산거주 이유(출생)	.50	.500	.46	.499	.42	.493	.39	.489	.73	.447	.63	.484
직종: 전문직 종사자	.04	.205	.04	.185	.06	.232	.05	.217	.01	.078	0.00	0.000
업종: 제조업 종사자	.13	.336	.23	.420	.10	.299	.20	.402	.22	.414	.29	.456
월평균 가구소득	4.33	1.531	4.04	1.650	4.07	1.556	3.78	1.642	5.10	1.159	4.71	1.480
월평균 본인소득	4.10	2.178	4.53	2.434	4.05	1.944	4.50	2.236	4.26	2.743	4.58	2.878
자녀에 대한 생각(꼭 있어야 함, 있으면 좋음)	.37	.484	.64	.481	.34	.473	.65	.476	.48	.501	.60	.491
독립해서 살고 있음	.53	.500	.58	.493	.59	.493	.66	.476	.36	.481	.40	.492
사업체 형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07	.248	.06	.243	.06	.236	.07	.256	.08	.280	.04	.204
울산 중구 거주	.19	.393	.19	.392	.19	.396	.19	.396	.18	.387	.18	.383
울산 남구 거주	.27	.442	.26	.441	.25	.434	.25	.433	.31	.464	.30	.461
울산 동구 거주	.15	.359	.16	.362	.16	.369	.17	.372	.12	.327	.13	.337
울산 북구 거주	.20	.403	.20	.401	.20	.402	.20	.402	.21	.406	.20	.402

울산 울주군 거주	.19	.391	.19	.392	.19	.393	.19	.393	.18	.387	.19	.391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1: 일자리	3.31	.787	3.41	.837	3.23	.780	3.31	.864	3.52	.770	3.69	.697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2: 교육	3.23	.846	3.31	.872	3.07	.831	3.15	.860	3.68	.716	3.72	.769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3: 문화/여가	3.17	.914	3.22	.923	3.00	.860	3.06	.898	3.65	.888	3.63	.858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4: 복지	3.33	.738	3.31	.803	3.22	.700	3.21	.808	3.64	.757	3.56	.733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6: 주거	3.47	.839	3.44	.897	3.34	.834	3.30	.945	3.85	.735	3.81	.631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7: 의료	3.39	.739	3.46	.777	3.35	.744	3.38	.796	3.52	.712	3.64	.694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8: 교통	3.05	.958	3.09	.987	2.81	.934	2.82	.962	3.74	.643	3.79	.655
울산의 분야별 만족도9: 전반적 삶의 질	3.35	.705	3.37	.769	3.21	.691	3.21	.772	3.76	.573	3.78	.587
사례수	639		734		474		526		165		208	

[부록 5] 설문지

1. 2020년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울산광역시 청년종합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울산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울산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수요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울산시가 청년정책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분석 및 정책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7월
(재)울산연구원

- ☐ 주관기관 : (재)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이윤형
- ☐ 조사기관 : 위즈리서치 Tel. 051-526-7520, Fax. 051-524-5067

☐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만 ()세	
SQ3. 거주지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A. 울산 청년의 생활 [공통]

A1. 귀하가 울산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출생 ② 학교 ③ 취업 ④ 창업
 ⑤ 결혼 ⑥ 가족 이주 ⑦ 귀향 ⑧ 기타()

A2. 귀하는 울산의 다음의 각 분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문화, 여가	①	②	③	④	⑤
4) 복지	①	②	③	④	⑤
5) 도시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6) 주거	①	②	③	④	⑤
7) 의료	①	②	③	④	⑤
8) 교통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 삶의 질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현재 울산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원치않는 삶	원치않는 삶	보통	원하는 삶	가장 원하는 삶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는 다음 각 부분에 대해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분야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A5. 현재 귀하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대학(직장)생활적응 ② 대인관계 ③ 자기계발
- ④ 취(창)업 ⑤ 경제적 여건 ⑥ 건강
- ⑦ 이성교제 및 결혼 ⑧ 가정·보육 ⑨ 주택 및 주거
- ⑩ 외로움 ⑪ 기타()

A6. 귀하의 월 지출(등록금, 저축 제외)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50만원 ③ 50~70만원
- ④ 70~100만원 ⑤ 100~150만원 ⑥ 150~200만원
- ⑦ 200만원 이상

A7. 귀하는 청년 1인이 울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평균()만원

A8. 귀하가 울산에서 지출하는 항목 중 월평균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② 주류, 담배 ③ 의복비
- ④ 거주비(수도, 전기, 관리비 등) ⑤ 주거비(월세)
- ⑥ 교통비(자동차유지, 대중교통 등) ⑦ 통신(인터넷, 전화 등)
- ⑧ 문화·여가·취미 ⑨ 교육(정규, 학원 등)
- ⑩ 외식, 숙박 ⑪ 부채상환비
- ⑫ 여행비 ⑬ 이·미용비
- ⑭ 보건·의료(병원, 의약품 등) ⑮ 기타()

A9. 귀하는 현재 본인의 부채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A9_1로) ② 없다 (⇒A10로)

A9_1. 귀하가 현재 부채가 있다면 주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제1금융권 신용대출 ② 제2금융권 신용대출 ③ 학자금 대출
- ④ 약관대출(보험·증권) ⑤ 부동산 담보대출 ⑥ 마이너스 통장
- ⑦ 신용카드 대출 ⑧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빌림
- ⑨ 사채 ⑩ 기타()

B6. 귀하의 거주지와 별개로 커뮤니티 모임 등 귀하가 자주 문화와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2개 이내)

- ① 젊음의 거리(중구) ② 문화의 거리(중구) ③ 병영 일대(중구)
 ④ 성안동 일대(중구) ⑤ 생태공원 일대(중구) ⑥ 달동 일대(남구)
 ⑦ 삼산동 일대(남구) ⑧ 울산대학교 일대(남구) ⑨ 공업탑 일원(남구)
 ⑩ 일산지(동구) ⑪ 진장·명촌 일대(북구) ⑫ 기타()

B7. 귀하는 울산의 문화·여가 관련 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있다	없다	전혀 만족못함	대체로만 족못함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공연시설(소극장, 콘서트 장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 경기장(농구, 축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야외시설(공연, 공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전시시설(미술, 박물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센터/수련원/문화의 집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영화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8. 귀하는 울산의 다음 문화·여가의 내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별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문화·여가 공간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여가 콘텐츠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여가 콘텐츠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여가 관련정보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여가 전문가 수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여가 동아리 수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여가 비용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시간	①	②	③	④	⑤

B9. 귀하는 울산에서 청년문화·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규모 전시시설 ② 소규모 공연시설 ③ 복합(다목적)문화시설
 ④ 생활 속 문화공간 ⑤ 동아리 모임 및 연습 공간 ⑥ 야외 공연장
 ⑦ 기타()

E8. 귀하는 청년 취·창업과 관련한 역량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내용이 취·창업현장에 바로 접목되지 않음
- ②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음
- ③ 교육비(등록금, 교재비 등)가 많이 듦
- ④ 교육 이외 주거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듦
- ⑤ 장학금 등 교육지원금이 많지 않음
- ⑥ 기타()

E9. 귀하는 취·창업과 관련해 울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내)

- ① 울산 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확대
- ② 대학과 연계한 인턴십, 직장체험 확대 지원
- ③ 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고급직업훈련기관 개설 지원
- ④ 울산 내 새로운 직종 발굴 및 정보제공
- ⑤ 울산 유치기업에 울산 청년 우선 채용
- ⑥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⑦ 청년 창업지원 강화
- ⑧ 청년 해외취업지원 훈련센터 운영
- ⑨ 구직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 ⑩ 이직(전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
- ⑪ 공공 일자리 확대
- ⑫ 기타()

E10. 귀하의 현재 취·창업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무직(대학생, 취·창업 준비 중) (⇒F1로)
- ② 취업자 (⇒G1로)
- ③ 창업자 (⇒G1로)

F. 울산 청년의 취·창업 및 역량강화 [대학생, 취·창업 준비생]

F1. 귀하는 현재 경제 활동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
- ② 취업 준비 중
- ③ 구직 활동 중
- ④ 창업 준비 중
- ⑤ 구직 활동 없이 휴식 중
- ⑥ 가사/육아 중
- ⑦ 기타()

F13. 귀하는 향후 창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F14로) ② 없다 (⇒F20으로) ③ 모르겠다 (⇒F20으로)

F14. 귀하는 지금부터 얼마 이내에 창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 약()년 ()개월

F15. 귀하는 창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 약()만원

F16. 귀하가 창업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 ① 경제적 수익이 커서 ② 사회적 성공을 위해
③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 ④ 나의 전문영역 확대
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⑥ 취업이 어려워서
⑦ 지인의 동업 권유 ⑧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⑨ 현재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⑩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할수 있어서
⑪ 기타()

F17. 귀하는 어떤 종류의 창업을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지식·기술기반 ② 음식점(커피, 식당 등)
③ 도소매업(판매, 인터넷 쇼핑물 등) ④ 교육서비스업(학원, 공부방 등)
⑤ 사회적 경제영역(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⑥ 기타()

F18. 귀하는 청년창업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패 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②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③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검증 ④ 창업절차 등 창업에 대한 지식부족
⑤ 창업자금 확보 ⑥ 기타()

F19. 귀하는 울산시가 창업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창업교육 ② 창업공간 확대 ③ 창업비 지원확대
④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⑤ 기타()

※ 다음은 취·창업준비 과정상의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입니다.

F20. 귀하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횟수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아르바이트 횟수()회 ■ 근로계약서 작성횟수 ()회

※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르바이트 횟수에 “0”회를 작성하신 후 G1문항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G8. 귀하는 현재 일자리의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전반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급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적성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5)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6) 물리적 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복지 수준	①	②	③	④	⑤

G9. 귀하는 현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계속 근무할 것이다 (⇒G10으로)
- ② 신분, 급여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계속 근무할 것이다 (⇒G10으로)
- ③ 이직하고 싶지만 대안이 없다 (⇒G9-1로)
- ④ 적절한 기회에 이직할 것이다 (⇒G9-1로)
- ⑤ 잘 모르겠다 (⇒G10으로)

G9-1. (G9에서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가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 ① 낮은 급여
- ② 고용 불안정
- ③ 업무에 대한 적성 및 능력이 맞지 않아서
- ④ 빈번한 야근, 휴일근무
- ⑤ 일에 대한 성취감, 보람이 없어서
- ⑥ 미래 전망과 비전이 없어
- ⑦ 비민주적 의사소통 등 조직분위기
- ⑧ 기타()

※ 다음은 창업 관련 문항입니다.

G10. 귀하는 현재 창업을 하셨습니까?

- ① 현재 창업하여 기업이나 점포를 운영 중이다 (⇒G11로)
- ② 과거에 창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폐업, 양도 등) (⇒G11로)
- ③ 창업을 하지 않았다 (⇒H1로)

G11. 귀하가 창업을 하신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 ② 가업이기 때문에
- ③ 내 적성에 맞아서
- ④ 연령·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 ⑤ 수입이 더 많아서
- ⑥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서
- ⑦ 다니던 회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 ⑧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 ⑨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 ⑩ 기타()

DQ.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DQ1. 혼인여부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DQ2. 울산거주기간	()년
DQ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재학(휴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DQ4. 현재 일자리의 직종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영업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단순노무직 ⑨ 직업군인 ⑩ 기타()		
DQ5. 현재 일자리의 업종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숙박업 ④ 음식점업 ⑤ 기타서비스업 ⑥ 부동산·임대업 ⑦ 운수업 ⑧ 의료보건업 ⑨ 복지서비스 ⑩ 건설업 ⑪ 금융및 보험업 ⑫ 예술·스포츠 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⑭ 기타()		
DQ6. 거주 주택형태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⑥ 주거이외 거처(기숙사, 숙박업소 등) ⑦ 기타()		
DQ7. 점유형태 (현재거주기준)	① 자가 ② 전세(월세없음)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무상거주 ⑥ 기타()		
DQ8.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DQ9. 월평균 본인소득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100만원 미만 ④ 100~150만원 미만 ⑤ 150~200만원 미만 ⑥ 200~250만원 미만 ⑦ 250~300만원 미만 ⑧ 300만원 이상		
DQ10. 본인의 주된 소득	①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포함) ② 부모 이전 소득(용돈 포함) ③ 가족 이전 소득(부모제외) ④ 사업소득 ⑤ 정부지원 ⑥ 기타()		
DQ11. 동거인 (복수응답)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구(자인) ⑤ 친·인척 ⑥ 부모 ⑦ 배우자의 부모 ⑧ 형제자매 ⑨ 기타()		

2.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울산광역시 청년종합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울산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울산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수요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울산시가 청년 정책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분석 및 정책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4월
(재)울산연구원

- ▣ 주관기관 : (재)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 이윤형
- ▣ 조사기관 : (주)다산리서치 이희수 실장 T. 051-862-1606

□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만 ()세
SQ3. 거주지	① 중구 _____동 ② 남구 _____동 ③ 동구 _____동 ④ 북구 _____동 ⑤ 울주군 _____			

A. 울산 청년의 생활[공통]

A1. 귀하가 울산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출생 ② 학교 ③ 취업 ④ 창업
- ⑤ 결혼 ⑥ 가족 이주 ⑦ 귀향 ⑧ 기타()

A2. 귀하는 울산의 다음의 각 분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문화, 여가	①	②	③	④	⑤
4) 복지	①	②	③	④	⑤
5) 주거	①	②	③	④	⑤
6) 의료	①	②	③	④	⑤
7) 교통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 삶의 질	①	②	③	④	⑤

A3. 현재 귀하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대학(직장)생활 ② 대인관계 ③ 자기개발 ④ 취(창)업 준비
⑤ 경제적 여건 ⑥ 건강 ⑦ 이성교제 및 결혼 ⑧ 가정·보육
⑨ 주택/주거 ⑩ 문화생활 ⑪ 기타()

A4. 귀하는 얼마나 자주 집 밖으로 외출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3~4회 정도 ③ 주 1~2회 정도 ④ 월 1~2회 ⑤ 월 1회 이하

A4-1. 귀하의 주된 외출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 만남 ② 취업 준비 ③ 운동, 산책 ④ 쇼핑, 장보기 ⑤ 출근/등교
⑥ 취미, 문화생활 ⑦ 자녀돌봄 ⑧ 기타()

A5. 귀하의 생활에 필요한 주된 소득은 무엇입니까?

- ① 근로소득 ② 아르바이트 ③ 저축 ④ 대출
⑤ 정부지원금 ⑥ 정부 외 지원금(장학금 등) ⑦ 가족 지원(용돈 등)
⑧ 주식, 코인 ⑨ 기타()

A6. 청년 1인이 울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평균()만원

A7. 귀하가 울산에서 지출하는 항목 중 월평균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② 주류, 담배 ③ 의복비
④ 거주비(수도, 전기, 관리비 등) ⑤ 주거비(월세) ⑥ 교통비(차량 유지, 대중교통 등)
⑦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 ⑧ 문화·여가·취미 ⑨ 교육비(학교, 학원 등)
⑩ 외식비 ⑪ 부채상환비 ⑫ 여행비
⑬ 이·미용비 ⑭ 보건·의료(병원, 의약품 등) ⑮ 기타()

A8. 귀하는 현재 본인의 부채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A8_1로) ② 없다 (⇒A9로)

A8_1. 현재 부채가 있다면 주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제1금융권 신용대출 ② 제2금융권 신용대출 ③ 학자금 대출
④ 약관대출(보험·증권) ⑤ 부동산 담보대출 ⑥ 마이너스 통장
⑦ 신용카드 ⑧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빌림 ⑨ 사채
⑩ 기타()

A8_2. 현재 부채가 있다면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학자금 ② 취·창업 자금 ③ 주거비(전세금, 주택구입 등)
④ 생활비 ⑤ 의료비 ⑥ 가족 지원
⑦ 문화여가(취미, 여행 등) ⑧ 기타()

A8_3. 귀하의 현재 부채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

B3. 귀하가 선호(희망)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1) 귀하가 현재 활동하는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 ()
2) 귀하가 선호(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 ()

- ① 문화예술관람(음악, 미술, 공연 등) ② 문화예술참여(음악, 미술, 공연 등) ③ 여행
 ④ 스포츠관람(야구, 축구 등) ⑤ 스포츠참여(축구, 야구 등) ⑥ 영화 관람
 ⑦ 지역축제 관람 및 참여 ⑧ 레저(등산, 캠핑, 낚시 등) ⑨ 종교 활동
 ⑩ 자원봉사(재능기부 등) ⑪ 취미오락활동 ⑫ 각종 모임
 ⑬ 취미학습활동(요리 등) ⑭ 휴식활동(TV시청, 수면 등) ⑮ 기타()

B4. 귀하의 문화·여가활동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②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③ 건강을 위해
 ④ 자기 계발을 위해 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⑥ 대인관계·교제를 위해
 ⑦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⑧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⑨ 기타()

B5. 귀하는 주로 문화·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 ① 혼자 ② 연인·배우자 ③ 친구 ④ 부모·형제
 ⑤ 직장동료 ⑥ 동호회원 ⑦ 기타()

B6. 귀하가 한 달 평균 문화·여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 한 달 평균 문화·여가 지출 비용은?	월평균 (원)
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여가 지출 비용은?	월평균 (원)

B7. 귀하는 울산의 다음 문화여가의 내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문화·여가 공간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여가 콘텐츠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여가 콘텐츠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여가 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여가 전문가 수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여가 동아리 수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여가 비용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시간	①	②	③	④	⑤

B8. 귀하는 울산의 문화·여가 관련 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a. 이용경험		b.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다	없다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공연시설(소극장, 콘서트장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 경기장(농구, 축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생활 스포츠시설(자전거도로, 체육센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전시시설(미술, 박물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센터/수련원/문화의 집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영화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공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9. 울산에서 청년문화·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규모 전시시설 ② 소규모 공연시설 ③ 복합(다목적)문화시설
 ④ 생활 속 문화공간 ⑤ 동아리 모임 및 연습 공간 ⑥ 야외공연장
 ⑦ 생활 스포츠시설 ⑧ 기타()

B10. 귀하의 거주지와 별개로 커뮤니티 모임 등 귀하가 자주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울산 중구 ② 울산 남구 ③ 울산 동구
 ④ 울산 북구 ⑤ 울산 울주군 ⑥ 서울/경기/인천
 ⑦ 부산/경남 ⑧ 대구/경북 ⑨ 기타()

B11. 울산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문화·예술 창작기금 ②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③ 문화정보·소통 플랫폼 구축
 ④ 문화·여가 공간/시설 구축 ⑤ 문화·여가 강좌 개발·보급 ⑥ 청년동호회 활동 지원
 ⑦ 관련 법·제도 개선 ⑧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⑨ 기타()

B12.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게임, SNS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2)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주말 하루 평균 _____ 시간

C. 울산 청년의 결혼과 가족형성[공통]

C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C2로) ② 하는 것이 좋다 (⇒C2로)
 ③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C2로)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C1_1로)
 ⑤ 하지 말아야 한다 (⇒C1_1로)

D1-3. 귀하는 소득의 몇 %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합니까? (주거비용은 임대료, 관리비, 대출상환이자를 모두 포함)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 이상

D1-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일조량(햇빛이 적다) ② 빨래 건조공간 부족 ③ 욕실, 화장실 협소
④ 방음, 층간소음 ⑤ 프라이버시(창문 방향 등) ⑥ 통풍
⑦ 안전·치안 문제 ⑧ 문제없음 ⑨ 기타()

D2. (D1에서 ①번 응답자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주거비, 생활비 등) ② 출퇴근 및 통학 접근성
③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편리 ④ 독립할 이유가 없어서
⑤ 부모님(보호자)의 권유로 ⑥ 기타()

D3. 귀하는 청년 주거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증금/전세금/매입 비용마련 ② 월세/관리비 과다
③ 공공임대/소형평수 주택부족 ④ 대중교통 편리성
⑤ 문화/편의시설 접근성 ⑥ 주변 치안
⑦ 계약 등 주택관련 법률정보 부족 ⑧ 기타()

D4. 귀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청년대상 공공주택 공급확대(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등)
② 주택구입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
③ 주거지원서비스 정보제공(부동산, 공공주거서비스, 룸쉐어서비스 등)
④ 준공공주택,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셰어하우스 등) 활성화 지원
⑤ 기타()

E. 울산 청년의 일자리[공통]

E1.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원)생 ② 취업 준비 중(졸업) ③ 이직 준비 중 ④ 창업 준비 중
⑤ 취업 상태 ⑥ 창업 상태 ⑦ 가사/육아 중
⑧ 구직활동 없이 휴식 중 (⇒E1_1으로) ⑨ 기타()

E1-1. (E1에서 ⑧번 응답자만)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② 단순히 휴식이 필요해서
③ 학교 진학/유학 준비 중이어서 ④ 취업 의사가 없어서
⑤ 취업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⑥ 일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어서
⑦ 군입대 예정 또는 군제대 후 쉽 ⑧ 기타()

E2. 귀하는 현재 또는 향후에도 울산에서 취업 또는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E2_1으로) ② 별로 없음 (⇒E2_1으로)
③ 보통 (⇒E3으로) ④ 다소 있음 (⇒E3으로) ⑤ 매우 있음 (⇒E3으로)

E2-1. (E2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울산에서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원하는 분야의 취·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 ② 급여가 타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 ③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 ④ 업종의 전망이나 비전이 울산에 없기 때문에
- ⑤ 울산의 정주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⑥ 기타()

E3. 귀하가 취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야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적성과 흥미	①	②	③	④	⑤
3)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4) 복지제도	①	②	③	④	⑤
5) 일의 강도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7) 출퇴근 시간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8)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9) 전망과 비전	①	②	③	④	⑤
10) 회사 이미지(주변 의견)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①	②	③	④	⑤

E4.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취업성공 요소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외국어 능력 ② 학력(졸업대학 평판) ③ 자격증(업무관련) ④ 어학
- 연수 등 해외경험 ⑤ 인턴 등 직무경험 ⑥ 공모전 등 수상경력
- ⑦ 다양한 활동(동아리, 봉사 등) ⑧ 인적네트워크 ⑨ 기타()

E5. 귀하는 청년 취창업과 관련한 울산시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다소 필요 ⑤ 매우 필요

E6. 청년 취·창업을 위해 울산시가 지원해야 할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진로상담, 멘토(유망분야, 직업트렌드 등) ② 취·창업정보 제공(취·창업박람회, 온라인 포털 등)
- ③ 다양한 분야의 무료교육 및 프로그램 ④ 진로탐방 및 체험
- ⑤ 진로분야별 소모임 ⑥ 면접, 응시비용 지원
- ⑦ 국내외 인턴십 확대 ⑧ 창업공간지원
- ⑨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문화 등) ⑩ 울산 유치기업에 울산 청년 우선 채용
- ⑪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⑫ 취업장려금 제공
- ⑬ 기타()

E7. 귀하는 울산시에서 취·창업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E7-1로) ② 없다 (⇒E8로)

F5. 귀하는 취업·창업 준비 기간동안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아르바이트 ② 가족 또는 친지의 지원 ③ 친구, 지인에게 빌림
- ④ 금융권 대출(은행, 보험사) ⑤ 금융권 이외 대출(사채) ⑥ 개인저축
- ⑦ 정부 보조 ⑧ 기타()

※ 다음은 취업에 관한 문항입니다. 취업준비 중이거나 구직자만 응답해 주세요.

F6. 귀하가 취업 시 생각하는 적정한 연봉 수준(세전 기준)은 얼마입니까?

- ① 2,500만원 미만 ② 2,500~3,000만원 미만 ④ 3,000~3,500만원 미만
- ⑤ 3,500~4,000만원 미만 ⑥ 4,000~4,500만원 미만 ⑦ 4,500~5,000만원 미만
- ⑧ 5,000만원 이상

F7. 귀하가 취업을 위해 준비한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개 이내)

- ① 공모전 등 대외활동 ② 대학원 진학 ③ 어학관련 교육 및 시험
- ④ 어학연수/해외연수 ⑤ 인턴/현장실습 ⑥ 자격증 취득 및 교육
- ⑦ 직무적성검사 준비 및 교육 ⑧ 직업훈련 ⑨ 취업동아리
- ⑩ 취업 컨설팅 ⑪ 미용관련(성형 등) ⑫ 기타()

F8. 귀하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체는 어느 유형입니까?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④ 정부기관(공무원)
- ⑤ 교육기관 ⑥ 연구기관 ⑦ 법인·단체 ⑧ 공사·공공기관
- ⑨ 기타()

F9. 귀하가 원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관리직 ② 경영·회계·사무직 ③ 금융 및 보험관련 ④ 연구직
- ⑤ 공무원(교사포함) ⑥ 보건·의료직 ⑦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 ⑧ 문화·예술관련
- ⑨ 운송·운수관련 ⑩ 영업·판매직 ⑪ 경비 및 미화 ⑫ 미용관련
- ⑬ 서비스직 ⑭ 건설·토목관련 ⑮ 전기·전자관련 ⑯ 정보통신관련
- ⑰ 농림어업 관련 ⑱ 군인 ⑲ 기타()

※ 다음은 창업에 관한 문항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만 응답해 주세요.

F10. 귀하는 지금부터 얼마 이내에 창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 약()년 ()개월

F11. 귀하는 창업에 필요한 비용(창업자금)을 대략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 약()만원

F12. 귀하가 창업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경제적 수익이 커서 ② 사회적 성공을 위해 ③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
- ④ 나의 전문영역 확대 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⑥ 취업이 어려워서
- ⑦ 지인의 동업 권유 ⑧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⑨ 현재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 ⑩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할수 있어서 ⑪ 기타()

F13. 귀하는 어떤 종류의 창업을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지식·기술기반
- ② 음식점(커피, 식당 등)
- ③ 도소매업(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
- ④ 교육서비스업(학원, 공부방 등)
- ⑤ 사회적 경제영역(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⑥ 문화예술관련
- ⑦ 기타()

F14. 귀하는 청년창업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패 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 ②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 ③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검증
- ④ 창업절차 등 창업에 대한 지식부족
- ⑤ 창업자금 확보
- ⑥ 지원시설 및 공간
- ⑦ 주변에 도움받을 전문가 부재
- ⑧ 기타()

F15. 울산시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창업교육
- ② 창업공간 확대
- ③ 창업자금 지원 확대
- ④ 창업 후 초기창업 지원 강화
- ⑤ 기타()

G. 울산 청년의 일자리[현재 취·창업 중이신 청년만 응답해 주세요]

※ 다음은 취업 관련 문항입니다. 현재 취업자만 응답해 주세요.

G1. 귀하가 고교 또는 대학졸업 이후에 첫 일자리 취업을 위해 준비하신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년 ()개월

G2. 귀하의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 또는 사업체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민간 또는 개인사업체
- ②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③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재단/사단법인)
- ④ 기타()

G3.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대표자 포함)

- ① 5명 미만
- ② 5~10명 이내
- ③ 10~30명 이내
- ④ 30~99명 이내
- ⑤ 100명 이상

G4. 귀하의 현재 일자리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당 ()시간

G5. 귀하의 현재 일자리 근로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수습 및 인턴기간 포함)

■ ()년 ()개월

G6. 귀하는 현재 일자리의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분야	전혀 만족 못함	대체로 만족 못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전반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급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적성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5)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6) 물리적 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복지 수준	①	②	③	④	⑤

G7. 귀하는 현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계속 근무할 것이다
- ② 신분, 급여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계속 근무할 것이다
- ③ 이직하고 싶지만, 대안이 없다 (⇒G7-1로)
- ④ 적절한 기회에 이직할 것이다 (⇒G7-1로)
- ⑤ 잘 모르겠다

G7-1. (G7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가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 ① 낮은 급여 수준
- ② 고용 불안정
- ③ 업무에 대한 적성 및 능력이 맞지 않아서
- ④ 빈번한 야근, 휴일근무
- ⑤ 일에 대한 성취감, 보람이 없어서
- ⑥ 미래 전망과 비전 부재
- ⑦ 비민주적 의사소통 등 조직분위기
- ⑧ 기타()

※ 다음은 창업 관련 문항입니다. 현재 창업자만 응답해 주세요.

G8. 귀하가 현재의 사업체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신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년 ()개월

G9. 귀하는 현재의 사업체를 언제 창업하셨습니까? 창업 연월을 적어주십시오.

■ ()년 ()월

G10.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대표자 포함)

- ① 1명(1인 기업)
- ② 2~5명 이내
- ③ 5~10명 이내
- ④ 10~50명 이내
- ⑤ 50명 이상

G11. 귀하가 **창업**을 하신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 ② 가업이기 때문에
- ③ 내 적성에 맞아서
- ④ 연령·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 ⑤ 수입이 더 많아서
- ⑥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서
- ⑦ 다니던 회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 ⑧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 ⑨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 ⑩ 기타()

G12. 귀하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창업자금 확보
- ②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 확보
- ③ 관련 인력 확보
- ④ 행정 절차(인허가, 창업지원 등)
- ⑤ 준비단계에서 생계문제
- ⑥ 실패에 대한 두려움
- ⑦ 창업에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 ⑧ 기타()

G13. 귀하가 **창업 후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경영관련 지식 부족
- ② 신기술/신제품 개발
- ③ 시장판로 개척
- ④ 필요인력 확보
- ⑤ 경영자금 조달
- ⑥ 법률, 회계, 세무관련 지식
- ⑦ 사무실/생산시설 마련
- ⑧ 기타()

G14. 귀하는 **울산시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창업교육
- ② 창업공간 확대
- ③ 창업비 지원확대
- ④ 창업 후 초기창업 지원 강화
- ⑤ 기타()

H. 울산 청년 정책 [공통]

H1. 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대체로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있다
- ⑤ 매우 있다

H2. 귀하는 **울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 ① 울산시 청년정책 플랫폼(청년센터 등)
- ② 울산시 홈페이지
- ③ 기타 포털사이트(울산시 운영 외)
- ④ 지인, 친구 등 주변 사람
- ⑤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인터넷 외)
- ⑥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 ⑦ 홍보지, 소식지 등 정기메일링 받기
- ⑧ 기타()

H3. 귀하는 **울산시 정책 형성과정**에 어떤 **활동**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까?

- ① 관련 SNS, 홈페이지 등에 댓글달기
- ② 개인 블로그에 의견달기
- ③ 공청회 등 행사 참여하기
- ④ 다양한 청년조직, 위원회 등 참여
- ⑤ 기타()

H4. **울산시가 청년 정책**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업 지원
- ② 역량개발(교육 등)
- ③ 주거 지원
- ④ 창업지원
- ⑤ 청년활동공간
- ⑥ 문화프로그램
- ⑦ 다양한 정보교류
- ⑧ 결혼 및 출산 지원
- ⑨ 참여 및 권리보호
- ⑩ 기타()

H5. 그 밖에 귀하가 생각하는 울산청년을 위해 필요한 울산시의 청년지원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DQ.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DQ1. 혼인여부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DQ2. 울산거주기간	()년
DQ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재학(휴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DQ4. 현재 일자리의 직종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영업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단순노무직 ⑨ 직업군인 ⑩ 해당없음 ⑪ 기타()		
DQ5. 현재 일자리의 업종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숙박업 ④ 음식점업 ⑤ 기타서비스업 ⑥ 부동산·임대업 ⑦ 운수업 ⑧ 의료보건업 ⑨ 복지서비스 ⑩ 건설업 ⑪ 금융및 보험업 ⑫ 예술·스포츠 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⑭ 해당 없음 ⑮ 기타()		
DQ6. 점유형태 (현재거주기준)	① 자가 ② 전세(월세없음)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무상거주 ⑥ 기타()		
DQ7.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DQ8. 월평균 본인소득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100만원 미만 ④ 100~150만원 미만 ⑤ 150~200만원 미만 ⑥ 200~250만원 미만 ⑦ 250~300만원 미만 ⑧ 300만원 이상		
DQ9. 동거인 (복수응답)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구(지인) ⑤ 친·인척 ⑥ 부모 ⑦ 배우자의 부모 ⑧ 형제자매 ⑨ 기타()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원		조사일시	

ABSTRACT

A Study on the Outflow Factors of Young Population by Employment and Industry:

Focusing on Employment and Manufacturing in Ulsan, South Korea

Park, Soon Chul

Advised by Prof. Doh, Soogw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causes of the significant outflow of young population in Ulsan and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alleviate or improve this phenomenon. Rather than viewing the outflow of young people from Ulsan as a natural and inevitable occurrence,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differences in migration inten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distinguishing between employed/self-employed and job seekers) and manufacturing industry employment status (distinguishing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workers). To achieve th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Ulsan Research Institute's Youth Survey conducted in 2020 and 2023. The analysis considered factors such as job(occupation), residential condi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o assess their impact on the migration intention of young people from Ulsan to other region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status (whether young people are employed or self-employed)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erceived job field were

identified as crucial factors in mitigating the outflow of the young population from Ulsan.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to create high-quality job opportunities, foster necessary skills among local youth, and offer comprehensive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Second, as young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ir quality of life increases, the proportion of those who express an unconditional intention to leave Ulsan and migrate to other areas decreases. From this perspective,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youth could partially mitigate the outflow issue.

Third, regarding young people who are employed or self-employed in the Ulsan area, efforts should focus on reducing their job change intentions. By doing so, we can decrease their willingness to leave Ulsan for other regions. Additionally, it's worth noting that those wh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parents and have higher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s are less likely to express an unconditional intention to leave Ulsan. Consequently, exploring ways for young employed or self-employed individuals to establish independent households and enjoy economic stability is essential.

Fourth, research revealed that as the expected salary for young people who are students or preparing for employment increases, or as they aspire to work for large corporations, their willingness to leave Ulsan for other areas also increases. Consequently, concerted efforts from both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create additional high-quality jobs in the region.

Fifth, the analysis of migration intention, based on manufacturing industry employment status, revealed that young people engaged in manufacturing have a lower probability of expressing an unconditional intention to leave Ulsan for other areas. Consequently, it can be inferred that manufacturing industry employment status significantly impacts the migration intention of young people in the Ulsan area.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o create quality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we should foster industries with sustainable growth potential, strong connections to related sectors, and high scalability. Examples include the knowledge information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based sectors.

Second, given the high migration intention among female youth and the worsening gender imbalance among young people in Ulsan, it is crucial to focus on creating female-friendly job opportunities. Sectors such as the service industry, logistics and distribution, and culture/tourism should receive special attention.

Third, given substantial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workers and its historical growth based on manufacturing in Ulsan, efforts should prioritize enhancing working conditions and the work environment for these workers. This approach can help reduce their job change intentions.

Fourth, given that the need for childcare significantly impacts the migration intentions of the youth population to other areas, it is urgent to establish diverse childcare policies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them by defi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districts.

Fifth, given the decreased probability of young people expressing an unconditional intention to leave Ulsan for other areas in 2023 (when youth policies were actively implemented), there is a need for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youth policies based on the demands and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panel data for causal inference regarding the factors influencing local youth's residential choices.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data accumulation and model development to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young people's migration intentions.

Keywords: youth population, youth outflow, employment, manufacturing industry, Ulsan